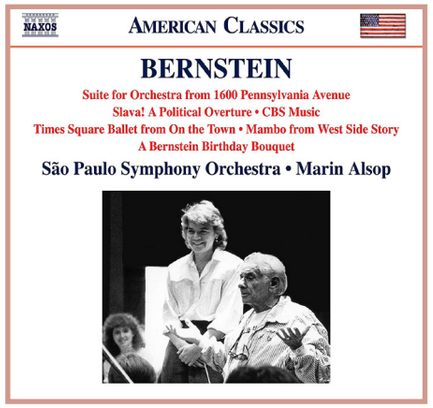


번스타인: 관현악 작품집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 (지휘)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헌정 음반

2018년 가장 주목 받는 예술가 1순위에 오르는 인물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번스타인의 제자이기도 한 마린 알솝은 세기를 빛낸 예술가에 대한 헌사를 자신의 분신 상파울루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반에 담았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맘보'를 비롯해 번스타인의 유명 작품 한 대목들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세계 최초로 녹음된 CBS방송 개국 50주년 기념작 'CBS 뮤직'(1978)과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작품 '번스타인의 생일 부케'(1988)이다. 특히, 후자에 참여한 작곡가들(루치아노 베리오, 존 코리글리아노, 토루 다케미츠, 존 윌리엄스 등)의 면모는 지난 세기 거장의 그림자를 실감할 수 있어 특별하다.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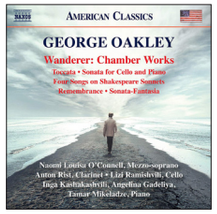
*** 'CBS 뮤직'(4–8번 트랙), '번스타인 생일 부케'(10–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59813 **[추천음반]**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존 하비슨: 레퀴엠
제시카 리베라(소프라노), 미카엘라 마르텐스(메조 소프라노), 니콜라스 판(테너), 켈리 마크그라프(바리톤), 네쉬빌 심포니 코러스(합창), 네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로(지휘)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레퀴엠
8559841



조지 오클레이: 방랑자(실내악 작품집)
나오미 루이자 오코넬(메조 소프라노), 안톤 리스트(클라리넷), 리지 레미시빌리(펠로), 잉가 카샤카시빌리 · 안젤리나 가델리야 · 타마르 미켈라이즈(피아노)
르네상스와 현대를 잇는 다리
8559856

윌리엄 베넷: 실내악 작품집
제레미 영(피아노), 레온 보쉬(더블베이스), 빌리어스 현악 사중주단(연주)
작곡가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
857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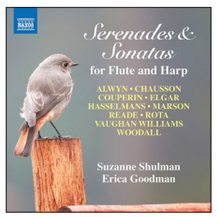
모이제스: 교향곡 5 & 6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바크(지휘)
작곡가의 행복한 시절을 대표하는 두 편의 교향곡
8573652

프란츠 슈레커: 드라마(연극)에 부친 서곡, (공주의 생일)모음곡, 낭만적 모음곡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펠레타(지휘)
웅혼한 음향과 낭만적인 서정, 브루크너와 바그너 그리고 슈만의 조화
8573821

셉투라: 관악 7중주를 위한 음악 6집
셉투라(연주)
금관으로 펼쳐지는 영국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
8573825

페르디난트 리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집
에릭 그로스만(바이올린), 수잔 케이건(피아노)
베토벤의 색채에 한층 다가서는 리스의 발걸음
8573862

알프레드 브루뉴: '《메시도르》 중 전주곡', '《풍차 돌격》 모음곡', '《미쿠장의 탄생》 중 전주곡', '《메시도르》 중 황금의 전설'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데럴 앙(지휘)
에밀 졸라, 바그너 & 마스네의 인상이 어우러진 알프레드 브루뉴의 작품 세계
8573888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세레나데와 소나타 작품집
수잔 슐먼(플루트), 에리카 굿먼(하프)
꽃피고 물흐르는 정원의 향수
8573947

세기 말 세기 초, 런던과 파리의 노래
클레망틴 드쿠트르(소프라노), 필리프 브로카르(바리톤), 클로에 듀크레이(하프), 프리볼 앙상블(연주)
세기 말, 세기 초, 런던과 파리에 흐르던 노래들
8573973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8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8호 | December 2018

*Key Issue

Berliner Phil. **우치다와 래틀의 베토벤 아우라** 3CD + 2Blu-ray

BR Klassik **'The Asia Tour 2018' 내한 공연기념** 4CDs

*Cover Story

베를린 필과 사이먼 래틀 **'말러 교향곡 6번'** 2CD + 1Blu-ray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8CDs

Key Issue

'The Asia Tour 2018' 내한 공연기념 4CDs 11-12
우치다와 래틀의 베토벤 아우라 3CD + 2Blu-ray 79

Cover Story

베를린 필과 래틀 '말러 교향곡 6번' 2CD + 1Blu-ray 3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8CDs 4-5

CD

Alba 6
Arco Diva 7
Austrian Grammophone 7
Bach-Stiftung 8
Berliner Philharmoniker 8
BMC 9-10
BR Klassik 11-12
Capriccio 12-15
Cedille 15-16
Dacapo 16
Dynamic 17
Gramola 18
Grand Piano 18
IBS Classical 20
Klanglogo 20
Naxos 21-27
Ondine 28
Orchid Classics 29
Proprius 29
RPO 30
Seattle Symphony 30
Simax 31
Solo Musica 32
Steinway & Sons 33-36
Tactus 37
Tokunstler 39
Wiener Symphoniker 39

4K & DVD & Blu-ray

C Major **[4K]** 40-41
Accentus 42
Arthaus 43-44
BelAir 44-46
Belvedere 47-50
C Major 51-56
Dynamic 57
EuroArts 58-65
Naxos 66-70
OpusArte 71-76

LP

EuroArts 77
Grappa 78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래틀과 베를린 필의 '만남'과 '이별'의 노래, 말러 교향곡 6번

래틀(1955~)은 말러 교향곡 6번으로 베를린 필의 객원지휘를 맡으며 데뷔(1987년 11월 14일)했고, 같은 곡으로 고별연주회(2018년 6월 20일)를 치루며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다. 2장의 CD, 1장의 블루레이, 72쪽 분량의 해설지, 디지털콘서트홀 7일 무료이용권으로 구성된 세트물에는 두 공연의 실황이 수록되어 있다. 1CD는 고별공연 실황, 2CD는 데뷔 공연 실황이다. 블루레이에는 ①고별공연 실황영상, ②다큐멘터리 '시대의 메아리'(67분/한글자막), ③말러 교향곡 6번에 대한 래틀의 해설 영상(10분/한글 자막)이 들어 있고, ④2018년 실황과 ⑤1987년 실황을 퓨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해설지에는 트랙, 교향곡 6번 아티클, 프레데릭 한센의 평론 '씨 뿌리는 자의 큰 수확물–베를린 필에서의 래틀의 시대'(독 · 영어)가 수록되어 있다.(※본 세트물 구입 시 음악회 프로그램북(44쪽 분량)이 주어진다.)

BPHR180231 **[2CD + 1Blu-ray]**
래틀과 베를린 필
'만남'과 '이별'의 노래, 말러 교향곡 6번 [한글자막]
1987년, 2018년 베를린 필하모니홀 실황 – 말러 교향곡 6번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구성]
1) **CD1 :** 2018년 6월 20일 고별연주 말러 교향곡 6번
2) **CD2 :** 1987년 11월 15일 첫 만남 말러 교향곡 6번
3) **BD + DVD 1 :** ① 2018년 6월 20일 고별 무대 실황 영상,
② 다큐멘터리 '시대의 메아리'(67분/한글 자막),
③ 말러 교향곡 6번에 대한 래틀의 해설 영상(10분/한글 자막),

[보조자료]
사이먼 래틀(1955~)은 2002년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16년 동안 악단을 이끌었다. 그가 퇴임할 때의 마지막 곡은 말러 교향곡 6번으로, 30대 초반이던 그가 1987년 11월 14일에 베를린 필의 객원지휘자로 데뷔했을 적에 연주했던 곡이기도 하다. 본 세트는 그 첫 만남과 마지막 연주의 순간을 담고 있다. 세트물은 2장의 CD, 1장의 블루레이, 72쪽 분량의 해설지, 디지털콘서트홀 7일 무료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2eNla6gmbl4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헤르베르트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8CDs **[스페셜 가격]**

헤르베르트 케겔은 구동독이 자랑하던 20세기 위대한 지휘자다. 1920년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평생을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 활동한 케겔은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에서 30년간 일한 뒤, 1977년부터 타계하기 5년 전인 1985년까지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있었다. 드레스덴 음악원에서 명지휘자 카를 뵘의 제자였고 그곳에서 작곡까지 공부했던 탄탄한 실력을 갖춘 거장 지휘자였는데, 통독되던 1990년에 70세를 일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Capriccio C7275 **[8CDs]**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스페셜가격

베토벤: 교향곡 전곡(합창 환상곡 포함)
브람스: 독일 레퀴엠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케겔(지휘)

이 음반세트에는 알비노니, 글루크, 글린카, 그리그, 시벨리우스의 명곡 등 매력적인 보너스 트랙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다. 두 거대한 레퍼토리 모두 1980년대의 녹음으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케겔의 지휘를 그대로 증명해준다. 베토벤 교향곡은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드레스덴 성 누가 교회(Luckaskirche)에서 녹음했다. 한 곡 한 곡이 모두 빼어나다.

케겔은 대체로 템포를 높여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스케일이 큰 호쾌한 구도를 즐기며, 베토벤의 작품이 요구하는 오프비트 액센트나 곳곳에 산재한 갖가지 음악적 유머나 실험까지도 낱낱이 찾아내 정말 뉘앙스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호연을 들려준다. 그의 교향곡 녹음은 이미 전 세계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음원이다.

케겔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세트를 보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실상 케겔의 대표적인 명연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브람스가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며 낭만주의 합창 음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명곡은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음반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케겔의 연주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준 예는 흔치 않다. 순도 높은 합창과 리듬의 생동감 그리고 영감이 넘실거리는 환상, 그리고 수준급 독창자들의 절창 등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많은 명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겔이 동독 지휘자이고 마이너레이블에서 발매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애호층을 형성하지는 못했었다. 아마 그의 음반이 메이저 레이블에서 나왔다면 오토 클렘페러의 음반과 자웅을 겨룰 정도였을 것이다.

[수록곡내용]

[DISC 1]
BEETHOVEN: Symphony Nos. 1 and 3

[DISC 2]
BEETHOVEN: Symphony Nos. 2 and 7

[DISC 3]
BEETHOVEN: Symphony Nos. 4 and 5

[DISC 4]
BEETHOVEN: Symphony Nos. 6 and 8

[DISC 5]
BEETHOVEN: Symphony No. 9
Alison Hargan(soprano), Ute Walther(contralto), Eberhard Büchner(tenor), Kolos Kováts(baritone)
Leipzig Radio Chorus, Berlin Radio Chorus
Recroding : Dresden, Lukaskirche, 1982-1983

[DISC 6]
BEETHOVEN: Triple Concerto, Choral Fantasia
Peter Rösel(piano), Christian Funke(violin), Jürnjakob Timm(cello), Leipzig Radio Chorus
Recording : Dresen, Lukaskirche 1985-1986

[DISC 7]
BRAHMS: A German Requiem
Marie Anne Häggander(soprano), Siegfried Lorenz(baritone)
Leipzig Radio Chorus, Leipzig Radio Symphony Orchestra
Recording : Dresden, Lukaskirche 1985

[DISC 8]
ALBINONI: Adagio in G minor
GLUCK: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GLINKA: Ruslan and Ludmilla – Overture
MUSSORGSKY: Khovanshchina – Entr'acte
GRIEG: Two Elegiac Melodies, Op. 34
SIBELIUS: Valse triste, Op. 44
WOLF-FERRARI: I Quattro Rustecchi – Intermezzo
LEONCAVALLO: Pagliacci – Intermezzo
SCHMIDT: Notre Dame – Intermezzo
STRAVINSKY: Circus Polka
ELGAR: Pomp and Circumstance – Military March No. 1
DRESDNER PHILHARMONIE, LEIPZIG RADIO SYMPHONY ORCHESTRA ***(CD 7)***
HERBERT KEGEL(conductor)
Recording : Dresden, Lukaskirche 1986

Alba www.alba.fi

ABCD420

브람스: 교향곡 3번/ 세게르스탐: 교향곡 294번 '앞일을 예고하는 유니콘의 노래'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따뜻한 음색으로 감성에 젖어드는 브람스와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세게르스탐

"수염 동지" 브람스의 〈교향곡 3번〉과 핀란드의 작곡가 세게르스탐의 〈교향곡 29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세게르스탐은 40년 동안 약 330곡에 달하는 교향곡을 완성하고 현재도 작곡 중인 작곡가이자, 핀란드 제2의 도시 투르쿠의 교향악단을 이끄는 지휘자이며, 시벨리우스 음악원의 교수이기도 한 괴물 음악가이다. 그의 교향곡은 지휘자 없이 자유롭게 연주하며, 그래서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규정할 수 없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더없이 따뜻한 음색으로 깊은 감성에 젖어들며,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타고 진행한다.

ABCD424

바흐: 포르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바흐

수산네 쿠얄라(오르간)

중세 시대 교회에 설치된 핀란드 최상의 오르간으로 듣는 바흐

헬싱키 북부에 위치한 야나칼라 교회는 중세에 지어진 유서 깊은 교회로, 이곳에는 핀란드에서 가장 좋은 오르간 중 하나가 설치되어있다. 이 악기는 핀란드의 오르간 거장인 마르티 포르탄이 1993년에 제작한 것으로, 밝고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려하게 움직이는 고음에 특히 빛을 발한다. 자유로운 전주곡들과 화려한 푸가들에서 그 진가를 들을 수 있다. 이 오르간은 적당한 잔향으로 선율을 명확하게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녹음된 두 곡의 소나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 서정적 깊이를 표현한다.

ABCD425 [SACD]

노르드그렌: 바이올린 협주곡 4번, 혼 협주곡, '바위 악보'

야리 발로(바이올린), 유카 하류(혼), 오스트로보트니아 챔버 오케스트라, 유하 칸가스(지휘)

핀란드의 비극적인 정서를 그려낸 노르드그렌의 현악 작품들

페르 헨리크 노르드그렌은 헬싱키와 도쿄에서 공부한 핀란드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그에게 영향을 준 여러 현대기법과 핀란드 민속음악, 그리고 일본음악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그만의 독특하고 환상적이며 신비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은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두터운 사운드와 거친 표현으로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다.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위 악보'는 과감한 제스쳐와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산뜻한 인상을 주며, 〈혼 협주곡〉 또한 금관악기의 자연적 특성을 십분 활용한 서정적인 작품이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0204

버르토크: 대비/ 스트라빈스키: 병사이야기 모음곡/ 쇤필드: 삼중주 등

트리오 클라비오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 세 악기가 완벽한 조합임을 증명하는 연주

'트리오 클라비오'가 연주하는 버르토크의 〈대비〉는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 세 악기의 조화가 돋보이면서도 각 악기의 제스처를 특징적으로 대비시키며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낸다.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이야기 모음곡〉에서는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놓치지 않는다. 쇤필드의 〈삼중주〉는 클레츠머와 살롱을 결합시킨 분위기가 일품이다. 두 번째 CD에는 네 곡의 체코 작곡가의 곡이 수록되어있다. 후르니크의 〈일파벳〉은 유쾌하고 브루너의 〈어린이와 같이〉와 필라스의 〈키아로수쿠로〉는 서정적이며, 보도로바의 〈춤추는 산〉은 민요 풍의 애잔한 선율이 매력적이다.

Austrian Grammon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G0010

바흐: 프랑스 모음곡 5번/ 스카를라티: 일곱 곡의 소나타

로렌초 마테라초(피아노)

바흐와 스카를라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올곧은 연주

피아니스트 로렌초 마테라초는 유럽 최고의 거장인 알로이스 콘타르스키의 제자이며,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개릭 올손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다. 또한 음악학을 전공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음악가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러한 그가 연주한 스카를라티와 바흐는 이 작품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보이며, 각 패시지들의 역할에 따른 다이나믹과 템포, 리듬, 제스쳐 등 꼼꼼하게 계산된 효과들이 들린다. 그만큼 이 연주는 매우 모범적이고 흐트러짐 없이 올곧으면서도, 스카를라티의 위대함과 바흐의 거대한 세계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J.S. Bach-Stiftung
St.Gallen

B666
바흐: 칸타타 24집(BWV. 97 & 127 & 156)
모니카 모흐 & 뮤리엘 슈바르츠 & 율리아 도일(소프라노), 루트 잔트호프 & 테리 베이(알토), 게오르그 포플루츠 & 다니엘 요한슨 & 베르나르트 베르흐톨트(테너), 마르쿠스 볼퍼트 & 클라우스 메르텐스 & 페터 쿠이지(베이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굳건한 믿음으로 얻게되는 천상의 평안과 자유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 재단의 '칸타타 24집'. "나의 모든 행위를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맡기리라"(BWV.97), "진실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BWV.127),"저는 무덤에 한 발로 서 있습니다"(BWV.156)가 수록되었다. 23집에서 이른 '오롯한 믿음'은 이제 신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확신, 'BWV.97' 2악장이 보여주듯 '나'를 인도하는 신의 손길에는 이르거나 늦음이 없으며, '나'를 둘러싼 세상사에 대한 근심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간은 천상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신의 섭리와 질서'를 떠올리게 하는 오롯한 연주, 모든 것들이 무르익는 시절 풍경과 함께할 만 하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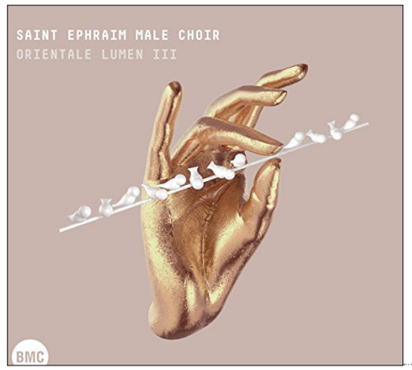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80241 **[3CD + 2Blu-ray]**
2010 베를린 필 실황-미츠코 우치다 · 래틀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5곡)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우치다와 래틀의 베토벤 아우라
2010년 2월, 베를린 필하모니홀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인해 뜨거웠다. 주인공 우치다 미츠코는 2월 한 달 동안 래틀과 함께 협주곡 1번(4일)을 시작으로, 2번과 3번(2월 10일), 협주곡 4번(2월 20일), 5번(2월 14일)을 선보이며 관객을 열광시켰다.
이 컬렉션은 우치다와 래틀이 함께 빚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3장의 CD와 2장의 블루레이에 담은 것이다.
보너스트랙에는 베를린 필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게르하르트 포르크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나눈 인터뷰(12분)가 실려 있다.
공연 뒤에는 "피아노의 여왕" "건반 속으로 꿈꾸며 빠져들었다" 등의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다. 게다가 래틀은 당시 시벨리우스 교향곡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관계로 공연들은 '우치다의 베토벤'과 '래틀의 시벨리우스'로 숨 막히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Recorded in February 2010, Berliner Philharmonie/ 24-bit-download-code/ Bonus video: Mitsuko Uchida in conversation (12 min)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FFWr2Lcmnzs
[녹음일] 협주곡 1번 〈2010.2.4〉/ 협주곡 2번 〈2010.2.10〉/ 협주곡 3번 〈2010.2.10〉/ 협주곡 4번 〈2010.2.20〉/ 협주곡 5번 〈2010.2.14〉

BMC www.bmcrecords.hu



BMC

BMC CD 251
동방의 빛 3집
성 에브라임 남성 합창단, 터마슈 부브노(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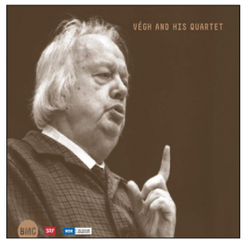
따뜻한 음성과 풍부한 음향으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크리스마스 합창
서양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으레 서유럽의 나라들과 러시아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 사이의 동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나라들은 간과되기 쉬운데, 그들은 경건한 종교적 특징과 독특한 지역적 전통을 간직하면서 개성적이면서도 온 인류의 감성에 관통하는 높은 수준의 음악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음반은 국내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루슬란과 류드밀라〉로 유명한 글린카와 〈눈보라〉로 잘 알려진 스비리도프 등 러시아부터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를 거쳐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음성과 풍부한 음향으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합창을 들려준다.

BMC CD 254
BARTÓK IMPRESSION
마티아스 레비(바이올린), 마티아시 선더이(더블베이스), 미클로시 루카치(침발롬)

버르토크를 기반으로 연주한 헝가리 스타일의 프리 재즈
헝가리의 농민음악은 집시음악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버르토크는 그 고유성을 밝혀내고 이에 기반을 둔 음악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헝가리 음악가들은 버르토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고 있다. 이 음반은 버르토크의 〈44개의 바이올린 이중주〉와 피아노곡 〈미크로코스모스〉 등 여러 작품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자유롭게 즉흥연주로 풀어낸 것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헝가리 음악의 진수를 들을 수 있다. 바이올린과 베이스는 프리 재즈가 그 바탕에 있으며, 루카치의 침발롬은 이국적인 음색을 더한다.

BMC CD 259 **[2CDs]**
페테르 볼프: 볼프-조율 피아노곡집
요제프 벌로그(피아노)

모든 조성과 모든 음악 스타일을 아우르는 대작
바흐의 24개의 피아노곡은 후배 작곡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24개의 모든 조성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음악의 모든 지경을 간파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쇼팽을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이 24개의 조성으로 음악을 만드는 시도를 했다. 헝가리의 작곡가인 페테르 볼프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바흐의 제목을 패러디한 작품 〈볼프-조율 피아노곡집〉으로 이 시도에 동참했다. 이 곡은 클래식과 재즈, 로맨틱 뮤직, 민속무곡 등 오늘날의 감수성을 담은 다양한 스타일이 총집결되어있어, 모든 조성과 함께 모든 음악 스타일을 아우르는 대작이다.



BMC CD 261 [2CDs]
베그와 그의 사중주단
베그 사중주단

거장의 통찰력이 빛나는 연주
산도르 베그는 20세기 헝가리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로, 그의 음악적 업적은 헝가리의 소중한 음악적 성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베그 사중주단은 헝가리를 대표하는 악단으로서, 이 음반에서 그 전설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강력한 에너지와 과감한 스트로크로 무장한 극적인 표현은 베토벤의 〈사중주 4번〉을 투사의 선언으로 그리며, 바버의 〈사중주곡, Op. 11〉을 영웅의 비극과 업적으로 풀어낸다. 베르크의 〈서정모음곡〉은 그 안에 내재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블로흐와 오네게르의 새로운 명곡과도 조우한다.

BMC CD 262
베그가 연주하는 비엔나의 실내악곡
산도르 베그(바이올린), 잔 에리카르(낭독), 베그 사중주단, 파울 바움가르트너(피아노)

헝가리 최고의 음악가들이 비엔나의 실내악곡을 연주한 전설적인 녹음
산도르 베그와 베그 사중주단, 그리고 헝가리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전설적인 녹음들을 수록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은 거장의 자신감이 넘치는 활이 눈에 보이는 듯 거침없는 표현력을 들려주며, 〈현악사중주 9번 '라주모프스키'〉는 균형 잡인 앙상블로 고전의 아름다운 조화를 들려준다. 쇤베르크의 〈피에로 뤼네르〉는 낭독을 필두에 두고 기악들은 분위기를 만드는 쇤베르크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슈베르트의 〈현악오중주〉는 그들의 폭넓은 표현력이 십분 발휘되어 짙은 여운을 남기는 한 편의 휴먼 드라마를 만든다.

BMC CD 263 [2CDs]
베그가 연주하는 헝가리 명곡
산도르 베그(바이올린), 베그 사중주단, 바젤 실내관현악단, 베른 국립관현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코다이, 버르토크, 베레시 등 헝가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숨 막히는 걸작
헝가리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음악문화를 만들어왔으며, 특히 민족주의에 힘입어 코다이와 버르토크라는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했다. 그리고 산도르 베레시는 그 둘을 잇는 거장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 음악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이 음반은 20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산도르 베그의 연주로 이들의 실내악과 관현악을 수록했다. 코다이와 버르토크의 실내악은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면, 베레시의 관현악 작품들은 새로운 보물섬을 발견한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BMC CD 270
페테르 로즈노이: 고요한 기도
페테르 로즈노이(피아노)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기도하는 로즈노이의 피아노
헝가리의 재즈 뮤지션인 페테르 로즈노이가 피아노곡집을 내놓았다. 피아노로부터 만들어내는 마술과 같은 음색들과 화려한 즉흥연주는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음으로 진행되는 〈Passing〉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치 마법에 홀린 듯 하며, 〈Little Song〉의 투명한 사운드는 재즈의 자유로운 정신이 깃들어있다. 〈Dreamcatcher〉는 로맨틱한 선율이 프로포즈를 받는 듯한 황홀경으로 안내하며, 〈Blessing〉은 느리게 진행되는 선율에 진솔한 감성이 실려 있다. 〈Fable〉과 〈Invocation〉은 멜랑콜릭한 분위기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BMC CD 274
바이다: 클라리넷 교향곡, 앨리스 연습곡, 영속의 꿈
가보르 버르거, 야노시 세페시(클라리넷), 헝가리 방송 교향악단, 게르게이 바이다(지휘)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의 계보를 잇는 역작
게르게이 바이다는 헌츠빌 심포니 음악감독, 아멜 오페라 축제 예술감독, 포틀랜드 페스티벌 심포니 음악감독, 외트뵈시 현대음악재단 영구초빙교수이며, 지휘자로서 군델 예술상과 작곡가로서 버르토크 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작곡가-지휘자이다. 그는 자신의 악기인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으로서 〈클라리넷 교향곡〉은 클라리넷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집결된 역작이자,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이후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의 계보를 잇는 걸작이다. 〈앨리스 연습곡〉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명장면을 흥미롭게 묘사했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BR KLASSIK 900167
2011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
말러 교향곡 2번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 안야 하르테로스(소프라노), 베르타르다 핑크(메조소프라노)

뮌헨에서 '부활'하는 얀손스의 말러 파워
'부활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교향곡 2번은 말러의 실존적 투쟁을 그린 자화상이다. 압도적인 소리와 천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듯한 음향의 구조, 얀손스의 지휘는 말러의 영혼과 초상화를 완벽하게 그려낸다. 2011년 3월,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이다. 얀손스만의 완벽주의가 빛을 발한다. 바그너 · 베르디 스페셜리스트 베르나르다 핑크가 노래하는 4악장 '원광(Urlicht)'의 목소리와 오보에는 한없이 평화롭고, 하나의 교향곡과 맞먹는 5악장(33분)에서 얀손스는 그 어떤 지휘자보다 급격한 드라이브를 걸어 강렬하고 급속도로 몰아간다. 흐트러짐은 전혀 없다.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 얀손스와 BRSO의 말러 시리즈를 수집한다면 이 음반 역시 피해갈 수 없다.

BR KLASSIK 900172
2018 뮌헨 헤라클레스홀 실황:
말러 '대지의 노래'
사이먼 래틀(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 스튜어트 스켈턴(테너), 막달레나 코체나(메조소프라노)

소리들의 선명함과 대비, 래틀의 '노래'는 새롭다
2018년 1월, 뮌헨 헤라클레스홀 실황으로 공연 후 극찬을 받았던 연주회이다. 래틀의 객원지휘는 BRSO와 말러를 함께 해온 상임지휘자 얀손스와 전혀 다른 말러의 초상화를 그려낸다. 필치는 가볍고 선명하다. '선명한 음색과 명료성이 살아 있다. 묘기를 부리는 듯한 플루트부터 베이스클라리넷의 불길한 신음까지 모든 악기의 선이 살아 있다'라는 [더 타임스]의 호평은 실황에 이어 음반으로도 느껴진다. 얀손스가 말러의 고전성을 내세웠다면, 래틀은 현대음악을 예고하는 말러의 파격성과 음향을 강조한다.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노래하는 여섯 장의 흐름도 경쾌하고 선명히 대비시켜 듣는 재미를 준다.

BR 900008 [4CDs]
– 아시아 투어(ASIA TOUR 2018) 내한 공연기념 –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가격 (특별한정수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

[구성]
1) BR 900714 (신보) 2009 · 2016 실황 –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불새'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
스트라빈스키와 더불어 진화하는 마에스트로
2) BR 900145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사육제 서곡/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체코 음악을 평정한 두 거장의 하모니
3) BR 900007 말러: 교향곡 7번
4) BR 900127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돈 환

2009 · 2016 실황 –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불새'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

스트라빈스키와 더불어 진화하는 마에스트로
20세기를 빛낸 스트라빈스키의 위대한 '봄의 제전'과 '불새'에 대한 얀손스의 애정은 끝이 없다. 오슬로 필과의 '불새'(Simax)와 '봄의 제전'(EMI), 로얄 콘체르트허바우와 함께 2008년에 같은 곡목으로 낸 음반(RCO 08002) 등을 살펴보면 얀손스는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거에 '불새'의 찬란한 색상과 '봄의 제전'의 강렬한 원시주의가 돋보였던 반면, BRSO와 함께 한 이 음반 속 '봄의 제전'(2009년 가슈타익홀)과 '불새'(2016년 헤라클레스홀) 실황에는 음 하나의 터치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진 연주가 인상적이다. '봄의 제전'도 우아할 수 있다니! 여기에 실황녹음의 탁월한 생동감도 일품이다.

[보조자료]
슈바로브스키, 카라얀, 므라빈스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마리슨 얀손스는 1973년 레닌그라드 필의 부지휘자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레닌그라드 필의 주요 포스트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03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의 수석지휘자를, 이듬해인 2004년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의 수석지휘자(~2015)에 부임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전용 레이블인

'BR Klassik'을 통해 베토벤 사이클에 이어 드보르자크, 브루크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반녹음을 통해 '얀손스 일가'를 이뤄나가고 있다.

1943년 1월 14일에 라트비아 지방에서 태어난 마리슨 얀손스는 올해 75세에 이른 노장이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그의 7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지난 1월에 특별 공연(뮌헨 가슈타익홀)을 선보였는데, 실황은 영상(belvedere BVE08042)으로도 발매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얀손스는 이 공연에서도 스트라빈스키('3개의 악장')를 빼놓지 않았다.

20세기를 빛낸 스트라빈스키의 위대한 '봄의 제전'과 '불새'에 대한 얀손스의 애정은 끝이 없다. 오슬로 필과의 '불새'(Simax)와 '봄의 제전'(EMI), 로얄 콘체르트허바우와 함께 2008년에 같은 곡목으로 낸 음반(RCO 08002) 등을 살펴보면 얀손스는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거에 '불새'의 찬란한 색상과 '봄의 제전'의 강렬한 원시주의가 돋보였던 반면, BRSO와 함께 한 이 음반 속 '봄의 제전'(2009년 가슈타익홀)과 '불새'(2016년 헤라클레스홀) 실황에는 음 하나의 터치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진 연주가 인상적이다. '봄의 제전'도 우아할 수 있다니! 여기에 실황녹음의 탁월한 생동감도 일품이다.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사육제 서곡 /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체코 음악을 평정한 두 거장의 하모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미국으로 가기 전 체코에서 작곡한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곡 중 하나이다. 유럽적인 탄탄한 구성과 체코의 지역적 특색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드보르작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개성적인 표현이 훌륭히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19세기에 유행했던 밝고 가벼운 다악장의 작품으로, 수크는 자신의 〈세레나데〉에 드보르작의 딸인 오틸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 오늘날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과 함께 가장 뛰어난 낭만 세레나데로 인정받고 있다.
(BR 900145)

말러: 교향곡 7번

밤의 음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독특한 뉘앙스의 2,4악장이 인상적인 말러의 교향곡 7번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정교한 개인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7년 3월 8/9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을 편집수록한 이 음반은 독일 최정상급 악단으로서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위상을 뚜렷히 보여준다. 미스테리한 이 괴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는 얀손스의 혜안 역시 출중하다.
(BR 900007)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 돈 환

본 음반에 수록된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2013년 3월, 뮌헨의 필하모니 임 가스타익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Arthau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던 연주와 동일한 기간에 녹음된 것이다. 함께 수록된 '돈 환'은 2014년 2월 허큘레잘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얀손스의 호방한 지휘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중량감 넘치는 사운드는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BR 900127)

Capriccio www.capriccio.at

C5339 [2 for 1]

마이어: 교향곡 4번, 피아노 협주곡, 현악사중주 g단조, 피아노 소나타 d단조

에바 쿠피츠, 양 타이(피아노), 클렝케 사중주단,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니, 슈테판 말체, 제바스티안 테빙켈(지휘)

19세기 독일 음악계를 이끌었던 소수의 여성 중 한 명, 마이어의 낭만적 음악세계

에밀리 마이어는 19세기에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로, 베를린 오페라 아카데미의 조감독을 맡을 정도로 당시 여성 음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소수에 속했다. 마이어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분실된 것들도 더러 있는데, '교향곡 4번'도 그 중 하나이다. 1851년에 초연되었지만 출판은 1860년에 두 대의 피아노 버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녹음은 이를 관현악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피아노 협주곡'은 마이어의 유일한 협주곡으로서 모차르트의 정서가 깃든 고전적 작품이며, '현악사중주 g단조'와 '피아노 소나타 d단조'에는 격정적인 감성이 담겨있다.

이 달의 주목할 음반

Capriccio C7275 [8CDs]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 스페셜가격

베토벤: 교향곡 전곡(합창 환상곡 포함)

브람스: 독일 레퀴엠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헤르베르트 케겔

드레스덴의 위대한 지휘자 케겔의 최후의 녹음들

헤르베르트 케겔은 구동독이 자랑하던 20세기 위대한 지휘자다. 1920년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평생을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 활동한 케겔은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에서 30년간 일한 뒤, 1977년부터 타계하기 5년 전인 1985년까지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있었다. 드레스덴 음악원에서 명지휘자 카를 뵘의 제자였고 그곳에서 작곡까지 공부했던 탄탄한 실력을 갖춘 거장 지휘자였는데, 통독되던 1990년에 70세를 일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음반세트에는 알비노니, 글루크, 글린카, 그리그, 시벨리우스의 명곡 등 매력적인 보너스 트랙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다. 두 거대한 레퍼토리 모두 1980년대의 녹음으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케겔의 지휘를 그대로 증명해준다. 베토벤 교향곡은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드레스덴 성 누가 교회(Luckaskirche)에서 녹음했다. 한 곡 한 곡이 모두 빼어나다. 케겔은 대체로 템포를 높여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스케일이 큰 호쾌한 구도를 즐기며, 베토벤의 작품이 요구하는 오프비트 액센트나 곳곳에 산재한 갖가지 음악적 유머나 실험까지도 낱낱이 찾아내 정말 뉘앙스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호연을 들려준다. 그의 교향곡 녹음은 이미 전 세계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음원이다.

케겔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세트를 보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실상 케겔의 대표적인 명연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브람스가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며 낭만주의 합창 음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명곡은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음반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케겔의 연주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준 예는 흔치 않다. 순도 높은 합창과 리듬의 생동감 그리고 영감이 넘실거리는 환상, 그리고 수준급 독창자들의 절창 등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많은 명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겔이 동독 지휘자이고 마이너레이블에서 발매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애호층을 형성하지는 못했었다. 아마 그의 음반이 메이저 레이블에서 나왔다면 오토 클렘페러의 음반과 자웅을 겨룰 정도였을 것이다.

[수록곡내용]

[DISC 1] BEETHOVEN: Symphony Nos. 1 and 3

[DISC 2] BEETHOVEN: Symphony Nos. 2 and 7

[DISC 3] BEETHOVEN: Symphony Nos. 4 and 5

[DISC 4] BEETHOVEN: Symphony Nos. 6 an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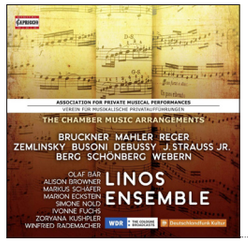
[DISC 5] BEETHOVEN: Symphony No. 9
Alison Hargan, soprano/ Ute Walther, contralto/ Eberhard Büchner, tenor/ Kolos Kováts, baritone/
Leipzig Radio Chorus/ Berlin Radio Chorus

Recroding: Dresden, Lukaskirche, 1982-1983

[DISC 6] BEETHOVEN: Triple Concerto, Choral Fantasia
Peter Rösel, piano/ Christian Funke, violin/ Jürnjakob Timm, cello/ Leipzig Radio Chorus
Recording: Dresen, Lukaskirche 1985-1986

[DISC 7] BRAHMS: A German Requiem
Marie Anne Häggander, soprano/ Siegfried Lorenz, baritone/ Leipzig Radio Chorus/ Leipzig Radio Symphony Orchestra
Recording: Dresden, Lukaskirche 1985

[DISC 8] ALBINONI: Adagio in G minor
GLUCK: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GLINKA: Ruslan and Ludmilla – Overture
MUSSORGSKY: Khovanshchina – Entr'acte
GRIEG: Two Elegiac Melodies, Op. 34
SIBELIUS: Valse triste, Op. 44
WOLF-FERRARI: I Quattro Rustecchi –Intermezzo
LEONCAVALLO: Pagliacci – Intermezzo
SCHMIDT: Notre Dame – Intermezzo
STRAVINSKY: Circus Polka
ELGAR: Pomp and Circumstance – Military March No. 1
DRESDNER PHILHARMONIE
LEIPZIG RADIO SYMPHONY ORCHESTRA (CD 7)
HERBERT KEGEL, conductor
Recording: Dresden, Lukaskirche 1986



C7265 [8CDs]
실내악 앙상블로 듣는 브루크너 & 말러의 교향곡
스페셜가격
리노스 앙상블 실내악 편곡작품들

실내악 앙상블로 듣는 브루크너 & 말러의 교향곡
1977년 독일에서 창단된 리노스 앙상블은 정통 실내악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교향곡 등을 편곡된 실내악 앙상블로 연주함으로써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온 실내악 앙상블이다. 대형 오케스트라 작품을 규모가 작은 실내악 앙상블로 듣는 아기자기한 매력 때문에 그들의 작업은 많은 호응을 받아왔는데, 이 전집물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그들의 뛰어난 연주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를 8매의 CD로 엄선해 담았다. 주요 교향곡 레퍼토리로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말러의 교향곡 4번, 그리고 대지의 노래가 담겼고, 그 외 말러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주 흥미로운 왈츠 편곡물까지 실내악 버전으로 들려준다. 성악곡에서는 유명한 바리톤 가수 올라프 배어가 동참했다. 원곡의 느낌과는 아주 색다른 어떤 새로운 음악적 즐거움을 준다.

[수록곡 내용]

[CD 1]
Bruckner: Symphony No. 7 in E Major *(arr. Stein/ Eisler/ Rankl)*

[CD 2]
Mahler: Symphony No. 4 *(Alison Browner(soprano), arr. Schoenberg)*
Mahler: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Olaf Bär(baritone), arr. Schoenberg)*

[CD3]
Mahler: Das Lied von der Erde *(Markus Schäfer (tenor), Ivonne Fuchs (mezzo soprano), arr. Riehn)*

[CD4]
Mahler: Kindertotenlieder *(Marion Eckstein (mezzo soprano), arr. Schoenberg/ Riehn)*
Berg: Violin Concerto 'To the Memory of an Angel' (1935) *(Winfried Rademacher (violin), arr. Schoenberg/ Tarkmann)*
Berg: Altenberg lieder *(Marion Eckstein (mezzo soprano), Schoenberg/ Wagenaar)*

[CD5]
Reger: Violin Concerto in A major, Op. 101 *(Winfried Rademacher (violin), arr. Kalisch)*

[CD6]
Schoenberg: Chamber Symphony No. 1 in E major, Op. 9 *(arr. Webern)*
Schoenberg: 6 Lieder for soprano and orchestra, Op. 8 *(Simone Nold (soprano), arr. Eisler/ Stein/ Schoenberg)*
Webern: Six Pieces for Orchestra Op. 6 *(arr. Web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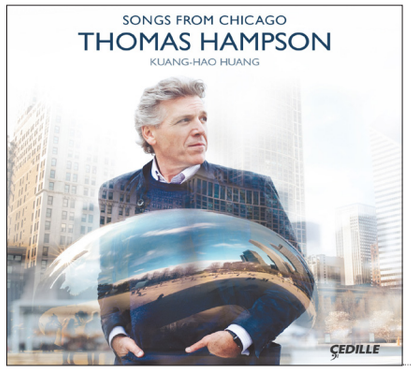
[CD7]
Debussy: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arr. Sachs)*
Reger: Eine romantische Suite, Op. 125 *(arr. Schoenberg/ Kalisch)*
Zemlinsky: Songs 'Maurice Maeterlinck' Op. 13 *(Zoryana Kushpler (mezzo soprano), arr. Stein / Tarkmann)*
Busoni: Berceuse élégiaque, Op. 42 *(arr. Stein)*

[CD8]
Strauss, J, II: Wein, Weib und Gesang, Op. 333 *(arr. Berg)*
Strauss, J, II: Rosen aus dem Süden, Op. 388 *(arr. Schoenberg)*
Strauss, J, II: Lagunen-Walzer Op. 411 *(arr. Schoenberg)*
Strauss, J, II: Kaiser-Walzer, Op. 437 *(arr. Schoenberg)*
Strauss, J, II: Schatz-Walzer, Op. 418 *(arr. Webern)*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 179 [2 for 1]
집시 풍으로
시비타스 앙상블, 집시 웨이 앙상블

숨막히는 템포와 짙은 애수로 표현되는 자유로운 집시 음악의 세계
19세기부터 집시 음악은 유럽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다. 많은 작곡가들이 집시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곡했으며, 많은 음악가들이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곡들을 연주했다.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오늘날 집시 앙상블들은 이러한 곡들을 집시 고유의 스타일로 연주하곤 하는데, 집시 앙상블인 시비타스 앙상블과 집시 웨이 앙상블이 자신의 스타일로 들려준다. 이외에도 여러 헝가리 작곡가의 음악들도 숨막히는 템포와 짙은 애수로 표현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DR 90000 180

시카고의 노래

토마스 햄슨(테너), 쿠앙-하오 후앙(피아노)

미국 중부의 음악과 세련된 화음이 만든 우리시대의 서정미

미국이 자랑하는 우리시대 최고의 테너 중 한 사람인 토마스 햄슨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클래식 작곡가들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미국 중부의 음악과 세련된 화음으로 우리시대의 아름다운 선율을 탄생시켰다. 언스트 베이컨은 슈베르트의 후기 가곡과 어두운 서정미가 결합된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플로렌스 프라이스에서는 힘찬 목소리로 밝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존 앨런 카펜터는 흑인영가 리듬과 블루스, 재즈 등이 결합된 미국적 사운드를 만들고, 마가렛 본즈는 미국의 환상을 그린다. 루이스 캠벨-팁튼은 감성의 절정에 이른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653 [SACD]

랑고르: 교향곡 2번 '봄의 기상', 교향곡 6번 '찢어지는 하늘'/ 가데: 질투 등

아누 콤시(소프라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지휘)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진 랑고르의 교향곡과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데의 〈질투〉

루에드 랑고르는 20세기 전반기의 덴마크 작곡가로, 대부분을 오르가니스트로 살았지만 최근에 그의 음악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바그너와 R.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2번 '봄의 기상'〉의 대편성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정적인 선율의 아름다움도 간직하고 있다. 반면에 〈교향곡 6번 '찢어지는 하늘'〉은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복잡도 높은 작품으로, 1920년대에 새로운 음악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데의 〈질투〉는 뜻밖의 보너스이다.

8.226123

브로르손: 믿음의 희귀한 보석/ 레스, 샤이베, 듀파르의 음악

베아테 모르달(소프라노), 야콥 블로흐 예스페르센(베이스바리톤), 페미우스 콘소트

후기 바로크 시대 덴마크에서 불려진 아름다운 성가들과 동시대의 기악음악

한스 아돌프 브로르손은 덴마크의 루터파 신부로, 유능한 노래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가 직접 덴마크어로 작사하고 작곡한 성가들을 모은 '믿음의 희귀한 보석'이 1739년에 출판되었으며, 덴마크에서는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의 노래는 선율이 아름다우면서도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편하게 작곡되어 있어 인기가 높았다. 이 음반은 이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덴마크 작곡가 모르텐 레스, 독일 출신으로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요한 아돌프 샤이베, 프랑스 작곡가 샤를 듀파르의 기악작품을 녹음하여 베일에 가려있던 18세기 전반의 음악세계로 인도한다.

Dynamic www.dynamic.it

CDS7815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오리지널 버전), 세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등

엘리사 토멜리니(피아노)

초절기교적인 연습곡으로부터 리스트의 서정미만을 남겨둔 최고의 연주

엘리사 토멜리니는 20대 초반까지 다수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24세 때 돌연 음악을 그만두고 등산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다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고는 베르메르를 위한 앨범을 녹음했는데, 평론가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재기에 성공한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리스트의 연습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녀의 실력이 이미 최고에 이르러있음을 보여준다. 〈파가니니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은 천둥이 치듯 강렬하며, 〈세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은 기교적인 어려움을 뚫고 리스트의 아름다운 서정미만이 가득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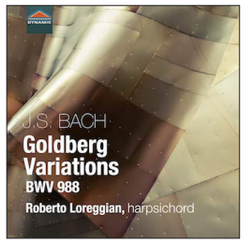
CDS7792

드 마탱: 세 개의 하프 소나타, Op. 15

안나 파세티(하프)

초기 낭만 시대의 중요한 프랑스 하프 레퍼토리의 세계 최초 녹음

마리-마르탱 마르셀 드 마탱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하피스트로서, 그의 하프 작품들은 초기 낭만 시대의 중요한 레퍼토리이다. 그는 여러 하프소나타를 남겼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은 그 중 '세 개의 하프 소나타, 작품 15'로, 초기 낭만의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하피스트 안나 파세티는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한 최고의 하피스트이자, 250권의 책의 저자일 정도로 하프의 역사에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곡에서 하프의 특색이 잘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아름다운 하프의 매력을 들려준다.



CDS7823

바흐: 골트베르크 변주곡

로베르토 로레지안(하프시코드)

충만한 에너지와 압도하는 음향으로 들려주는 자유로운 음악세계

로베르토 로레지안은 콘 코프만의 제자로서, 파두아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많은 녹음들이 여러 상을 받으면서 오늘날 중요한 고음악 건반연주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가 연주한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은 에너지가 넘치며 압도하는 음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아한 선율과 함께 뛰어난 리듬감, 그리고 자유로운 꾸밈음 등 자신의 독특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다. 첫 아리아부터 자유롭게 진행하는 선율에서 그의 매력적인 음악세계를 펼치며, 변주가 진행될수록 각 변주의 특징에 맞게 긴장감을 더하기도 하고, 서정적인 표현으로 이완하기도 한다.

CDS7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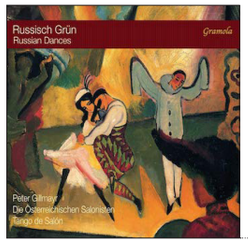
클레멘티: 소나타 C장조 Op. 33-3, 소나타 F#단조 Op. 25-5, 소나타 G단조 Op. 34-2

마리아 클레멘티(피아노)

고전적인 우아함과 화려한 선율미의 조화를 이룬 클레멘티의 클레멘티 연주

마리아 클레멘티는 라자르 베르만의 제자이자 1998년 '시타 디 칸투'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자신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피아노의 아버지' 무치오 클레멘티의 소나타를 녹음했다. 〈소나타 C장조〉는 '협주곡처럼'이라는 부제가 있는 대규모 작품으로, 화려하고 주도적인 선율에 우아한 화음 반주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소나타 F#단조〉는 서정적인 애수가 깃들어있으며, 고음 패시지와 저음 패시지를 대조시켜 독특한 구도로 곡을 이끌어간다. 〈소나타 G단조〉는 장송행진곡과 같은 서주부터 남다른 비장미를 들려주며, 곧 격렬한 열정으로 진행한다.

Gramola www.gramola.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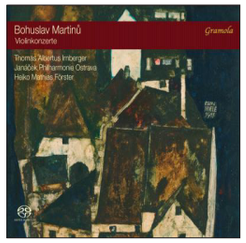


99170
러시아의 춤
오스트리아 살로니스트, 탕고 드 살롱
유쾌함 속에 삶의 애환이 아로새겨진 살롱 음악
근대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는 살롱이었다. 살롱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살롱을 위해 작품을 만들었으며, 살롱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 '오스트리아 살로니스트'는 당시의 분위기를 오늘날의 음악으로 재현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춤곡을 연주한 이 음반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민속무곡인 '검은 눈동자'와 '모스크바의 밤'을 비롯하여, 영화에 삽입되어 유명해진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과 차이코프스키의 '사탕요정의 춤',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 클래식과 함께 클레즈머 스타일과 폭스트로트 스타일의 음악을 수록했다.

99181
마이제더: 바이올린 협주곡 1, 3번, 바이올린 소협주곡 2번
라이문트 리시(바이올린), 요제프 마이제더 오케스트라, 헬무트 체헤트너(지휘)
19세기 초 빈을 평정했던 마이제더의 연주와 녹음에 힘쓰고 있는 리시의 역작
요제프 마이제더는 초기 낭만시대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불과 21세에 빈 궁정 관현악단의 악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7세에 호프부르크 성 채플에서 바이올린 솔리스트로 활약했다. 작곡가로서 그의 작품은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실내악에 집중되어있다. 이 음반은 20대 초에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3번을 비롯하여 46세에 작곡된 '소협주곡 2번'을 수록했다. 이 곡들은 비르투오소 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시에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화음을 사용하여 멜로디가 자유로우며, 과감간 전조를 도입하여 음악의 전개가 매우 흥미롭다.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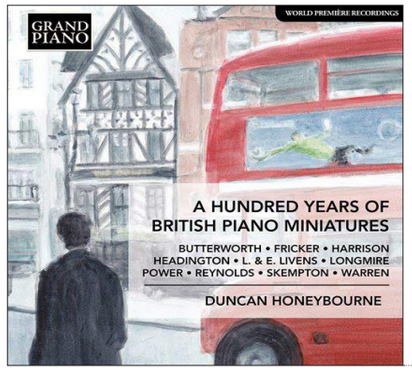
99167
데이빗 랭: 성냥팔이 소녀 수난곡/ 홀텐: 첫눈/ 태버너: 양/ 홀스트: 자장가 등
컴퍼니 오브 뮤직, 요하네스 히메츠베르거(합창지도), 마리아 하펠(낭독)
놀랍고 신선한 프로그램과 흠 잡을 데 없는 최고의 하모니
'컴퍼니 오브 뮤직'의 앨범 '다시, 또 다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헌정이다. 뉴욕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데이빗 랭의 퓰리처상 수상작인 '성냥팔이 소녀 수난곡'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보 홀텐의 아름다운 합창곡 '첫눈'이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애잔한 분위기의 존 태버너의 '양'과 신비로운 랭의 '다시, 또 다시', 홀스트의 고전적이고 따스한 '자장가'는 소녀에 대한 레퀴엠이다. 이 놀라운 프로그램은 흠 잡을 데 없는 최고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컴퍼니 오브 뮤직의 음성과 결합하여 매순간 최상의 감동을 전달한다.

99175 [2 for 1.5]
슈베르트: 피아노 듀오 작품집
파울 바두라-스코다, 외르크 데무스(피아노)
빈을 대표하는 두 명의 거장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파울 바두라-스코다와 외르크 데무스의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시대의 큰 행운이다. 그리고 1978년과 2007년에 연주한 슈베르트 듀오를 담은 이 음반 역시 음악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두 장의 CD에 담겨있는 이 앨범에는 주로 슈베르트의 완숙기 시절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여덟 개의 변주곡〉은 고전적인 스타일의 변주양식으로 가진 작품이며, 〈헝가리 풍의 디베르티스망〉은 가볍지만 진중한 멋을 지녔다. 2007년에 연주한 〈환상곡〉은 한 드라마에 사용되어 유명해진 곡으로, 두 거장의 변함없는 호흡으로 최상의 연주를 펼친다.



99178
마르티누: 바이올린 협주곡 1, 2번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야냐체크 필하모니 오스트라바, 헤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지휘)
두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비교하는 마르티누의 파리와 뉴욕 시절
보헤미아의 시골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뉴욕에서 걸작들을 발표했던 마르티누. 이러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도 그에게는 보헤미아의 민속적 리듬은 그의 음악언어의 기반으로서 변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파리에서 습득한 하모니를 더해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파리 시절의 작품으로서 화려한 바이올린 독주와 풍부한 음색으로 매혹적이며,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뉴욕 시절의 작품으로서 거장으로서의 진지하고 중후한 기품을 들려준다. 특히 2번은 그의 말년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적 안식이 깃들어 있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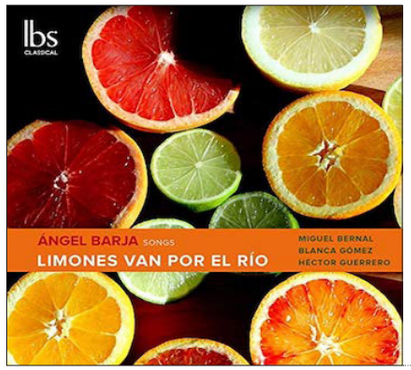
GP789
100년간의 영국 피아노 소품
던칸 허니본(피아노)
영국음악의 편안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들려주는 지난 100년간의 작품들
영국은 오래 전 고유의 켈트 문화를 일구었던 때부터 대륙과는 다른 패턴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논리적인 철학과 실증적인 과학은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남다른 민족주의적 정서는 음악을 보수적인 분위기로 이끌었다. 20세기 대륙에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가 횡행할 때, 영국은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받아들인 정도에서 낭만의 아름다움과 현실적인 즐거움을 노래했던 것이다. 이 앨범에 수록된 11명의 작곡가의 1915~2015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들은 이러한 영국음악의 편안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들려준다.

GP768
루토스와프스키: 피아노 독주 전곡
기오르기오 코우클, 비르지나 로세티(피아노)
미출판 자필보까지 찾아내어 녹음한 역사적 음반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는 그의 명성에 비하면 피아노 독주곡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 앨범은 알려진 소품들과 미출판 작품들까지 수록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음반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곡은 21세 때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로, 남아있는 자필보를 기준으로 연주했다. 낭만적이면서 쇼팽 풍의 루바토가 인상적인 이 곡은 루토스와프스키의 일반적인 인상과는 많이 다르지만, 매우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다. '두 개의 연습곡'은 풍부한 음향과 서커스와 같은 선율이 인상적이며, 반면에 '민속 선율들'과 '전원'은 소박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85
에카나야카: 12개의 피아노 프리즘
타냐 에카나야카(피아노)
오늘날의 로맨틱한 감성이 녹아있는 선율과 감수성 짙은 투명한 화음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타냐 에카나야카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공부하면서도 아시아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의 대규모 작품 '12개의 피아노 프리즘'에 반영되어 있다. 서로 다른 으뜸음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곡은, 서정적인 선율에 오늘날 세미 클래식과 같은 로맨틱 감성이 깊이 녹아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투명한 화음은 강한 호소력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진솔하게 전달한다. 종종 들리는 이국적인 화음은 낯설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다. **[세계 최초 녹음]**

GP780
쿨라: 동화 그림, 축제 행진곡, 양의 춤, 늦가을의 노래 등
애덤 존슨(피아노)
시벨리우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쿨라의 아기자기한 피아노 전곡
토이보 쿨라는 핀란드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서, 시벨리우스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페노마니아'라고 불리는 핀란드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야간 축제에서 반대파가 쏜 총탄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그의 스승처럼 민족주의자였지만, 그의 음악은 민족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데에 몰입되어있지 않으며, 이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곡들 역시 후기 낭만의 기조에서 편안하며 무겁지 않다. 멜로디는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연을 간직한 듯 진지하고, 화음은 가벼우면서도 아름답다.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IBS-142018

바르하: 스페인의 노래

미겔 베르날(테너), 블랑카 고메스(소프라노), 엑토르 게레로(피아노)

세련된 화음 위에 흘러가는 스페인의 구성진 선율

스페인의 서북쪽, 포르투갈 북부에 국경이 맞닿아있는 아주 작은 마을 '산타 크루즈 데 테로소'. 이곳에서 예술가곡 작곡가 앙헬 바르하가 태어났다. 그는 낡고 정적인 이곳에서 스페인인의 핏속에 흐르는 그들만의 감성과 표현을 체득하며 자라났으며, 그의 음악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세련된 화음과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선율과 리듬의 조화는 스페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곧 스페인 예술가곡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되었다. 미겔 베르날과 블랑카 고메스는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스페인 노래의 구성진 표현을 구사하여 더욱 매력적이다.

Klanglogo www.klanglogo.de

KL.1527

터키 풍으로

베를린 리코더 오케스트라, 시몬 보루츠키(지휘)

다른 음반에서 찾아보기 힘든 터키 풍의 행진곡들과 이국적인 음악

'터키 풍으로'라는 독특한 제목의 이 음반은 륄리부터 모차르트, 베토벤, 디아벨리, 룸멜, 바이유, 바이센보른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 힘든 터키 풍의 행진곡들을 모아놓았다. 18~19세기 유럽에서 '터키 풍'이란 터키 고유의 음악 요소를 도입했다기보다는 소란스럽고 유쾌한 행진곡 스타일의 음악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와 함께 헨델 '시바 여왕의 도착',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서곡', 베르디 '작은 무어인의 춤', 차이코프스키의 '아라비아의 춤' 등 여러 이국적인 음악도 함께 수록되어 더욱 흥미롭다. 이들을 다양한 종류의 리코더로 구성된 리코더 오케스트라로 연주한다.

Naxos www.naxos.com

8506032 [6CDs]

시벨리우스: 극부수음악(무대음악) 전집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시벨리우스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 레이프 세게르스탐이 펼치는 '극부수음악' 전곡

시벨리우스 작품 세계에서 교향곡과 교향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는 '극부수음악(무대음악)'이다. '탑의 소녀' 1막을 제외한 단 한 편의 오페라 작품도 남기지 않았던 시벨리우스였기에 '극부수음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그동안 낙소스 레이블에서 발매된 세게르스탐의 '극부수음악'시리즈가 하나의 세트로 갈무리되었다. 이 시대 시벨리우스 최고의 권위자 중 한사람이 전하는 시벨리우스 서사의 정수. '대가의 여유' 속에서 정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극적인 색채. 하나쯤 갖추어야할 세트가 아닐까 싶다.

8573735

토이보 툴레브: 합창음악 & 관현악 작품집

이에바 에제르리에테 & 잉가 마르틴소네(소프라노), 찬가보(카운터테너),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합창), 비르고 벨디(알토색소폰), 헤이고 로진 & 밤볼라 그리굴(타악기), 탈린 첨버 오케스트라(연주), 카스파스 푸트닌스(지휘)

경건과 신비로움 그리고 관능의 조화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토이보 툴레브의 작품은 독특한 분위기와 음향으로 유명하다. 존 태버너와 아르보 패르트의 작품을 합쳐놓을 듯한 토이보 툴레브 특유의 인상은 '구도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행을 통해 얻은 사색의 결과물, 동서양을 아우르는 수록 작품들 역시 이같은 인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 '정중동', '동중정'을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는 경건, 신비로움, 관능의 색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마니피카트'의 '공격적인' 여운은 치명적이다. 놓칠 수 없는 음반!

*** '레가티시모'(2번 트랙), '흘러라, 내 눈물아'(5번 트랙), '마니피카트'(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36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 & 24번(K.488 & 491)

알론 골드스타인(피아노), 알렉산더 비카드(더블베이스), 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연주)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을 정감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음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은 19세기 지그문트 레베르트, 이마누엘 파이스트, 라흐너 형제(이그난트 & 빈젠츠)에 의해 피아노와 현악사중주 또는 피아노와 현악오중주로 편곡되었다. 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은 '피아노 협주곡 20 & 21번'의 이그난츠 라흐너 버전이 수록된 전작(8.573398)에 이어 모차르트 최후의 걸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23 & 24번'(이그난츠 라흐너 버전)을 연주했다. 원곡의 피아노 파트를 그대로 살리는 동시에 관현악 파트의 반향까지도 놓치지 않는 편곡의 묘미, 연주자의 카덴차('피아노 협주곡 24번')는 각별하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정감 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음반으로 손색없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이그난츠 라흐너 편곡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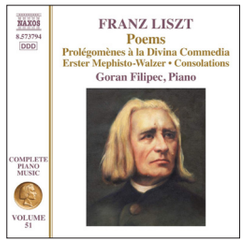
8573746

뒤티외: 교향곡 1번 & 메타볼 & 레 시타시옹(인용)

시릴 샤보(오보에), 마티유 프티(콘트라베이스), 로맹 로빈느(타악기), 카시아 톰차크-펠트린(하프시코드), 릴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장-클로드 카바도쉬(지휘)

개별과 조화의 이상적인 만남, 뒤티외 작품의 세련미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

앙리 뒤티외 작품 세계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특징을 꼽는다면 전통과 현대의 모든 것에 열려있지만, 그 어느 것에도 동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것에 있을 것이다. 독창적이면서도 모나지 않는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정제되었다'는 단어에 어울릴 법한 세련미에 있다. 각각의 악기들이 '켜켜이' 쌓아올리는 구조미가 돋보이는 '교향곡 1번', 조지 셀이 이끄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의 각별한 교감과 '점증적 발전 기법'의 완숙미를 보여주는 '메타볼'을 비롯해 인용의 진수가 담긴 뒤티외 작품 세계의 주요 흐름을 망라하고 있다. 카시도쉬와 릴 국립 오케스트라는 밝은 색채감, 선명한 음질, 명료한 해석으로 작곡가의 빛나는 순간들을 훌륭하게 그리고 있다.



8573794

프란츠 리스트: '음시'(피아노 전곡 작품 51집)

고란 펠리펙(피아노)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미적인 서정

예술가(특히, 작가 또는 작곡가)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작품을 수정하곤 한다. 초판본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생생한 영감, 개정판의 세련미는 해당 예술가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선사하기도 한다. 리스트의 '음시'를 대표하는 작품들('단테를 읽고', '위안', 《순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중 '혼례', 《메피스토 왈츠》 중 1곡 '마을 술집에서의 춤' 등)의 초본 또는 개정판이 수록된 본 음반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을 듯 싶다. '생생한 영감'을 '탐미적인 서정'으로 승화시키는 고란 펠리펙의 연주에 주목하게 되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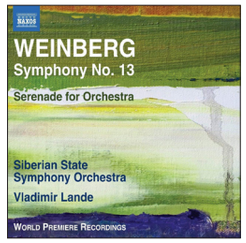
8573867

릴리 이펙트

인디애나폴리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연주), 바르톨트 카위컨(지휘)

반짝반짝 카랑카랑한 가을 빛 인상, '릴리 효과'

프랑스 바로크, 그 중에서도 장 밥티스트 릴리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음반이다. 릴리의 대표작 '아르미드'의 한 장면을 비롯해 릴리의 스타일을 차모한 텔레만의 '서곡들'(TWV55:e3), 프랑스 바로크 또 하나의 거장 라모의 '다르파누스' 한 대목이 수록되었다. 베르사이유를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극적인 색채, 반짝반짝 카랑카랑한 가을 빛 인상, '카위컨'의 계보를 잇는 바르톨트 카위컨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릴리 효과(반향)'을 만끽할 수 있다. 감상과 소장을 강력 추천한다.



8573879

바인베르크: 교향곡 13번(Op.115) & 세레나데(Op.27-4)

시베리안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블라디미르 란데(지휘)

강렬한 힘의 응축, 이와 대비되는 재치. 내면의 그림자를 대하는 방식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가 남긴 17개의 교향곡 중 '교향곡 13번'은 절친 쇼스타코비치의 죽음을 기리는 '교향곡 12번'에 이어 작곡가가 겪은 또 하나의 비극(유태인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단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마치 가슴 속 응어리가 표출되는 과정을 보여주듯 '강력한 힘의 응축'과 점증하는 극적 효과가 압권이다. 즈다노프 강령 이후 '수난의 시간' 동안 작곡된 '세레나데'(Op.27-4)는 '교향곡 13번'과 대비되는 재치를 보여준다. 내면의 그림자를 대하는 작곡가의 방식이 선사하는 묵직한 여운에 빠져들게 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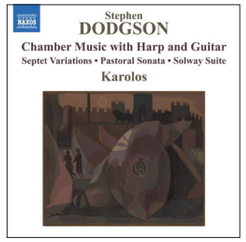
8573798-99 [2CDs]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HWV. 56) – 왓킨스 쇼(W. Shaw) 에디션

제니퍼 올로린(소프라노), 다이애나 무어(알토), 니콜라스 판(테너), 시드니 아우트로(베이스), 볼티모어 콘서트 아티스트(합창),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에드워드 폴로칙(지휘 & 하프시코드)

강렬한 빛의 인상, 장대한 음향

헨델은 물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작품,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종교 음악의 경건함과 압도적인 스케일, 오페라의 극적인 효과를 갖춘 작품이다. 대전 시향과도 인연이 있는 에드워드 폴로칙은 1987년 이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볼티모어 콘서트 아티스트를 이끌고 헨델의 대작에 도전했다. 이미 많은 녹음들이 있지만 본 음반만의 장점은 악단과 합창단, 성악진의 균형과 극적 효과를 배가하는 '연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강렬한 빛의 인상, 장대한 음향 역시 압권이다.



8573857

스티븐 도지슨: 하프와 기타 포함된 실내악작품집

카롤로스(연주)

스티븐 도지슨의 작품 세계를 만화경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음반

최근 몇 년 사이 낙소스 레이블에서 발매된 영국의 작곡가 스티븐 도지슨의 작품집(9.70262, 8.573762, 8.573856)은 작곡가의 관심(하프시코드, 기타, 실내악)을 대변하고 있다. 하프시코드와 기타의 질감과 조화미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편성, 하프와 기타가 포함된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작곡가의 관심사를 만화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 '칠중주 변주곡'의 미묘함, '목가적 소나타'와 '가을 메아리'의 햇볕 머금은 전원풍경, '카프리치오와 피날레'의 변화무쌍한 인상 등 카롤로스는 '시적인상'에 부친 작곡가 특유의 어법을 친근감있게 전달하고 있다. 작곡가 입문용 음반으로도 좋을 듯싶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65

로시니: 피아노 전곡 작품 10집

주세피나 브리델리(메조 소프라노),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목소리가 갖고 있는 무한 잠재력, 콘트랄토의 향연

낙소스 화제의 시리즈 중 하나인 로시니의 피아노 전곡 작품 시리즈 10집. 8집과 9집에 이어 '늙그막의 과오(노년의 잘못들)' 1-3권, 9 & 14번, 서명 혹은 제목이 없는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수록 작품들은 콘스랄토(또는 '메조')의 다채롭고 무궁무진한 표현력에 천착했던 로시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빠져들게 되는 알레산드로 마랑고니의 피아노, 메조 소프라노 주세피나 브리넬리의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중저음이 연출하는 '희로애락'의 향연. 스치듯 지나가는 오페라의 장면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 '무제(앨범 타이틀 없음)'(12번 트랙), '이 달콤한 간지럼'(13번 트랙), '무제'(17번 트랙), '앨범 타이틀 없음(무제)'(18번 트랙), '이별'(2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903

브라가 산토스: 관현악 작품집

고란 펠리펙(피아노),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알바로 카수토(지휘)

대담한 스케일과 차가운 반향, 어슴프레한 인상의 대비가 빚는 극적 순간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작곡가 브라가 산토스의 작품들은 그동안 '교향곡'이외에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최근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작품들은 작곡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음반에는 '교향적 서곡 1 & 2번', 오페라 '사느냐 죽느냐' 중 서곡, 작곡가의 단 하나뿐인 '피아노 협주곡'이 수록되었다. 브라가 산토스 작품 세계의 미니어처와도 같은 네 작품(목가 & 로망스 & 교향적 전주곡 & 간주곡)이 보여주듯 대담한 스케일과 차가운 반향, 어슴프레한 인상의 대비가 빚는 극적인 순간들을 충실히 구현하는 알바로 카수토의 해석은 해당 녹음의 이정표가 될 만 하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933

하이든: 건반음악 작품집

예노 얀도(피아노)

하이든의 명곡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요제프 하이든은 47개의 건반소나타 이외에도 관현악 작품, 실내악 작품 등 자신의 작품들을 건반으로 편곡했다. 본 음반은 '교향곡 53번(제국) & 79번 & 85번(왕비)', '현악 사중주 29번(잘 지내나요)', 오페라 '사랑의 승리(또는 진정한 정절)'의 한 대목들로 구성된 '10개의 소품'(1786년 작)을 비롯해 '(《피리 시계》 중) 알레그레토', '웨일즈 왕자를 위한 행진곡' 등 하이든 건반 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음반 한 장에 담았다. 예노 얀도의 우아한 연주, 선명한 음질 등 하이든 건반 음악의 '한 조각'을 채우기에 부족함 없다. 감상을 추천한다.

8573936-37 [2CDs]

바흐: 류트 작품 전곡

이와무라 야스노리(바로크 류트)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바흐 음악의 명장면을 수 놓는 류트의 반향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선율로 익숙한 '류트 모음곡 4번'(BWV.1006a), 란도프스카가 '비할데 없는 아름다움'으로 극찬했던 '서주, 푸가 그리고 알레그로'(BWV.998), 《요한수난곡》 중 '내 영혼을 살피소서', 《마태수난곡》(초고판) 중 '그렇다! 우리의 살과 피는 정녕(십자가에 달려야 하거늘)' & '오라, 달콤한 십자가여' 등이 수록된 본 음반은 류트 작품을 통해 바흐 음악 세계에 빠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바흐 음악의 명장면을 수놓는 류트의 반향이 놀라움을 안겨준다.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8573963
마르코 탑키 기타 리사이틀
마르코 탑키(기타)

마르코 탑키, 미켈 피타루가 국제 기타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2017년 미켈 피탈루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마르코 탑키의 우승 기념 음반이다. 마르코 탑키는 1933년에서부터 2004년 사이에 작곡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5명의 작곡가를 통해 40여개의 국제 콩쿠르를 휩쓴 자신의 기량과 기타 연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묘한 음영을 표현하는 섬세하고도 날랜 터치, 정교한 기교, 깔끔하고 풍부한 울림 속에 드러나는 다채로운 인상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작품 전체가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토니오 호세, 롤랑 디앙의 작품을 주목할 만하다.

8573968
피터 그레이엄: 관악 합주를 위한 작품집
데일 제라드(나레이터), 필립 콥(트럼펫), 피터 무어(트럼본), 리처드 필립스(키보드), 블랙다이크(연주), 니콜라스 차일드 & 스티븐 콥(지휘)

작곡가 탄생 60주년 기념 음반
미국 밴드마스터 협회가 수여하는 오스카반트상 수상자 피터 그레이엄은 현대 관악 밴드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블랙다이크 관악 밴드는 피터 그레이엄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2009년에서 부터 2018년에 이르는 동안 작곡된 작품들을 연주했다. 혹자가 '여리고의 나팔소리'를 연상시킨다 평하기도 했던 브루크너 '교향곡 8번' 4악장 첫 부분으로 시작하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부터 관악 밴드만의 호쾌한 질주와 재즈를 연상시키는 흥겨운 반향은 존 필립 수자와 마일스 데이비스의 인상을 내뿜으며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다크 시티'의 고독하고 무력한 분위기, 공상 과학 영화의 환상적인 영감 등 관악 밴드의 무궁무진한 서사는 경이롭다. '탁월함' 그 자체, 감상과 소장을 강력 추천한다.
*** '파라마운트 랩소디'(8번 트랙), '뉴욕 무비'(9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9038
잊힌 색소폰 협주곡들
올리-페카 투오미살로 오케스트라(연주), 올리-페카 투오미살로(색소폰 & 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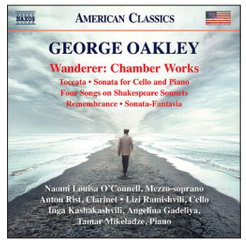
지금은 잊힌 색소폰의 귀중한 유산
대중적으로는 널리 보급된 악기 색소폰. 클래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색소폰의 매력에 여전히 천착했던 작곡가들이 있었다. 지금은 잊힌 '색소폰의 귀중한 유산'이 수록되어 있는 본 음반은 관악 밴드가 아닌 색소폰을 위한 협주곡들이 수록되어 있어 가치를 더한다. 그윽하고 우아한 음색, 때로는 다른 금관악기와 구별되는 '독보적인' 관능미를 뽐내는 색소폰의 매력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작곡가들을 매료시켰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수록 작품들 중에서도 이르요 구나로풀로스와 에일레르트 라인도르프-라르센의 작품들이 특히 압권이다. 단독 악기로서 색소폰의 가능성에 편안히 빠져들 수 있는 음반, 강력 추천한다.

8559813
번스타인: 관현악 작품집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 (지휘)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헌정 음반
2018년 가장 주목 받는 예술가 1순위에 오르는 인물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번스타인의 제자이기도 한 마린 알솝은 세기를 빛낸 예술가에 대한 헌사를 자신의 분신 상파울루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반에 담았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맘보'를 비롯해 번스타인의 유명 작품 한 대목들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세계 최초로 녹음된 CBS방송 개국 50주년 기념작 'CBS 뮤직'(1978)과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작품 '번스타인의 생일 부케'(1988)이다. 특히, 후자에 참여한 작곡가들(루치아노 베리오, 존 코리글리아노, 토루 다케미츠, 존 윌리엄스 등)의 면모는 지난 세기 거장의 그림자를 실감할 수 있어 특별하다.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 'CBS 뮤직'(4-8번 트랙), '번스타인 생일 부케'(10-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59841
존 하비슨: 레퀴엠
제시카 리베라(소프라노), 미카엘라 마르텐스(메조 소프라노), 니콜라스 판(테너), 켈리 마크그라프(바리톤), 네쉬빌 심포니 코러스(합창), 네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 카를로 게레로(지휘)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레퀴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곡가 존 하비슨은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게츠비》를 소재로 한 동명의 오페라를 완성한 후 '레퀴엠'에 착수했다. 약 15년의 여정 끝에 완성한 '레퀴엠'은 라틴어 전례 미사에 대한 작곡가의 탐구와 함께 시대의 기쁨과 아픔을 머금은 채 무심히(또는 무자비하게)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 9 · 11 사태를 비롯한 시대의 군상을 노래하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레퀴엠'. 소편성의 담백한 색채, 경건한듯 극적인 목소리는 경이롭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작곡가와 감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감상을 추천한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56
조지 오클레이: 방랑자(실내악 작품집)
나오미 루이자 오코넬(메조 소프라노), 안톤 리스트(클라리넷), 리지 레미시빌리(펠로), 잉가 카샤카시빌리 · 안젤리나 가델리야 · 타마르 미켈라이즈(피아노)

르네상스와 현대를 잇는 다리
조지아 태생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조지 오클리는 조지아 민속 선율과 재즈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는 폭 넓은 장르를 융합하는 동시에 서양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사하고 있다. '토카타'(2008)와 '소나타-판타지아'(2010),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의한) 4편의 가곡'(2011)은 위에서 지적한 조지 오클리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의 영감과 당시의 음악 언어를 재해석한 '4편의 가곡'은 작곡가의 서사적으로 상징적은 스타일을 간명하게 느낄 수 있기에 수록 작품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표현력, 뻔한 듯 특별한 인상, 몰입감이 각별하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1379
윌리엄 베넷: 실내악 작품집
제레미 영(피아노), 레온 보쉬(더블 베이스), 빌리어스 현악 사중주단(연주)

작곡가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
피아노 협주곡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작곡가 윌리엄 스턴데일 베넷은 실내악 장르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남겼다. 조숙했던 작곡가의 음악 재능을 보여주는 초기작 '현악칠중주'는 하이든과 멘델스존의 인상과 함께 후일을 예시하는 듯한 피아노의 기교와 서정이 인상 깊다. 피아노 작품에 가려진 작곡가의 또 다른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실내 삼중주'(Op.26)와 '현악사중주'(WoO.17) 중에서도 전자는 슈만과의 즐거운 한 때가 담겨 있어 각별하다. 작품 전반을 이끌어가는 제레미 영의 피아노와 딜리어스와 엘가, 프리커의 현악 사중주 작품집에서 호평을 받은 빌리어스 현악 사중주단의 균형 잡힌 호흡이 인상적이다.

8573652
모이제스: 교향곡 5 & 6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바크(지휘)

작곡가의 행복한 시절을 대표하는 두 편의 교향곡
알렉산더 모이제스는 오이겐 수촌, 얀 키커와 함께 당대 슬로바키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였다. 당시 유럽 음악의 조류와 슬로바키아 음악 요소를 접목한 그의 작품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말러, 비테슬라프 노박의 색채를 띠고 있다. 모이제스 교향곡 시리즈 3집에는 작곡가의 행복한 시절을 대표하는 두 편의 교향곡(5 & 6번)이 수록되었다. '교향곡 5번(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산)'은 작곡가를 음악으로 인도한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고 있는데,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을 떠오르게 하는 3악장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전 교향곡 보다 한층 무르익은 작법을 보여주는 '교향곡 6번'의 세련미에 이르기까지 수록 작품 곳곳에는 평온함 속 재기발랄함이 넘친다. 대안을 찾기 힘든 음반, 주목받아야할 시리즈가 아닌가 싶다.

8573821
프란츠 슈레커: 드라마(연극)에 부친 서곡, 《공주의 생일》모음곡, 낭만적 모음곡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펠레타(지휘)

웅혼한 음향과 낭만적인 서정, 브루크너와 바그너 그리고 슈만의 조화
프란츠 슈레커는 20세기 오스트리아-독일 음악계의 유명인사였다. 특히, 오페라에서 그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작곡가 탄생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 조앤 펠레타와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슈레커의 대표작 《공주의 생일》의 모음곡, '드라마(연극)에 부친 서곡', '낭만적 모음곡'을 통해 지금은 잊힌 작곡가의 자취를 손에 잡힐 듯 드러냈다. 브루크너와 바그너의 웅혼한 음향, 슈만의 낭만적인 서정이 연출하는 극적인 분위기가 압권이다.

8573825
셉투라: 관악 7중주를 위한 음악 6집
셉투라(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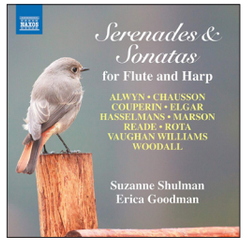
금관으로 펼쳐지는 영국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금관 앙상블의 폭발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셉투라 관악 칠중주단. 르네상스에서 부터 근현대, 러시아와 프랑스 음악의 화려했던 순간들을 조명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영국 음악 두 번째 황금기를 펼쳐 보인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핀지와 엘가, 페리와 월튼의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엘가의 '세레나데'(Op.20)와 올해 탄생 170주년이자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는 페리의 '이별의 노래'(발췌)이다. 영국 음악에 어울릴 법한 숨막힐듯 밀도 높은 금관의 반향, 가을빛 석양을 연상시키는 '우수'가 매력적이다.

8573862
페르디난트 리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집
에릭 그로스만(바이올린), 수잔 케이건(피아노)

베토벤의 색채에 한층 다가서는 리스의 발걸음
낙소스 레이블에서 발매되고 있는 페르디난트 리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시리즈는 베토벤의 이름에 따라붙는 이름이 아닌 작곡가 리스와 그의 음악 여정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이다. 리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세 작품(Op.18, Op.38-3, Op.83)이 수록된 시리즈 3집은 그야말로 베토벤의 색채에 다가서는 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봄', '크로이처' 등 같은 장르 베토벤의 걸작에서 느낄 법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극적 비약과 '진중한' 색채는 이전 시리즈와 확연히 구분될 만큼 놀라움을 안겨주며, 작품 한 구석에 남아있는 재치와 고전적인 색채는 온전한 리스의 작품임을 환기시킨다. 에릭 그로스만과 수잔 케이건의 활기 넘치는 호흡이 인상 깊다.

8573888
알프레드 브루뉴: '《메시도르》 중 전주곡', '《풍차 돌격》 모음곡', '《미쿠장의 탄생》 중 전주곡', '《메시도르》 중 황금의 전설'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데럴 앙(지휘)

에밀 졸라, 바그너 & 마스네의 인상이 어우러진 알프레드 브루뉴의 작품 세계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 알프레드 브루뉴는 칸타타 '파리의 성녀 즈느비에브'로 로마 대상(1위 없는 2위)을 수상했으며, 에릭 사티의 뒤를 이어 프랑스 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프랑스의 감성, 너른 스케일과 서사미 여기에 자연주의가 더해진 브루뉴의 작품 세계는 마스네의 기풍과 에밀졸라의 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브루뉴의 오페라 모음곡 또는 오페라 한 대목이 수록된 본 음반에는 오페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의 면모와 함께 (앞서 언급한) 작품 세계의 특징이 망라되어 있다. 데럴 앙의 세련된 해석, 그 중에서도 바그너의 '반지'를 연상시키는 《메시도르》 한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8573947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세레나데와 소나타 작품집
수잔 슐먼(플루트), 에리카 굿먼(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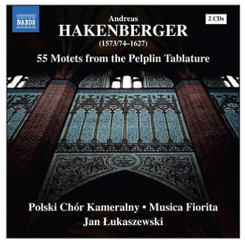
꽃피고 물흐르는 정원의 향수
최근 방영된 드라마 속 오르골 선율로 관심을 끌었던 '그린슬리브즈(푸른 옷소매)'에서부터 쿠프랭과 쇼송, 엘가와 니노 로타, 존 마슨에 이르기까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빅토리아에서부터 20세기까지 전원의 인상을 플루트와 하프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이다. 작품의 면면은 봄날 한 때 꽃피고 물 흐르는 정원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산뜻하면서도 아련하다. 수록 작품 모두 낯익고 편안한 인상을 머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니노 로타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소나타'(11-13번 트랙)와 얼윈의 '샘물의 서정'(14번 트랙)의 우아한 색채는 음반의 백미이다. 가을 오후 또는 다가올 봄의 인상을 떠올리며 감상해도 좋을 듯 싶다.

8573980
야니프 도르: 찬가
야니프 도르(카운터 테너), 앙상블 나야(연주)

중세부터 20세기, 지중해 유럽과 근동 지역의 찬가
지중해와 라틴 아메리카 방랑의 노래를 담은 2016년도 음반(8.573566)로 화제를 모았던 카운터 테너 야니프 도르 세 번째 음반. 중세부터 20세기, 지중해 유럽과 근동 지역의 찬가가 수록되었다. '셰마 이스라엘(들으라, 이스라엘이여)'에서부터 성인 축일과 자장가에 이르는 레파토리, 플라멩고 기타 & 네이 플루트 & 디저리두 등 악기가 연출하는 이국적인 반향, 애수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야니프 도르 특유의 '방랑자'적인 목소리는 1집만큼이나 매혹적이고 파격적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으며, '노래'의 형태로 일상에 밀착했던 '신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음반이기도 하다.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8573987
미구엘 커츠먼: 협주곡 작품집
마리아 피치니니(플루트), 오르솔야 코르솔란(바이올린), 게르게이 주가르(프렌치 호른 & 쇼파), 마틴 쿠스크먼(바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지휘)

세상의 모든 장르, 모든 음악을 포용하는 미구엘 커츠먼의 음악 세계
브라질계 미국 작곡가 미구엘 커츠먼은 클래식, 재즈, 프로그레시브 락, 일렉트로닉,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본 음반은 세계 최초로 수록된 4편의 협주곡을 통해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민속 리듬의 매혹적인 자태(플루트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이국적이고 광활한 반향(바이올린, 호른, 쇼파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매혹적인 재즈의 색채(바순 협주곡), 뉴욕의 다양한 음악 풍경(첼버 협주곡 – 뉴욕의 50개 문)은 세상의 모든 장르, 모든 음악을 포용하고 있는 작곡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쇼파, 신디사이저, 오르간 음향이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43-44 [2CDs]
하켄베르거: 《펠플린 테블리처》 발췌 55개의 모테트
폴란드 첼버 콰이어(합창), 무지카 피오리타(연주), 얀 우카체프스키(지휘)

버드와 탈리스 시대 또 하나의 음악 유산
폴란드의 작곡가 하켄베르거는 일생의 전반기를 지그문트 3세 바자의 왕실 예배당 가수로 보냈으며, 일생의 후반기 20년을 그단스크의 성 메리 루터 교회의 카펠마이스터로 봉직했다. 현재 약 62곡 정도로 추정되는 하켄베르거의 작품들은 17세기 약 3~40년에 걸쳐 작성된 약 850여 작품이 수록된 《펠플린 테블리처》(펠플린 사토 수도원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음반은 《펠플린 테블리처》에서 발췌한 하켄베르거의 모테트 55곡을 세계 최초로 음반에 담았다. 수도원의 낭랑한 음향, 16~17세기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미는 감탄을 자아낸다. 버드와 탈리스 시대 또 하나의 음악 유산, 감상과 소장을 추천한다.

8574001-02 [2CDs]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248)
율리아 클라이터(소프라노), 카타리나 마기에라(알토), 게오르그 포플루츠(복음사가, 테너), 토마스 E. 바우어(베이스), 마인츠 바흐 합창단(합창),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연주), 오로 랄프(지휘)

작품 본연의 유기적인 면모를 살리는 연주
숙연한 반향과 오롯한 음성의 조화로 수난의 내적 통찰을 보여줬던 전작 '요한수난곡'(8.573817-18)에 이어 랄프 오토가 지휘하는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는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종교음악 작품,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음반에 담았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을 통한 '구원'을 예시하는 작품의 스케일, 독립되어 있으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작품의 묘미는 바흐 시대 음색에 충실한 연주 속 '수난곡'에 버금가는 경건하고도 극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두 번째 음반에 수록된 4-6부의 자연스런 전개가 압권이다.

8573973
세기 말 세기 초, 런던과 파리의 노래
클레망틴 드쿠트르(소프라노), 필리프 브로카르(바리톤), 클로에 듀크레이(하프), 프리볼 앙상블(연주)

세기 말, 세기 초, 런던과 파리에 흐르던 노래들
런던과 파리, 유럽(또는 세계) 예술계의 거대한 축을 이루고 있는 두 도시는 서로의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며 세기 말 세기 초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서로에게 열광했던 당시 두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는 본 음반은 오늘날은 물론 당시에도 인기 있었던 'Tea for Two'를 비롯한 작품들이 흑백영화처럼 펼쳐 보이고 있다. 런던과 파리 거리를 걷고 싶게 만들 만큼 고풍스럽고 우아한 반향, 귀에 익은 작품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때 그 거리 아련한 벨 에포크의 향수는 여전히 매력적이기만 하다. 가을 오후 차 한 잔, 휴식의 순간에 부담 없이 함께할 만한 음반이다.

*** 'Tea for Two'(미샤르 편곡버전, 1번 트랙), '내 여인의 안식처(그늘)'(듀크레이 편곡 버전, 2번 트랙), '《미레트》 중 아! 안돼! 나를 피하지 말아요!'(스토펠 편곡 버전, 3번 트랙), '《보케르씨》 중 금과 청과 백'(스토펠 편곡 버전, 4번 트랙), '《보케르씨》 중 가볍게 가볍게'(가쏘 편곡 버전, 5번 트랙), '《전하(殿下)》 중 시간의 노래'(듀크레이 편곡 버전, 6번 트랙), '《슈발리에 에옹》 중 로랭기의 레시타티보와 카바티나'(스테파니 메네 편곡 버전, 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Ondine www.ondin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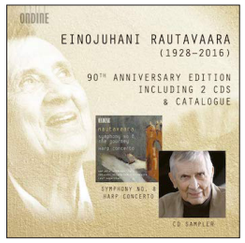
ODE1316-2

드보르자크 피아노 3중주곡 3번 & 4번 '둠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탄야 테츨라프(첼로), 라르스 포크트(피아노)

그라모폰상에 빛나는 테츨라프 남매와의 환상적인 호흡

드보르자크는 피아노 3중주를 여섯 곡 정도 작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네 곡뿐인데, 그것은 각각 op.21, 26, 그리고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는 op.65와 op.90이다. 네 곡은 모두 드보르자크의 창작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걸작들이다. 1875년과 1876년에 나온 작곡된 op.21과 op.26는 드보르자크가 초기 습작과정을 거친 후 더욱 간소해진 음악양식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op.65와 op.90 두 곡은 보다 원숙한 기교와 깊고 풍부한 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기때문에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3중주곡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1883년 2월과 3월에 걸쳐 작곡한 3번은 느린 악장에서 그대로 감정이 드러나듯이 바로 전 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작곡가 특유의 애수어린 선율로 그린 다소 어두운 분위기가 압권이다. 연주는 그라모폰 상 수상에 빛나는 독일 바이올리니스트로 현재 음악성과 기교 양면에서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가 여동생인 첼리스트 탄야,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인기 피아니스트 라르스 포크트가 함께했다. 이 음반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테츨라프가 이미 여동생과 함께한 슈만의 피아노 3중주곡으로 2012년에 그라모폰 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과연 세 사람의 호흡이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명반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빼어나다. 현악기들의 비단결 같은 감촉과 영롱하게 맺히는 피아노 음을 환상적으로 담아낸 온딘의 녹음기술에 어안이 벙벙하다.



ODE1236-2 [2 for 1]

라우타바라: 교향곡 8번 '여행', 하프 협주곡

마리엘레 노르트만(하프),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품위 있는 선율과 중후한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우타바라의 자화상

라우타바라는 시벨리우스 이후 가장 각광받는 핀란드의 작곡가로, 품위 있는 선율과 중후한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앨범은 그의 탄생 9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8번 여행'과 '하프 협주곡'이 수록되었던 기존 앨범과 함께, '축복의 섬', '공간의 정원', '핀란드의 신화', '내 마음의 노래', '하늘의 아다지오' 등 라우타바라의 명곡들을 선정하여 두 장의 음반으로 구성했다. '하프 협주곡'은 하프의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시키며, '교향곡 8번'은 광활한 대지의 한 가운데서 유영하는 듯 벅찬 감동을 준다.

ODE1308-5 [SACD]

린드베리: 템푸스 푸지트, 바이올린 협주곡 2번

프랑크 페터 침머만(바이올린),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한누 린투(지휘)

신비로운 음향과 조직적인 맞물림, 그리고 산뜻하고 감성적인 멜로디

현재 핀란드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작곡가는 단연 마그누스 린드베리이다. 그는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무장하여 대단히 조직적이면서 복잡한 음악을 만들어냈으며, 압도하는 음향과 음색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감성적인 접근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템푸스 푸지트'과 '바이올린 협주곡 2번'에서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템푸스 푸지트'는 '날아가는 시간', 즉 '세월 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린드베리에게 기대하는 신비로운 음향과 조직적인 맞물림과 함께, 산뜻하고 감성적인 선율이 휘감으며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든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085

하이든: 현악사중주 Hob. III:57 & 라벨: 현악사중주 & 스트라빈스키: 콘체르티노 등

테슬라 사중주단

무엇을 연주하든 핵심을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테슬라 사중주단은 세계적인 12회 밴프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하이든 상을 수상하고, 2012 피쇼프 실내악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들의 명성을 높여준 하이든의 사중주곡(Hob. III:57)에서는 하이든의 음악적 위트가 돋보이며, 함께 수록된 라벨의 유일한 사중주곡은 대단히 섬세하면서도 충실한 음향이 지극히 매혹적이다. '메뉘엣 안티크'를 비롯한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희귀한 곡들을 함께 수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스트라빈스키의 '콘체르티노'는 20세기의 중요한 사중주곡 중 하나로, 테슬라의 뛰어난 조직력과 해석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있다.

ORC1000086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닐센: 바이올린 협주곡

리야 페트로바(바이올린),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티나 포스카(지휘)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든 최고의 연주 중 하나

리야 페트로바는 2016년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 우승 경력을 갖고 있으며,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친구들'의 연주회에 초대되기도 했다. 이 음반은 그녀에게 명성을 안겨준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수록되어있다. 강력한 스트로크와 풍부한 음향이 단번에 주도권을 사로잡으며 서정적인 섬세함까지 겸비하여, 이 곡의 최고의 연주 중 하나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함께 수록되어있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은 애틋한 서정미와 이지적인 정교함, 그리고 폭발하는 에너지를 오가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낸다.

Proprius www.proprius.com

proprius

PRCD2082

바흐: 다섯 개의 전주곡/ 이스베크: 다섯 개의 프롤로그 등 기타 음악

짐 닐손(기타)

기타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녹음한 아름다운 앨범

기타리스트 짐 닐손은 스웨덴 스톡홀름과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했으며, 가르냐노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및 녹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스웨덴 작곡가인 스테판 이스베크와 바흐의 음악을 녹음했다.
이스베크는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기타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만든다.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선율과 심장을 두드리는 리듬은 대단히 매혹적이다. 바흐는 유명한 첼로를 위한 C장조 전주곡과 함께 류트 모음곡의 전주곡들을 모았다.
화려한 화음과 우아한 아르페지오는 기타의 미학을 깨닫게 한다.

RPO www.rpo.co.uk

RPOSP058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클라리넷 오중주

캐서린 레이시(클라리넷),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던컨 리들(지휘)

감성적인 해석과 중후하며 깊은 소리를 내는 바셋 클라리넷의 환상적인 조화

캐서린 레이시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과 BBC 심포니를 거쳐 2015년에 영국 정상의 로열 필하모닉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1997년부터 명성 높은 클라리넷 장인인 피터 이튼이 제작한 바셋 클라리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악기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에는 안성마춤으로, 이 음반에서 레이시의 감성적인 연주에 보다 중후하며 깊은 소리를 내는 이 악기의 음색을 확인할 수 있다. 〈클라리넷 오중주〉는 클라리넷 소협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아하고 정갈한 현악과 차분한 클라리넷은 18세기 귀족의 살롱에 있는 듯한 환상을 선사한다.

Seattle Symphony www.seattlesymphony.org

SSM1018

라벨: 라 발스/ 베리오: 교향곡/ 불레즈: 노타시옹 I–IV

룸펄 오브 티스(보컬),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뤼도빅 모를로(지휘)

모를로가 지휘하는 시애틀 심포니가 내놓은 회심의 역작

베리오의 〈교향곡〉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향곡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으로, 20세기의 현대적인 음향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을 인용하여 인류의 음악적 성과들을 종합한 작품이며, 또한 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가사로 사용하여 인류학적 고민을 아울러 담아낸 걸작이다. 불레즈의 〈노타시옹〉은 본래 피아노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직접 관현악으로 편곡하면서 대단히 큰 음악적 표현력을 지닌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된 역작이다. 라벨의 〈라 발스〉는 무도회 장면을 상상하며 작곡한 곡으로, 시애틀 심포니의 고급스럽고 따스한 음색이 더욱 빛을 발한다.

Simax www.grapp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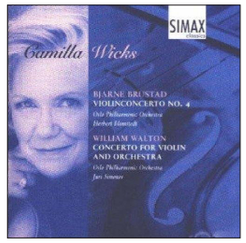
PSC1353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헤닝 크라게루드(바이올린 & 지휘), 아크틱 필하모닉 체임버 오케스트라

하얀 눈 소복한 겨울의 풍경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워낙 명곡이라 새로운 편성의 연주가 나오면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가 편곡한 현악 3중주 편성의 골드베르크 변주곡(orfeo)을 떠올릴 수 있겠다. 아마 이 음반은 오래 전의 시트코베츠키의 작업을 벤치마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실내 실내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 북극의 앙상블이란 뜻의 아크틱 필하모닉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마치 바흐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 듯한 바로크적 기상과 운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위구조의 선율과 푸가의 성부들이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새롭게 들리는 장점이 있다. 이 음원에서 선율을 담당하며 주된 역할을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현재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자 중의 한사람인 노르웨이의 중견 바이올린(비올라)연주자 헤닝 크라게루드다. 그는 천재 카밀라 윅스(Camilla Wicks)의 제자이기도 한데 피아니스트 안스네스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현재 안스네스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는 노르웨이 연주가다. 크라게루드는 작곡가 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직접 편곡했다. 처음 아리아 주제부터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고요한 겨울 정경이 펼쳐진다. 정말 아름답다! 이 음원과 짝을 이루고 있는 토펠리우스 변주곡은 크라게루드의 창작물인데, 21세기에 작곡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멋지다.



PSC1185

카밀라 빅스–브루스타트 & 월튼 바이올린 협주곡 실황 (1968~1985) 녹음

카밀라 빅스(바이올린), 블롬슈타트 유리 시모노프,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노르웨이의 혈통과 저력으로 무장한 현의 여제, 카밀라 빅스

미국 태생이지만,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로부터 노르웨이 음악적 혈통을 물려받은 카밀라 빅스(1928~)의 1968~1985년 실황녹음이다. 14살 뉴욕 필 데뷔 이후 최고의 지휘자들과 함께 화려한 연주와 명성으로 노르웨이작곡가들과 작품을 알리는 데에 헌신한 그녀의 철학은, 동봉된 노르웨이작곡가 브루스타드(1895~1978)의 협주곡 4번(블롬슈타트)에 잘 담겨 있고, 영국 월튼(1902~83)의 협주곡(유리 시모노프)에선 누구도 구사하지 못한 세련미가 배어나온다. 두 녹음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젊은 날은 성숙미를, 만년에는 파격의 보폭을 갖추었다. 동시대를 활동한 요한나 마르치(1924~1979)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보여준 전설적인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명반이다.

PSC1832

노르웨이의 위대한 음악가 시리즈 3집 – 바이올리니스트 카밀라 빅스

카밀라 빅스(바이올린), 카르슈텐 안데르센(지휘),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버트 레빈(피아노)

20세기 바이올린 여제의 또 다른 이름, 카밀라 빅스

미국 태생이지만,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로부터 노르웨이의 음악적 혈통을 물려받은 카밀라 빅스(1928~). 14살 뉴욕 필과의 데뷔 이후 최고의 지휘자들과 함께 했고, 화려한 연주와 명성으로 노르웨이 작곡가들과 작품을 알리는 데에 헌신했다. 이 음반은 80세 생일 기념을 위해 2008년 발매된 것으로 전성기인 1950년부터 만년의 1985까지의 녹음본을 모은 것이다. 글라주노프 · 랄프 본 윌리엄스 · 브람스 · 브루스타트(노르웨이) · 사라사테의 작품들로, 듣고 나면 어느 순간 모든 기준이 '카밀라 빅스'로 맞춰진다(※앨범명의 '1945~2000'은 이 시기에 활동한 음악가들을 담는 레이블의 시리즈명일 뿐, 이 음반은 빅스의 1945~1985년 녹음을 담고 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82

마르토: 클라리넷 오중주, 현악사중주 2번

안드레아스 샤블라스(클라리넷), 프레토리우스 사중주단, 마르토 사중주단

과감한 극적 표현과 낭만적인 감수성이 짙은 선율이 어우러진 낭만음악의 진수

앙리 마르토는 아마추어 바이올리스트였던 프링스인 아버지와 클라라 슈만의 제자로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프랑스적인 섬세한 음색과 화음이 독일적인 양식과 결합되어 있다. 〈현악사중주 2번〉과 〈클라리넷 오중주〉는 모두 30대 초반에 작곡된 곡으로, 과감한 극적 표현과 낭만적인 감수성이 짙게 녹아있는 선율이 어우러져 있다. 클라리넷의 포근한 음색 또한 작품의 성격과 잘 어울리며, 극적 표현과 섬세한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마르토 사중주단의 연주 또한 훌륭하다.

SM291

타르티니, 하이든, 멘델스존: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협주곡

레베카 하르트만(바이올린), 잘츠부르크 챔버 솔로이스츠, 라바르드 스쿠 라르센(지휘)

바이올린 음악의 200년을 조망하는 획기적인 앨범

레베카 하르트만은 앙리 마르토 국제콩쿠르와 바이로이트 '파첨 인 테리스' 국제콩쿠르의 우승자이자 야샤 하이페츠 장학금 수혜자이다. 그녀의 레퍼토리는 초기 바로크부터 신작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매우 폭이 넓으며,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연주하고자 하는 작품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찾아 연주로 옮긴다. 타르티니의 작품에서는 매끈한 보잉을 보여주는 반면, 하이든에서는 위트 있는 표현을 가미하며, 멘델스존에서는 뚜렷한 대비를 통해 극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이 한 장의 음반으로 유럽 바이올린 음악의 200년을 조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SM284 [2 for 1.5]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괴츠: 피아노 협주곡 2번

안드레아 카우텐(피아노), 사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담 메드베츠키(지휘)

피아노와 관현악, 두 세계가 펼치는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심포닉 콘체르토

헝가리 출신으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드레아 카우텐은 언드라시 시프, 예뇌 안도, 페렌츠 프리차이 등 여러 헝가리 거장들로부터 배웠으며, 활발한 연주와 녹음과 함께 아넬리제 벤너-크라프트 재단 실내음악 시리즈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음반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심포닉 콘체르토' 두 곡을 수록했다. 브람스의 〈협주곡 1번〉에서는 강렬한 타건으로 관현악과 대등한 앙상블로 거대한 교향곡의 기풍을 들려준다. 괴츠의 〈협주곡 2번〉은 쇼팽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피아노와 극적인 관현악의 조화가 압도한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67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한윤정(피아노)

스페인의 정서와 현대인의 감성을 조화시킨 명연

한윤정은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13세에 서울시향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줄리어드와 커티스, 뉴욕 대학 스토니브룩 등에서 수학하고 유수한 국제콩쿠르 우승과 여러 상을 받은 젊은 거장이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걸작 〈고예스카스〉를 녹음했다. 그라나도스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 고야의 그림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고예스카스〉는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윤정은 리듬에 담겨있는 스페인의 정서를 훌륭히 표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감성을 멜로디에 실어 깊은 공감을 얻는다.

30070 [2 CD FOR 1.5]

글래스: 피아노 연습곡 전곡

제니 린(피아노)

탁월한 글래스 연주자인 제니 린의 글래스 대표 피아노 작품 연주

미니멀리즘 음악의 거장 필립 글래스는 작곡을 시작할 때부터 피아노곡을 썼으며, 오늘날에도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할 정도로, 피아노는 그의 음악적 이상에 가장 가까운 악기이다. 글래스의 여러 피아노 작품 중 〈연습곡〉은 가장 돋보이는 곡으로서, 글래스의 '반복 구조'와 서정적인 멜로디의 결합을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하지만 연주자에게는 연습곡으로서 다양한 패시지 연주력과 리듬 감각을 요구하며, 남다른 집중력과 표현력을 필요로 한다. 피아니스트 제니 린은 필립 글래스의 월드 투어에 참여하는 등 글래스 작품에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30072

바인베르크: 피아노 오중주, 첼로 소나타 2번, 피아노 소나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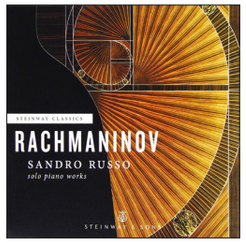
진 골란(피아노), 앤드루 이(첼로), 아타카 사중주단

끓어오르는 감성을 짙은 농도로 전달하는 절정의 호소력

폴란드 출신의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에게는 나치에 의해 가족 모두를 잃고 홀로 타슈켄트로 피신했던 슬픈 과거가 있다. 그렇게 묻힐 뻔했던 그였지만, 쇼스타코비치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모스크바로 불렀다. 이후 그는 22개의 교향곡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썼으며, 오늘날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의 음악에는 가슴에 깊이 사무친 슬픔이 있으며, 이를 감추기보다는 강렬하게 드러낸다. 이 음반에 수록된 세 곡의 실내악곡들은 저마다 규모는 달라도 끓어오르는 감성을 짙은 농도로 전달하는 호소력이 모두 절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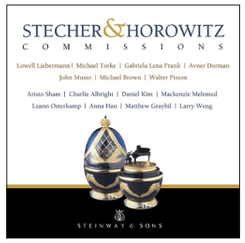
30075
베토벤: 바가텔/ 슈만: 다비트 동맹 무곡집/ 프로코피에프: 풍자
니키타 믄도얀츠(피아노)

세 개의 소곡집을 통해 들려준 인간의 다양한 감정
니키타 믄도얀츠는 2007년 파데레프스키 콩쿠르 우승, 2013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16년 클리블랜드 콩쿠르 우승 등 최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는 이 음반을 위해 베토벤의 〈바가텔〉과 슈만의 〈다비트 동맹 무곡집〉을 선택했다. 그는 이 두 작품을 모두 성격 소곡 모음곡으로 보고 각 악장을 매우 대조적으로 연주하여, 매우 극적이고 매력적인 해석을 들려준다.
또한 각 패시지의 개별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해냈다. 프로코피에프의 〈풍자〉는 20대 초의 작품으로, '앙팡 테리블'로 불렸던 그 과감하고 당돌한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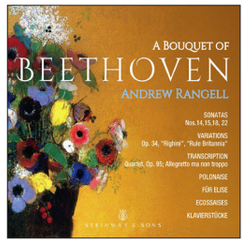
30077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1번,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산드로 로소(피아노)

두터운 화음과 역동적인 멜로디, 그 가운데 깃든 러시아적 감성과 낭만적 속삭임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산드로 로소에 쏟아지는 찬사는 그가 오늘날 최고의 거장 중 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준다 "음악가의 음악가이며,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이다. 그에게는 기교적인 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음악가적인 역량은 매우 인상적이며, 그만의 해석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그에게 라흐마니노프는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대상이다. 두터운 화음과 빠르게 움직이는 멜로디, 그 가운데 깃은 러시아적인 감성과 낭만적 메시지, 산드로 로소의 연주에는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 앨범에 펼쳐져 있다.



30079
스테처 & 호로위츠 위촉 피아노곡집
대니얼 킴, 안나 한, 애리스토 샴, 찰리 올브라이트, 맥켄지 멜러미드, 린 오스터캠프 등

거장 월턴 피스톤을 비롯하여 정상의 미국 작곡가들의 최신 피아노 작품들
미국의 전설적인 피아노 듀오인 멜빈 스테처와 노먼 호로위츠는 재단을 설립할여 작품 위촉과 음악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이 음반은 이들의 위촉곡들을 수록했다. 미국의 신낭만을 대표하는 로웰 리버만의 〈두 개의 즉흥곡〉은 피아노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포스트-미니멀리즘의 선두주자인 마이클 토키의 〈후아툴코의 만〉은 오늘날의 유쾌한 감성에 잘 들어맞는다. 아브너 도먼의 〈연습곡〉은 화려한 리듬의 향연을 펼치며, 미국을 대표하는 거장 월턴 피스톤이 자신의 협주곡을 스테처와 호로위츠를 위해 편곡한 〈협주곡〉은 이 앨범의 무게를 더한다.



30080 [2 for 1.5]
베토벤: 월광 소나타, 전원 소나타, 소나타 18, 22번, 엘리제를 위하여, '너를 사랑해' 변주곡 등
앤드루 란젤(피아노)

미처 몰랐던 베토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다
앤드루 란젤은 미국에서 손꼽는 바흐와 베토벤 연주자로, 연주와 교육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음반은 베토벤의 소나타와 소품들을 엮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월광 소나타〉와 〈전원 소나타〉, 〈소나타 18번〉, 〈소나타 22번〉을 중심으로 〈엘리제를 위하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소품들을 사이사이에 수록했다. 마치 화려하고 규모가 큰 네 송이의 다른 꽃과 여러 예쁜 작은 꽃들이 함께 꽃다발처럼 묶여있는 듯하다. 그런 만큼 베토벤의 진지한 면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화려하며 서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베토벤 피아노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30081
브람스: 첼로 소나타 1, 2번
브라이언 손튼(첼로), 스펜서 마이어(피아노)

본연의 음악적 의미에 집중하여 모든 첼리스트와 감상자에게 모범이 되는 명연
브라이언 손튼은 정상의 첼리스트인 린 해럴의 제자로서,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가르치면서 폭넓은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낭만시대 첼로 레퍼토리인 브람스의 두 개의 소나타를 연주했다. 그의 연주는 모든 프레이즈가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섬세하며, 사운드는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또한 템포 설정도 매우 안정적이고 무리 없이 음악적인 리드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가벼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품이 가진 본연의 음악적 의미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그의 연주는 모든 첼리스트와 감상자에게 모범이 된다.

30082
러시아 음악의 피아노 편곡집
비아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피아노)

러시아의 피아니즘으로 옮겨놓은 그리야즈노프의 펜과 건반
비아체슬라프 그리야즈노프는 러시아의 정상급 피아니스트지만, 연주자들 사이에서 편곡자로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편곡들은 보리스 베레초프스키를 비롯한 최고의 음악가와 단체에 의해 연주되고 있으며, 독일 최고의 악보출판사 중 하나인 쇼트 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이 음반은 그가 편곡한 피아노곡을 직접 연주한 앨범으로, 보로딘의 유명한 〈현악사중주 2번〉 중 '녹턴',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함께 프로코피에프, 글린카 등 러시아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작곡가들을 선별했다.

30090
얼 와일드: 거슈윈에 따른 기교적 연습곡, 소나타 2000 등
조안 폴크(피아노)

와일드에게 처음부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얼 와일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작곡가였다. 그의 〈거슈윈에 따른 기교적 연습곡〉은 거슈윈의 유명한 노래를 최고의 기교들로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원곡의 재즈 뉘앙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안 폴크의 연주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거슈윈의 '나를 보살펴주는 누군가'에 의한 주제와 변주곡〉은 일종의 오페라 파라프레이즈로, 이 곡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는 찾아볼 수 없다. 〈소나타 2000〉은 와일드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재즈와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아름다운 아다지오와 리키 마틴 풍의 토카타 등 그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30094
하이든: 첼로 협주곡 1, 2번
쥘 베일리(첼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빈 오닐(지휘)

관현악과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러운 기교로 음악을 리드하는 베일리의 호연
하이든이 남긴 두 개의 첼로 협주곡은 독일어권에서 유의미한 최초의 첼로 협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녹음되었는데, 그럼에도 쥘 베일리의 연주는 특별하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비롯하여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까지 주요한 첼로 레퍼토리를 섭렵하고 녹음하여, 하이든의 이 작품이 갖는 남다른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연주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베일리와 필하모니아의 연주는 뛰어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독주자는 기교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음악을 리드한다.

30095
바버: 소나타/ 그리피스: 세 개의 환상곡/ 카터: 소나타/ 자이몬트: 향유 등
드류 피터슨(피아노)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드류 피터슨의 미국의 피아노 음악
드류 피터슨은 2017 아메리칸 피아니스트 어워드 우승자이자 2018 애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자이며, 하버드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줄리어드에서 음악을 공부한 수재이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 답게 미국의 피아노 음악을 녹음했다. 그리피스의 〈세 개의 환상곡〉은 드뷔시의 영향이 느껴지며, 미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인 카터의 〈소나타〉는 서정적 분위기와 미국적 리듬이 낭만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자이몬트의 〈향유〉는 환상적인 음향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미국의 고전인 버버의 〈소나타〉는 피터슨의 진지한 접근이 전달된다.

30097
슈만: 소나타 1번/ 버르토크: 두 개의 애가/ 루리에: 섬세한 전주곡집
제니 리(피아노)

'멜랑콜리'에 알맞은 최선의 선곡과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는 섬세한 타건
제니 리는 2017년 뉴욕 콘서트 아티스트 월드와이드 데뷔 오디션 우승자이자, 2016년 내셔널 오디션의 '애스트럴 아티스트'이다. 또한 그리그 콩쿠르, '뮈지칼 드 프랑스' 콩쿠르, 러시안 콩쿠르, 미드웨스트 콩쿠르, 헤이다 헤르만스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실력파 연주자이다. 슈만의 〈소나타 1번〉은 이 곡에 깊히 담겨있는 낭만적 애수를 끄집어내어 우리시대의 감성을 자극하며, 버르토크의 〈두 개의 애가〉는 차분한 어조로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러시아의 작곡가인 루리에의 〈섬세한 전주곡집〉은 그야말로 애틋한 감수성의 끝을 들려준다.

30100
닐센: 세 개의 작품/ 에네스쿠: 카리용 녹턴/ 아이브즈: 콩코드 소나타 등
앤드루 랜젤(피아노)

우리시대의 감성, 독특한 화음, 빛나는 음향 등 피아노 사운드의 새로운 발견
앤드루 랜젤은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의 말로 상 수상자이자 애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자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20세기 초기의 작품들을 녹음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칼 닐센의 〈세 개의 작품〉은 유럽적인 감수성과 그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에네스쿠의 〈카리용 녹턴〉은 작은 종소리를 모방한 화음은 대단히 독특하고 흥미로우며, 쇤베르크의 〈두 개의 작품〉은 우리시대 감성에 대한 그의 애증이 녹아있다. 아이브즈의 〈콩코드 소나타〉는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작품으로, 빛나는 음향을 들려준다.

Tactus www.tactus.it

TC530003
르네상스 시대 류트 작품집
파올로 케리치(류트 & 비웰라)

1536년 밀라노에서 간행된 '안토니오 카스탈리오네' 류트 작품집
1546년 밀라노에서 출판된 '안토니오 카스탈리오네'판 류트 작품집이 수록된 음반이다. 총 27 작품 중 21곡이 수록된 본 음반은 출판 당시 류트의 위상은 물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음악의 단면까지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전원을 그린 풍경화 한 장면처럼 고즈넉하면서도 고아한 색채와 작품의 진정한 멋을 살리기 위해 류트와 비웰라를 사용한 점이 인상 깊다. 1517년 간행된 '빈센초 카피롤라의 류트 작품집'(TC470301)에 이은 파올로 케리치의 연주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TC661916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건반음악 작품 6집
프란시스코 타시니(하프시코드)

오페라에 가려진 알렉산더 스카를라티의 새로운 면모
나폴리 악파의 창시자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작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건반 악기를 위한 작품들 역시 아들 도미니코 스카를라티 재능의 연원을 짐작케 할 정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음악 악보로 유명한 볼로냐 우트 오르페우스 에디션으로 연주된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건반 악기 작품 시리즈(본 음반 포함, TC661911–16)는 오페라에 가려진 작곡가의 면모를 재조명하는 값진 음반들이다. 작곡가의 메신저라고 할 만한 에디션 편집자 프란체스코 타시니의 뛰어난 연주,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버전으로 연주되는 '폴리아'(마지막 트랙)가 인상 깊다.

TC760601
지아코모 고티프레도 페라리: 삼중주와 소나타
미리암 달 돈(바이올린), 페데리코 마그리스(첼로), 코라도 루자(포르테 피아노)

유려하고 우아한 품격, 고전 위에 수놓은 낭만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아코모 고티프레도 페라리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음악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트리오 소나타'(총 6곡)는 프랑스 혁명 이후 영국으로 이주했던 페파리가 햄프든 자작 궁정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무렵 작곡되었다. 작품들은 모차르트를 흠모했으며, '고전'을 고수했던 작곡가 내면과 한 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듯한 유려하고 우아한 품격, '고전'속 '낭만'의 색채가 인상 깊다. 사후 2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건반음악을 필두로 재조명되고 있는 작품 세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음반이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ATA CLASSICS

TOCC0327

셰벌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세르게이 코스틸레프(바이올린), 올가 솔로비에라(피아노)

생애 후반기 시련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 인간미 넘치는 서정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친구이자 동료 중 한 사람인 러시아의 작곡가 비사리온 셰벌린은 생애 후반기 '형식주의자'의 낙인과 왼쪽 몸 밖에 쓸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다 이 시기 탄생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에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쇼스타코비치로부터 극찬을 받은 특유의 재능과 인간미 넘치는 서정이 여전히 살아있어 놀랍다.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포근한 분위기, '시대'를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당시 예술가의 '음악적 정화'가 아닐까 싶다. 감상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TOCC0417

아우구스트 알렉산더 클렌겔: 피아노와 실내악 작품집

트리오 클렌겔(연주)

잊힌 낭만주의자에게 드리우는 새로운 빛줄기

드레스덴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비르투오소 아우구스트 알렉산더 클렌겔은 상트-페테스부르크에서부터 파리, 런던에 걸쳐 활동하며 명성을 누렸다. 바흐에 대한 헌사가 담긴 기념비적인 대작 '48개의 캐논과 푸가'를 작곡하기도 했던 클렌겔의 작품 세계는 '고전'과 '낭만'의 요소들을 아우르고 있다. 피아노와 실내악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은 존 필드, 멘델스존, 쇼팽의 색채를 연상시키는 작곡가의 독창적인 서정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이자 쇼팽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지금은 잊힌 낭만주의자에게 드리우는 새로운 빛줄기에 비견할 만하다.

TOCC0447

조지 앤타일: 피아노 작품 1집(후기 작품들: 1939–55)

주디 팽(피아노)

악동의 뒷 편, 치명적인 순수함

미국의 작곡가 조지 앤타일은 '음악의 악동'으로 알려져 있다. 일생 후반기(1939–55)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들에는 초기작의 강렬한 인상 때문에 따라붙는 '악동' 꼬리표를 불식시킬 정도의 순수(또는 순진)한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가정 음악 또는 살롱 음악을 연상시키는 단출하면서도 오롯한 반향, 차라리 '악동'의 재치(또는 농담)이라 할 만한 약간의 불협화음이 인상 깊다. 프로코피에프의 인상이 담긴 '두 개의 토카타'와 자신의 '뮤즈'에게 헌정된 '발렌타인 왈츠'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

TACTUS

TON2005

메시앙: 튀랑갈릴라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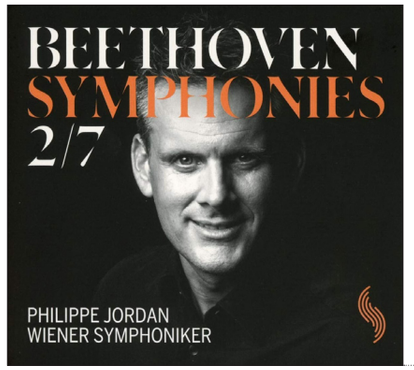
로제 뮈라로(피아노), 발레리 하르트만 – 클라베리(옹드 마르트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오랜만에 탄생한 〈튀랑갈릴라 교향곡〉의 새로운 명연주

빈의 음악을 상징하는 무지크페라인의 상주 관현악단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는 2015–16 시즌에 사도 유타카를 수석지휘자로 맞이한 이후 유럽의 주요 관현악단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무게감 있는 작품들을 훌륭한 연주로 녹음해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메시앙의 〈튀랑갈릴라 교향곡〉또한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을 확인시켜준다. 연주가 대단히 어려운 작품임에도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에너지와 긴장을 놓지않는 섬세한 선율, 그리고 매우 안정감 있는 사운드로 이 곡의 새로운 명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Wiener Symphoniker

www.wienersymphoniker.at



WIENER SYMPHONIKER

WS015

베토벤: 교향곡 2번, 7번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지휘)

극적인 대비와 섬세한 제스쳐, 균형 잡힌 화음을 갖춘 새로운 명연

베토벤의 교향곡은 수많은 녹음이 존재하지만, 거장의 손을 거치면 언제나 새로운 명연이 탄생하는 기적을 보곤 한다.
필리프 조르당의 베토벤 교향곡 음반도 그 중 하나이다. 조르당의 베토벤은 작품이 지닌 극적인 특징을 충분히 살려내며, 또한 섬세한 제스쳐와 화음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오늘날 뛰어난 지휘자로서 인정받는 이유이다.
조르당의 〈교향곡 2번〉 연주는 지금까지 이 곡이 왜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역동적이며, 〈교향곡 7번〉 연주는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강조하면서 화려함의 극치로 끌어올린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한글 자막

C major 742907 **[4K Ultra HD]**

2017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
바그너 '발퀴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베라 네미로바(연출), 피터 세이퍼트(지그문트), 게오르그 체펜펠트(훈딩), 비탈리 코발조브(보탄), 안야 하르테로스(지클린데), 안냐 캄페(브룬힐데), 크리스티나 마이어(프리카)

50년 전, '카라얀의 발퀴레'를 재연한 틸레만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자신만의 특별한 음악제를 펼치겠다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의 계획 아래 1967년 그가 직접 연출과 지휘를 맡은 바그너의 '발퀴레'를 올리며 시작되었다. 2017년은 페스티벌이 50주년을 맞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카라얀이 연출했던 1967년의 '발퀴레'를 틸레만과 베라 네미로바가 완벽히 재현한다. 2017년 4월 5~17일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실황으로, 국내 극장에서도 상영되어 화제가 되었다. 피터 쉐이퍼트(지그문터), 게오르그 체펜펠트(훈딩)의 연기력과 바그너화된 목소리가 이 프로덕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외에도 출연진 대부분은 바그너 전문 가수들이다. 해설지(21쪽 구성/영 · 프 · 독어)에는 '전설적인 발퀴레의 재창조'가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발퀴레'는 50년 전인 1967년에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을 창설한 카라얀을 조명하고 추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베라 네미로바가 연출을 맡았다.

– 이들은 1967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시작과 함께 카라얀이 선보인 무대를 재현한다. 전설의 선배를 기리는 틸레만의 지휘에 대하여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은 '음악속의 매우 혼란한 질서를 우수한 앙상블로 이끌었다'고 평한 바 있다. 지그문트 역의 피터 쉐이퍼트, 훈딩 역의 게오르그 체펜펠트의 연기력과 바그너화된 목소리가 이 프로덕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외에도 출연진의 대부분은 바그너 전문 가수들로 유럽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자신만의 가장 특별한 음악제를 펼치겠다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계획 아래 1967년 직접 연출과 지휘를 맡은 바그너의 '발퀴레'를 무대에 올리며 시작되었다. 1989년 카라얀의 사후,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래틀 등이 음악감독을 맡으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음악제이다. 2013년부터 카라얀의 제자였던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새 감독을 맡았으며 2017년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이를 기념하고자 1967년 첫 번째 페스티벌에서 카라얀이 연출했던 '발퀴레'를 완벽히 재현한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7년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실황으로, 국내 극장에서도 상영되어 카라얀과 틸레만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한글 자막

C major 739507 **[4K Ultra HD]**

2016년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실황
베르디: 가면무도회

요하네스 에라트(연출), 주빈 메타(지휘),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비오트르 베챠와(리카르도), 안야 하르테로스(아멜리아), 조지 페틴(레나토), 오카 폰 데어 담라우(오스카)

'테너를 위한 베르디의 오페라'를 접수한 테너의 열연!

2016년 주빈 메타가 80살 생일 기념으로 8년 만에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으로 돌아와 지휘한 의미 있는 공연이다. 베르디의 작품들 중 '테너의 오페라'로 손꼽히는 이 오페라의 주인공 리카르도 역을 맡은 테너 표트르 베찰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빛색깔과 선이 굵은 연기력으로 완벽한 리카르도를 구사한다. '운명의 힘'에서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의 열연으로 명성을 날렸던 아멜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야 하르테로스도 이 영상물의 매력도를 높인다. 요하네스 에라트는 감각적이며 초현실적인 조명을 이용하여 보는 맛을 더했다. 성악진과 오케스트라의 밀도를 높여 착착 감기는 탄력감으로 밀고 나가는 메타의 지휘 역시 일품.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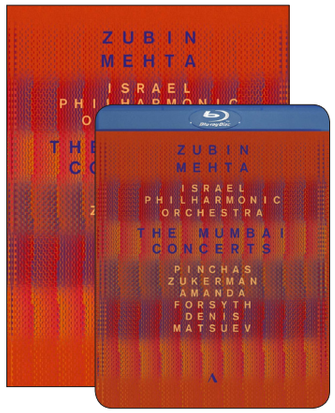
– 2016년 주빈 메타가 80살 생일 기념으로 8년 만에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으로 돌아와 지휘한 의미 있는 공연이다.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로부터 "공연은 음악적으로 꿈만 같았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 총독 리카르도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관이자 친구인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를 사랑한다. 상관과 아내의 관계를 알아차린 레나토를 자신이 밝혀내려던 음모에 오히려 자신이 가담하게 되고 결국 가면무도회에서 리카르도를 칼로 찌르나,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의 결백과 레나토의 사면을 선언하며 숨을 거둔다.

– '가면 무도회'는 베르디의 중기 작품으로, 그의 작품들 중 보기 드물게 '테너의 오페라'로 손꼽힌다. 리카르도 역을 맡은 테너 표트르 베찰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빛색깔과 선이 굵은 연기력으로 완벽한 리카르도를 구사한다.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파우스트'에서 타이틀롤을 기억하는 이라면 베찰나의 전성기에 더해질 이 영상물을 소장하기를 적극 권한다. 2014년 베르디 '운명의 힘'의 레오노라 역을 맡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열연을 펼치며 명성을 날렸던 아멜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야 하르테로스는 베르디 특유의 강렬함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 연출을 맡은 요하네스 에라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불륜과 음모,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초현실적인 무대 연출로 풀어낸다. 자막은 한국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오디오 옵션은 PCM 스테레오/DTS 5.1로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383 [DVD]
Accentus ACC10383 [Blu-ray]

2016 뭄바이 실황
– 베토벤(바이올린) · 브람스(바이올린 · 첼로) · 차이콥스키(피아노) 협주곡 외

주빈 메타(지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커스 주커만(바이올린), 아만다 포사이스(첼로),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주빈 메타 80세 기념공연. 거장은 크게 웃었다

뭄바이 국립공연예술센터의 2016년 4월 실황으로 뭄바이 태생인 메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이다. 카메라는 뭄바이 전경과 골목을 비추고, 공연에는 메타가 종신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이스라엘 필이 함께 한다. 이틀간의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오랫 시간 음악인생을 함께 해온 주커만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 이어 아내 포사이스와 함께 브람스 더블 콘체르토를 선물하고, 마추예프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으로 거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앙코르로 재즈풍의 즉흥연주를 선보여 메타의 얼굴에 웃음꽃을 안겨준다. 곡목은 메타가 특별히 사랑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1969년에 개관한 뭄바이의 랜드마크인 국립공연예술센터(NCPA)를 만나보는 것도 인도의 클래식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재미 중 하나다. 40쪽 분량의 두툼한 해설지(독 · 영 · 불어)가 수록되어 있다.

accentus music

[보조자료]

– 주빈 메타는 1936년 4월 29일,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뭄바이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할레 관현악단 부악장을 역임한 부친처럼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의사의 길을 접고 빈 국립음대에 더블베이스 전공으로 입학했고, 지휘까지 공부했다. 1958년 리버풀 국제 지휘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1978년에는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맡아 1991년까지 일했다.

– 이 영상물은 뭄바이 국립공연예술센터의 2016년 4월 실황으로 메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이다. 카메라는 뭄바이의 전경, 뭄바이 시내, 48미터 높이의 거대한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인도식 전통복장을 한 객석의 관객들을 통해 우리를 메타의 고향으로 안내한다. 80세 생일 기념 공연에는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함께 한다. 메타는 1969년 음악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후 종신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드보르자크 '카니발' 서곡 Op.92, 핀커스 주커만이 협연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Op.61, 라벨 '라 발스'와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이다. 다음날 선보인 2부는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으로 시작하여, 핀커스 주커만과 그의 아내인 아만다 포사이스가 함께 하는 브람스의 더블 콘체르토, 데니스 마추예프가 협연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로 이어진다. 자신과 인생을 함께 해온 오랜 지기 주커만과 존경심을 품은 후배 마추예프, 그리고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모든 곡이 한 무대에 올랐으니 최고의 생일잔치인 셈이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에서 물결치는 1악장은 마에스트로가 닦아온 세월과 나이 들어도 잃지 않는 품위를 대변하는 듯하다. 협연이 끝난 마추예프는 자신이 구성한 즉흥곡을 선사하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변신한다.

– 영상을 통해 뭄바이 최고의 음악당을 만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1969년에 개관 한 뭄바이 국립공연예술센터(NCPA)는 바다를 매립한 토지 위에 세워진 곳으로 뭄바이의 랜드마크 중 한 곳이다. 다섯 개의 극장으로 구성된 이곳은 음악을 비롯하여 연극 · 영화 · 무용 등을 포함하여 매년 600개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는 다목적 문화센터이며, 2006년에 창단된 인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다.

– 40쪽 분량의 두툼한 해설지(독 · 영 · 불어)에는 이 공연에 대한 의미와 의의가 담긴 글이 수록되어 있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81 [DVD]
Arthaus 109382 [Blu-ray]

버밍엄 레퍼토리 극단
– 전세계 연말 레퍼토리 뮤지컬 '스노우맨'

카스퍼 코르니쉬(스노우맨), 드류 맥커니(소년), 버밍엄 레퍼토리 극단

눈이 내리면 어린이들은 '스노우맨'을 기다린다!

1978년 레이먼드 브릭스의 동화로 태어나, 1993년 작곡 · 작사가 하워드 블레이크에 의해 공연으로 다시 태어난 '스노우맨'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말에 동심을 일깨우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주인공 어린이가 만든 눈사람과 함께 북극으로 날아가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하고 돌아온다는 줄거리다. 영상물은 85분 분량으로 배우들의 대사가 거의 없기에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즐겨 볼 수 있다. 대표곡인 'Walking in the Air'(12번 트랙/한글 자막)에서 스노우맨과 어린이가 무대 위의 달이 뜬 공중을 날며 북극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통해 이 작품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껴보자. 최상의 음질을 위해 PCM스테레오/DTS HD 5.0 선택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손쉽게 골라볼 수 있도록 20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다. 이 작품을 처음 초연한 영국 버밍엄 레퍼토리 극단이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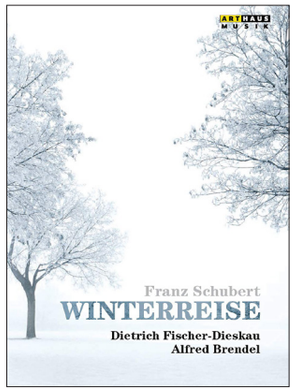
ARTHAUS MUSIK

[보조자료]

– 1978년 레이먼드 브릭스가 쓴 동화 '스노우맨'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82년 극작용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의 작곡과 작사를 맡았던 하워드 블레이크는 1993년에 영국 버밍엄 레퍼토리 시어터와 함께 '스노우맨'을 무대에 선보인다. 이후 '스노우맨'은 현지에서 16년간 장기 공연 되며 연말 흥행 1위를 차지하곤 했다. 어느 겨울의 눈 내린 아침, 소년은 눈사람을 만들고 모자와 목도리를 입혀준다. 그날 밤 눈사람이 추울까 봐 소년은 밖으로 나가는데, 놀랍게도 소년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는 스노우맨. 스노우맨은 소년의 집에 함께 들어와 오르골 속 발레리나를 깨우고, 장난감 병정과 술래잡기 놀이를 한다. 두 사람은 하늘을 날아 북극으로 가고 소년은 산타클로스, 펭귄, 순록, 카우보이 스노우맨, 인도 스노우맨 등과 축제를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날 아침, 소년은 스노우맨에게 달려가 보지만 그는 목도리와 모자만 남겨놓은 채 녹아 없어져 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소년의 머리 위로 조금씩 눈이 내린다.

– 전세계 연말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스노우맨'은 아이들의 상상과 신기한 장난감이 한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자주 비견되곤 한다. 이 영상물은 85분 분량으로 출연 배우들의 대사가 거의 없기에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즐겨 볼 수 있다. 주인공 어린이와 함께 하는 스노우맨은 동화책에서 갓 튀어 나온 듯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화와 공연물은 물론 '스노우맨'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진 'Walking in the Air'(12번 트랙/한글 자막)에서 스노우맨과 어린이가 무대 위의 달이 뜬 공중을 날며 북극으로 날아가는 장면은 어른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에 관객석의 어린이들은 모두 기립하여 스노우맨과 함께 춤추며 동심 극장은 막을 내린다.

– 가정용 홈시어터에서도 최고의 음질이 가능하도록 PCM스테레오/DTS HD 5.0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손쉽게 골라볼 수 있도록 20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다.



Arthaus 109317 [DVD]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알프레트 브렌델(피아노)

1979년 브렌델과의 겨울여행

수많은 콘서트와 녹음을 통해 슈베르트 연가곡 가수의 전형처럼 추앙 받았던, 피셔-디스카우가 54세 되던 해인 1979년에 남긴 영상이다. 1979년 1월 베를린의 지멘스빌라에서 녹취했다. 슈베르트 연가곡이라면 이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제럴드 무어와 최고의 녹음을 완성한 그였지만, 이 영상에서는 여섯 살 아래인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과 호흡하며 보다 원숙한 해석을 들려준다. 56분이나 되는 보너스 트랙에는 녹음에 앞서 그가 브렌델과 의견을 교환하며 한곡 한곡에 대해 치밀한 해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유로운 영상으로 담겼다. 어둑한 화면에서 위대한 두 음악가의 슈베르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귀중한 영상물로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

러닝타임: 73분/56분(보너스 트랙)

(구, Arthaus 107229와 동일 영상물)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5 [2DVDs]
BelAir BAC445 [Blu-ray]

2016 파리 가르니에 실황
– 차이콥스키 '욜란타' [한글자막] & '호두까기 인형'

알랭 알튀놀뤼(지휘), 파리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 · 발레단,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연출), 소냐 욘체바(욜란타), 아놀드 루트코프스키(보데몬), 알렉산더 심발루크(르네 왕), 마리(마리옹 바르보 · 발레), 스테판 블리옹(보데몬 · 발레)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욜란타'와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원래 한 묶음으로 공연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함께 초연(1892)되었지만, 오페라는 발레보다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두 작품이 함께 오른 2016년 3월의 파리 가르니에는 뜨거웠다. '욜란타'는 앞 못 보는 공주가 진정한 사랑 보데몬을 만나는 눈을 뜨는 해피엔딩의 오페라다. 연출을 맡은 체르니아코프는 오페라(90분)가 끝나고 눈을 뜬 욜란타가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 마리가 되게 하여 어린 시절에 느끼지 못한 동심에 대한 보상을 하고, 관객에게는 파리오페라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의 향연(90분)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 오페라 '욜란타'는 차이콥스키가 남긴 10편의 오페라 중 마지막 작품으로, 죽기 2년 전인 1892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원래 한 묶음으로 공연할 수 있는 단막 오페라와 2막짜리 발레작품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만든 작품으로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초연됐다. 이후 '호두까기 인형'의 유명세에 가려졌지만 러시아에선 자주 오르곤 한다.

– 러시아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욜란타'와 '호두까이 인형'을 파리오페라 시즌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삼았다. 이 영상은 2016년 3월 파리 가르니에 극장 실황이다.

– '욜란타'는 1막의 오페라다. 앞을 못 보는 공주 욜란타가 주인공. 그녀의 아버지 르네 왕은 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딸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욜란타와 결혼을 앞둔 로베르트는 이 사실을 모르며, 심지어 마틸다 백작 부인과 사랑에 빠져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로베르트의 친구 보데몬은 우연히 정원에 있는 욜란타를 보고 반하지만, 그녀가 장미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맹인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곧 사랑에 빠지고 욜란타는 보데몬으로 인해 자신이 맹인임을 알게 된다. 르네 왕은 욜란타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만든 보제몬을 증오하지만, 욜란타는 사랑의 힘으로 눈을 뜨고 보데몬과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다.

– 이 프로덕션의 묘미는 '욜란타' 다음에 있다. 90분의 오페라가 끝나고 눈을 뜬 욜란타는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 마리가 되어 어린 시절 느끼지 못했던 동심을 갖고 인형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90여분의 발레 향연을 펼친다.

– 최근 소니 레이블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불가리아 소프라노 소냐 욘체바는 욜란타 역을 맡아 다양한 표정과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와 함께 하는 아놀드 루트코프스키(보데몬 역)와 알렉산터 심발루크(르네 왕)도 러시아 오페라의 서정적 분위기를 한껏 드러낸다.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프랑스 출신의 알랭 알튀놀뤼의 지휘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을 거침 없이 끄집어낸다.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간판스타이자 수석인 마리옹 바르보가 마리 역을, 스테판 블리옹이 보데몬 역을 맡았다. 오페라와 발레,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180분이 행복하게 다가온다. 발레 장면은 여러 각도로 촬영되어 입체감을 더했다.

– 52분 분량의 보너스 필름(영어자막 제공)에는 이 작품의 제작과정과 연출가, 지휘자가 말하는 작품 이야기가 담겨 있다.

BelAir BAC619 [4DVDs]
BelAir BAC620 [4Blu-ray]

****발레 스테디 셀러 영상물!!!**

2013~16 볼쇼이극장 실황
– 볼쇼이 발레단의 '그레이트 발레' 시리즈(II)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라바야데르 · 백조의 호수), 데이비드 홀버그(마르코 스파다), 데니스 로드킨(백조의 호수), 니나 카프소바(골든 에이지),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전설은 끊임없이 볼쇼이에서 태어난다!

2018년 11월, 세기의 발레리나인 볼쇼이 발레의 수석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은 러시아 발레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염가판으로 발매된 이 컬렉션에는 볼쇼이 발레의 화제작이 된 '라 바야데르'(2013) '마르코 스파다'(2014) '백조의 호수'(2015) '골든 에이지'(2016)가 차례대로 들어가 있다. 이중 '마르코 스파다'와 '골든 에이지'는 국내에서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작품. 각 작품의 주역 발레리나 자하로바 · 카프소바, 발레리노 홀버그 · 로드킨과 차이콥스키 ·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4개의 영상 모두 볼쇼이 극장 특유의 섬세한 무대미술, 독무와 2인무 그리고 군무를 잡아내는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보는 재미와 소장 가치를 높인다. '마르코 스파다'의 보너스 영상(23분)을 통해선 볼쇼이 발레의 연습실, 연습장면도 볼 수 있다.

[보조자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례대로 선보인 볼쇼이 발레의 전설적인 무대와 그 실황이 벨에어 레이블을 통해 차례로 발매되며 전 세계 발레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이 컬렉션은 화제가 되었던 4종의 실황물을 한데 모아 염가판으로 발매한 것. 각 작품의 주역을 맡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 니나 카프소바, 발레리노 데이비드 홀버그 · 데니스 로드킨과 차이콥스키 ·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① 라 바야데르: 2013년 실황.**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니키야), 블라디슬라프 란트라토프(솔러), 마리아 알렉산드로바(감자티), 유리 그리고로비치(재안무), 파벨 소로킨(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 **② 마르코 스파다: 2014년 실황.**
데이비드 홀버그(스파다), 예프게냐 오브라츠소바(안젤라), 알렉세이 보고라드,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4개의 작품 중 상대적으로 낯선 '마르코 스파다'는 도적 마르코 스파다와 그의 딸 안젤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엮어 내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마르코 스파다는 총에 맞아 쓰러지지만 딸 안젤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물에는 '마르코 스파타와 볼쇼이발레단의 프랑스 발레'라는 제목의 보너스 트랙(23분 · 영어자막)이 붙어있다.

– **③ 백조의 호수: 2015년 실황.**
자하로바(오데트/오딜), 데니스 로드킨(지그프리트 왕자), 아르데미 벨랴코프(악마), 파벨 소로킨(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 **④ 골든 에이지: 2016년 실황.**
니나 카프소바(리타/젊은 여인), 루슬란 스크보르트소프(보리스/젊은 어부), 미하일 로부킨(야쉬카, 갱 두목), 파벨 클리니체프(지휘), 볼쇼이 극장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1923년경, 흑해 연안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 '골든 에이지(황금시대)'에서 무용수로 일하는 리타와 그 지역의 젊은 어부 보리스는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하지만 리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갱 두목 야쉬카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한다. 하지만 보리스와 젊은 어부들은 이들을 물리치고 리타와 보리스는 다시 사랑을 이어간다.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41 [DVD]
Belvedere BVE08042 [Blu-ray]

belvedere

2018 가슈타익홀 실황–얀손스의 75세 생일 기념공연 (스트라빈스키 '3개의 악장', 훔멜 트럼펫 협주곡, 베토벤 C장조 미사 Op.86)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마틴 앵거러(트럼펫), 제니아 쿠메이어(소프라노), 막스밀리언 슈미트(테너) 외

해피 버스데이! 얀손스의 75세 생일파티
1943년 1월 14일에 태어난 얀손스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으로, 생일 전인 2018년 1월 11 · 12일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이다. 스트라빈스키 '3개의 악장', 훔멜 트럼펫 협주곡, 베토벤 C장조 미사 Op.86이 담겨 있는 실황을 통해 지휘자와 악단이 함께 해온 15년의 시간이 느껴진다. 훈훈하다. 악단의 트럼펫수석 마틴 앵거러를 통해 BRSO가 자랑하는 금관의 위력도 맛볼 수 있다. 베토벤 미사 C장조는 후대의 걸작 '장엄미사'보다 과소평가되지만, 얀손스의 지휘는 숭고한 정신을 끌어내는 데에 손색이 없다. 모차르트 '레퀴엠'을 함께 한 쿠메이어부터 유럽의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이 얀손스의 탄생을 이 곡으로 축하해주고 있는 듯 하다.

[보조자료]

– 마리슨 얀손스는 1943년 1월 14일에 라트비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2018년 1월 11일과 12일, 뮌헨 가슈타익홀에 오른 이 공연은 얀손스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으로 스트라빈스키 '3개의 악장', 훔멜 트럼펫 협주곡, 베토벤 C장조 미사 Op.86이 담겨 있다.

– 슈바로브스키, 카라얀, 므라빈스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얀손스는 1973년 레닌그라드 필의 부지휘자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레닌그라드 필의 주요 포스트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03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의 수석지휘자를, 이듬해인 2004년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의 수석지휘자(~2015)에 부임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전용 레이블인 'BR Klassik'을 통해 베토벤 사이클에 이어 드보르자크, 브루크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반녹음을 통해 '얀손스 일가'를 이뤄나가고 있다.

–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얀손스와 악단이 함께 해온 15년의 시간과 희로애락이 스쳐지나가는 듯하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트럼펫 수석 마틴 앵거러가 훔멜 트럼펫 협주곡에서 감미로운 소리를 선사한다. 악단이 자랑하는 금관의 위력이 돋보이는 순간이기도 하다.

– 베토벤 미사 C장조 Op.86은 후대의 걸작인 '장엄미사'보다 16년 전인 1807년에 완성되어 후원자인 스키후작에게 헌정된 작품. '장엄미사'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얀손스의 지휘봉은 베토벤의 숭고한 정신을 끌어내는 데에 손색이 없다.

– 얀손스와 모차르트 '레퀴엠'을 함께 했던 제니아 쿠메이어(소프라노)를 비롯하여 게힐트 롬베르커(메조소프라노), 막스밀리언 슈미트(테너), 루카 피사로니(베이스–바리톤, 토마슨 햄슨의 사위로 유명하다)가 함께 한다.

Belvedere BVE08033 **[DVD]**

1991~92 예술실험영화 – 아힘 프라이어의 '메타모르포젠'

아힘 프라이어(연출 · 디자인 · 의상), 크리스토프 포펜(바이올린), 이본 로리오(피아노)

그는 왜 괴이한 인형들을 성악가들에게 입혔을까?

동심과 그로테스크함이 한데 버무려진 기법으로 세계 오페라계를 매번 놀라게 하는 아힘 프라이어(1934~)는 1991~92년에 예술영화 제작에 한창 매진했는데, 당시의 그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영상자료다. 살바르도 달리의 그림 같은 초현실주의적 감각의 화면, 프라이어 특유의 캐릭터들(14명)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출연진, 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복장과 에너지, 심오한 분위기의 시구와 나레이션, 크리스토프 포펜(바이올린)과 전설적인 여성 피아니스트 이본 로리오(1924~2010) 등이 연주하는 '세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메시앙), '그로시엔느'(사티), 연극음악 '메타모르포젠'(디터 슈네벨)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다.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요 없다. 이러한 전위적 영상예술을 허용한 유럽예술계의 풍토에 놀랄 뿐이며, 21세기의 예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보조자료]

– 노장이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오페라 무대를 보여주며, 괴이한 인형을 연상시키는 분장과 배우들의 움직임, 조명과 의상으로 세계 오페라 무대에 거장으로 우뚝 선 독일의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1934~)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그의 나이 57세와 58세 때에 영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출하는 데에 한창 매진했다. 그 결과 '모타모르포젠'과 '청색으로의 여행'의 감독과 촬영을 맡았다. 그중 '메타모르포젠'은 예술영화로 그 해를 기점으로 열린 베를린, 뮌헨 등의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그가 미래적 종합예술을 지향하며 결성한 '프라이어–앙상블'을 이끌던 때였다. 이 영상물은 유럽 현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아카이브 자료이다.

– '메타모르포젠'은 그의 혁신적인 에너지가 응집된 작품이다. 영상에는 아힘 프라이어 특유의 초현실적인 복장을 한 캐릭터들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출연한다. 마치 그가 지금까지 오페라에 등장시킨, 그리고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향후 등장시킬 캐릭터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캐릭터 백과사전' 같다.

– 프라이어는 생명체마다 존재하는 내면의 욕망을 복장과 소품, 의상 디자인으로 표상화하고 표현한다. 등장인물들은 특정 의지나 서사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음악과 움직이는 화면은 마치 살바르도 달리의 화폭처럼 초현실적인 기운이 잔뜩 녹아들어 있다. 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복장을 한 인물들의 움직임에는 그 어떤 의미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현대예술이다. 하지만 골똘히 보는 가운데 아힘 프라이어만의 그로테스크한 오페라 연출의 힘과 그 비주얼적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원류가 느껴진다.

– 영상에는 시적인 나레이션과 함께 메시앙의 '세상의 종말을 위한 4중주', 에릭 사티의 '여섯 개의 그노시엔느' 중 발췌된 음악이 흐른다. 이제는 20세기 음악사의 고전이 된 이 작품들과 함께 독일 작곡가 디터 슈네벨(1930~2018)의 연극음악 '메타모르포젠'에서 발췌한 음악도 만날 수 있다. 클라라 주미 강, 노부스 콰르텟 등 걸출한 한국인 음악가들을 배출해낸 명스승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리스토프 포펜, 마니아들의 세계에 알려진 전설적인 여성 피아니스트 이본 로리오(1924~2010) 등이 연주에 참여하고 있다. 해설지(26쪽/독 · 영어)에는 작품의 이해를 돕는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 벨베데레(belvedere)사는 유럽 연극계에 불고 있는 유행과 실험의 트렌드를 담은 공연들을 선별하여 영상물 시리즈('DIE THEATER EDITION')로 내놓고 있다. 오늘날 오페라에서 새로운 실험을 행하는 연출가들은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페라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긴 연출가의 연극이나 무용 무대가 궁금하며, 향후 오페라에 새로운 변화를 입힐 연출가가 현재 어떤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리즈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미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Belvedere BVE08040 **[DVD]**

2017 뮌헨 레지던츠극장 – 프리드리히 쉴러의 연극 '군도'

프리드리히 쉴러(대본), 울리히 라셰(연출), 고츠 슐테(모르 역), 프란츠 푀촐트(카를 모르 역), 카트야 뷔클(프란츠 모르 역), 토마스 레토우(슈피겔베르크 역)

연극과 현대음악으로 유럽 최첨단 연출가의 현주소를 말하다

벨베데레(belvedere)사의 'DIE THEATER EDITION' 시리즈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유럽 극장들의 최신 연출 경향이 담긴 영상물로, 2017년 뮌헨 레지던츠극장이 선보인 연극 '군도'이다. 독일의 국보급 작가 실러(1759~1805)의 '군도'는 1782년, 그의 출세작으로 정의감 넘치는 한 인간이 사회의 악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고 범죄자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170분 동안 배우들은 거대한 러닝머신을 끝없이 걷는다. 울리히 라셰의 연출은 그들에게 정제된 움직임만을 허용할 뿐이며 함께 하는 앙상블의 현대음악은 대사와 막간에 어우러지며 격앙된 감정을 불어 넣는다. 이 영상물에서 무대 전환과정도 흥미로운 영상예술이 된다(7번 트랙). 해설지(22쪽 분량)에는 이해를 돕는 해설(독일어)과 화보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벨베데레(belvedere)사는 유럽 연극계에 불고 있는 유행과 실험의 트렌드를 담은 공연들을 선별하여 영상물 시리즈('DIE THEATER EDITION')로 내놓고 있다. 오늘날 오페라에서 새로운 실험을 행하는 연출가들은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페라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긴 연출가의 연극이나 무용 무대가 궁금하며, 향후 오페라에 새로운 변화를 입힐 연출가가 현재 어떤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리즈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미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 이 영상물은 독일이 자랑하는 국보급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1759~1805)의 연극 '군도' 공연을 담은 것이다. 2017년 독일 뮌헨에 위치한 레지덴츠극장은 이 공연을 통해 쉴러를 재조명했고, 연출가 울리히 라셰의 거대한 파워를 만방에 알렸다.

– 실러는 학생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는 가운데 자유를 갈망했고, 몰래 문학 작품을 탐독하며 습작을 했다. 그러던 중 철학교수 아벨의 권유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며 충격을 받은 그는 자비로 출판한 첫 작품 '군도'에 독일 귀족 계급의 횡포에 대한 반항을 담았다. 이 작품은 1782년 1월 13일 독일 만하임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되며 실러는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 '군도'는 국내에 '떼도적' '도적들' 등의 이름으로 유명 극단에 의해 공연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정의감 넘치는 한 인간이 사회의 악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고 범죄자가 되어가는지를 빼어난 시적 대사와 풍성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아버지 모르(고츠 슐테)의 총애를 받던 큰아들 칼(프란츠 푀촐트)이 동생 프란츠(카트야 뷔클)의 음모로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다 친구 슈피겔베르크(토마스 레토우)를 만나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적떼를 조직하나 이상과 달리 약탈과 폭력만 일삼다 좌절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과 함께 '빌헬름 텔'(1804)이 쉴러의 대표작이다.

– 2시간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들은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러닝머신을 하염없이 걸으면 극을 진행한다. 연출을 맡은 울리히 라셰는 계속 걷는 배우들에게 정제된 움직임만을 허용한다. 거대한 기계는 결국 주인공들을 움직이는 세상과 체계 자체를 상징하는듯 하다.

– 무대의 앞 옆으로는 두 개의 음악 앙상블이 존재한다. 테너, 베이스바리톤, 베이스바리톤,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타악기로 구성된 앙상블은 대사와 대사 사이, 막과 막 사이에 격앙된 감정을 불어 넣는다. 특히 막의 전환을 위해 거대한 러닝머신이 자리 배치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하는데(7번 트랙), 이 장면을 통해 무대미술 자체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연극과 함께 하는 음악 자체만 놓고 보아도 현대음악적인 완성도가 높다. 독일의 고전을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고픈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해설지(22쪽 분량)는 이해를 돕는 해설(독일어)과 화보가 담겨 있다.

Belvedere BVE08052 **[DVD]**
Belvedere BVE08053 **[Blu-ray]**

2018 라스칼라 실황
– 글룩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774 파리 버전)

미칼레 마리오티(지휘),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오르페오),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에우리디체), 파트마 사이드(아모르), 호페쉬 쉑터 무용단

새로운 무대. 1층의 성악가, 2층의 오케스트라

1762년 빈 초연 이후 1774년 파리 버전은 제목과 가사가 프랑스어로 변경되었고, 오케스트라의 표현 증가, 카스트라토에서 하이 테너로의 변경, 무용 부분이 추가되었다. 2018년 3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실황으로 1774년 버전이다. 테너 디에고 플로레즈가 활약하며, 무용은 호페쉬 쉑터 무용단의 현대무용이 자리를 차지한다. 오케스트라의 피트를 높여 2층으로, 성악가와 무용수들이 활약하는 1층 구조로 많은 수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무대에 직접 노출하여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비중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는지를 무대공간이 잘 대변한다. 발레리라를 연상시키는 카르크(에우리디체), 파격미를 온몸으로 체현하는 사이드(아모르)도 눈여겨 보게 된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작품의 판본 비교,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1762년 빈 궁정극장에서 초연되었고, 1774년 파리 공연을 위해 수정되었다. 파리 공연을 위해 제목도 프랑스어인 'Orphée et Eurydice'라고 고쳤고, 이탈리아어 대본을 피에르 루이 몰랭이 프랑스어로 바꾸었다.

– 글룩은 어떤 부분에서는 음악을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쓰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르페오의 역을 카스트라토에서 하이 테너로 변경했다는 것과 오케스트라의 표현이 더욱 섬세해지고 세련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버전은 프랑스인들의 기호에 맞게 발레 부분을 확장하여 작품 내 '복수의 여신들의 춤'과 '축복 받은 정령들의 춤'이 삽입되었다.

– 2018년 3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 오른 이 공연은 1774년 버전이다. 카스트라토에서 테너의 바뀐 그 자리에는 후안 디에코 플로체츠가, 파리로 가면서 많아진 무용 부분에는 현대무용의 대가 호페쉬 쉑터 컴퍼니가 자리한다. 파리 버전은 초판보다 오케스트라의 활약과 기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섬세해졌는데, 1979년 이탈리아 태생의 미켈레 마리오티가 지휘봉을 잡아 이러한 음악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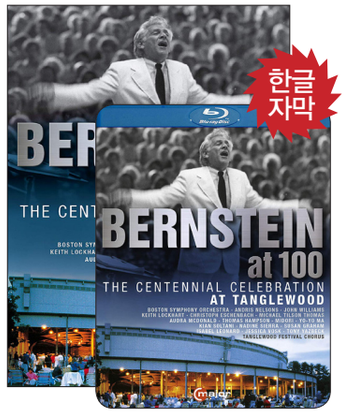
– 무대(영상)가 시작되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비중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는지 독특한 무대공간 연출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오케스트라의 피트를 사람 높이 만큼 올려놓은 무대에 악단이 위치하고, 성악가와 무용수들은 1층에서 노래와 연기를 선보인다. 즉 2단으로 구성되어 위와 아래를 나누는 구조이다.

– 프로덕션의 명성은 이미 디에고가 대변하고 있지만 무대 위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에우리디체 역)의 매력도가 높다.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청초한 마스크와 비극성을 대변하는 슬픔에 찬 음성이 매력적이다. 아모르 역의 파트마 사이드도 눈여겨 볼 것. 카르크와 사이드는 라 스칼라 아카데미 출신으로 카르크가 라 스칼라에 흐르는 전통을 대변한다면, 사이드는 파격미를 온몸으로 체현해낸다.

–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작품의 판본 비교,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7608 **[DVD]**
C Major 747704 **[Blu-ray]**

major ENTERTAINMENT GMBH

** 주목할 만한 특별한 영상물!!!

2018 탱글우드 음악제 실황
–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안드리스 넬손스, 마이클 틸슨 토마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키스 록하트(지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도리(바이올린), 요요마.키안 솔타니(첼로), 나딘 시에라(소프라노), 토마스 햄슨(바리톤) 외

전세계의 음악가들이 번스타인을 '부활'시키다

1940년에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 쿠세비츠키가 세운 탱글우드 음악제는 오자와 세이지 시절에 그의 스승이었던 번스타인을 초빙하여 축제의 수준을 높여갔다. 이 영상물은 2018년 8월 25일 탱글우드 음악제에서 선보인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번스타인의 ①'캔디드' 서곡(넬손스) ②'페드루스' 세레나데(에센바흐/미도리) ③교향곡 3번 '카디쉬 II '(록하트/나딘 시에라) ④'미사'(에센바흐/키안 솔타니) ⑤'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마이클 토마스) ⑥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넬손스/토마스 햄슨) ⑦코플런드 '애팔래치아의 봄'(마이클 토마스) ⑧존 윌리엄스 '하이우드의 유령'(존 윌리엄스/요요 마/제시카 주) ⑨말러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축약본, 넬손스)이 수록되어 있다. 보너스 트랙으로 탱글우드의 역사를 담은 'Full Circle'과 유명음악가들이 기억하는 번스타인의 추억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해설지(35쪽 분량/영 • 독어)에는 '번스타인과 버크셔'론과 음악해설 등이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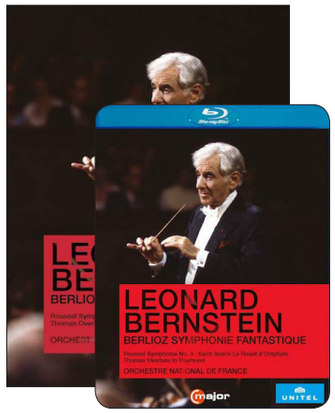
[보조자료]

– 탱글우드음악제는 보스턴 심포니가 중심이 되어 야외 콘서트와 전세계 음악가들의 네트워크 공연, 그리고 여름음악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모든 것은 탱글우드 음악센터가 운영한다. 이 센터의 전신은 1940년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 쿠세비츠키가 세운 버크셔 음악센터. 3년 후 샤를 뮌슈가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이 된 후, 음악센터는 탱글우드의 이름을 달고 이 악단의 여름본부 격이 되었고 뮌슈는 헌신하여 이 축제를 성장시켰다. 이후 에리히 라인스돌프, 오자와 세이지가 악단의 음악감독 겸 탱글우드의 감독을 맡았다. 특히 오자와는 번스타인을 총 자문으로 초빙하여 이 축제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8월 25일 탱글우드 음악제에서 선보인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이다. 안드리스 넬손스가 음악감독이 되어 선두 지휘한 이날의 공연은 보스턴 심포니가 중심이 되어 번스타인이 작곡한 ①'캔디드' 서곡(넬손스), ②'페드루스' 세레나데(에센바흐, 미도리), ③교향곡 3번 '카디쉬 II '(키스 록하트, 나딘 시에라), ④'미사'(에센바흐, 키안 솔타니), ⑤'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마이클 토마스, 이자벨 레오나르드, 제시카 보스크, 토니 야베크)를 선보인다. 그리고 ⑥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넬손스, 토마스 햄슨), ⑦코플런드 '애팔래치아의 봄'(마이클 토마스), ⑧존 윌리엄스 '하이우드의 유령'(존 윌리엄스, 요요 마, 제시카 주), ⑨말러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넬손스), ⑩번스타인 '썸웨어'(넬손스, 아두라 맥도날드)를 들려준다.

– 흰색 상의를 입은 보스턴 심포니의 시원한 연주 장면과 함께, 젊은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④)의 연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뮤지컬 공연을 연상시키는 콘서트(⑤), 요요마의 첼로와 제시카 주오의 하프가 빚는 중국음악가들의 힘(⑧), 탱글우드의 숲에서 들여오는 금관 사운드와 함께 신비로움을 이끌어내는 추모곡 으로서의 말러의 '부활'은 발췌하여 20분간 진행(⑨)된다.

– 보너스 트랙에는 두 개의 영상이 담겨 있다. (1)'Full Circle:번스타인과 탱글우드'는 탱글우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며, (2)는 이번 공연에 참가했던 넬손스, 요요 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외 두다멜, 마린 알솝,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기억하는 번스타인에 관한 추억을 들을 수 있다. 해설지(35쪽 분량/영 • 독어) 트랙, 보스턴 심포니 단원 명단, '번스타인과 버크셔', 음악해설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6808 [DVD]
C Major 746904 [Blu-ray]

1976/1981 번스타인 파리실황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알베르 루셀 · 생상 · 앙브루아즈 토마 관현악곡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파리 국립오케스트라

봉주르, 파리지앵 번스타인!

1976년은 번스타인이 수염을 기르며 EMI와 프랑스를 거점으로 명반들을 내놓을 때이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과 '이탈리아의 헤롤드', 로스트로포비치와의 슈만 첼로 협주곡 등이 대표적이다. 이 영상물은 번스타인(1918~90)의 미공개 영상으로 샹젤리제의 '환상 교향곡'(1976실황), 루셀 · 생상 · 앙브루아즈 토마의 관현악곡(1981실황)이 담겨 있다. '환상 교향곡'을 지휘하는 그의 수염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루셀, 생상, 토마의 작품을 지휘자는 그의 몸짓으로부터 파리의 자유와 감각이 묻어나온다. 같은 레이블의 번스타인 100주년 기념시리즈 '트리스탄과 이졸데'(1981), 하이든 교향곡 선집(1984/85), '독일 슐레스비치 홀슈타인 음악제의 번스타인'(1988/다큐)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귀한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수염을 기르고 셔츠의 단추를 풀어헤친 헤밍웨이를 연상시키는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의 모습은 익숙하지만, 수염을 기르고 지휘대에 오른 모습은 약간 생소하다. CBS에서 녹음하다가 DG로 넘어가기 전인 1976년, 번스타인이 수염을 기르던 이 시기에 EMI와 프랑스에서 녹음한 음반들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많은 마니아들은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과 '이탈리아의 헤롤드', 미요의 관현악, 로스트로포비치와의 슈만 첼로 협주곡, 블로흐의 '셀로모' 등이다.

– 번스타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18년, 번스타인의 미공개 영상들이 출시되어 '레니'(번스타인 애칭)의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 이 영상물도 그 일환으로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 샹제리제극장의 1976년 실황인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같은 극장 1981년 실황으로 프랑스 작곡가 알베르 루셀(1869~1937)의 교향곡 3번, 생상 교향시 '옹팔의 물레', 앙브루아즈 토마(1811~1896) '레이몬드 서곡'이다.

– 수염을 기르고 포디움에 선 번스타인. 1976년 공연된 '환상 교향곡' 영상은 정식으로 발매된 적은 없고, 당시의 방송국 필름이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EMI 등에서 발매된 음반으로만 접해온 마니아들을 단번에 충족시킨다.

– 파리 국립오케스트라는 1981년 번스타인과 재회하여 자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알베르 루셀의 교향곡 3번은 4악장 구성으로 번스타인의 지휘봉은 세련된 박자감과 도시적 감수성이 돋보이도록 하며, 생상은 몽환적으로, 토마의 '레이몬드 서곡'은 화려한 팡파레처럼 그려낸다. 특히 토마의 작품을 지휘하는 그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어깨를 들썩거리는 번스타인표 지휘를 구사한다. 파리의 자유와 예술의 물결이 그의 몸짓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 같은 레이블(Cmajor)에서 번스타인 100주년을 위해 내놓은 1981년 '트리스탄과 이졸데'(746208), 1984/85년 하이든 교향곡 선집(746504), 1988년 다큐멘터리 '독일 슐레스비치 홀슈타인 음악제의 번스타인'(746704)과 함께 소장하여 번스타인 미공개 영상 아카이브를 가져보도록.

C Major 745608 [DVD]
C Major 745704 [Blu-ray]

2016 파르네제극장 실황
– 베르디 '조반나 다르코'

피터 그리너웨이 · 사스키아 보데크(연출), 라몬 테바르(지휘),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파르마극장 합창단, 비토리아 여(여지원/조반나), 루치아노 간치(카를로왕), 비토리오 비텔리(지아코모), 가브리엘레 만지오네(델리) 외

영화처럼 편집한 영상 속을 무티를 감탄시킨 여지원이 누빈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그린 베르디 '조반나 다르코'로 2016년 10월, 이탈리아 파르네제극장의 베르디 페스티벌 실황이다. 조반나 역에는 무티에게 발탁되었던 여지원(소프라노). 국내에는 그녀의 활약상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그녀의 진가를 만날 수 있다. 영화팬이라면 피터 그리너웨이의 연출이라는 것도 잊지 말 것. 무엇보다 실황을 그대로 담은 영상물이 아니라, 화면을 2~6등분하여 극장의 전경/부분, 합창단/성악가들의 미세한 표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만날 수 있도록 2차 편집을 거쳤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극장에서 실제로 보았다면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오직 이 영상물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게 한 셈이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파르네제 극장의 베르디페스티벌, 작품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그린 베르디의 '조반나 다르코'로 2016년 10월, 이탈리아 파르네제 극장 실황 영상이다. 매력 지점이 너무 많은 영상물이다.

– 먼저, 조반나 역에는 소프라노 여지원이다. 여지원(비토리아 여)은 2013년 라베나 오페라 페스티벌의 '맥베스' 오디션에서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된 이래, 2015년 잘츠부르크의 베르디 '에르나니'의 주역 엘비라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 이외 영화감독 피터 그리너웨이가 연출을 맡았고, 2차 편집을 거쳐 있는 그대로의 실황이 아니라, 한편의 영화 같은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실황물이다.

– '조반나 다르코'는 쉴러의 희곡 '오를레앙의 처녀'로부터 영향을 받은 3막의 작품이다. 영국-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할 무렵, 오를레앙의 처녀 조반나는 간절한 기도로 적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한다. 조반나는 카를로왕을 도와 프랑스를 승리로 이끄나, 그녀의 아버지 자코모는 이를 악마와 거래한 것으로 오해하고 딸을 마녀로 고발한다. 결국 아버지와의 오해는 풀리고, 카를로와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영상물은 시작부에서 파르네제 극장의 전경과 구석구석을 보여준다. 1617년부터 2년에 걸쳐 필로타 궁전 2층의 병기고를 개조해 만든 목조 극장이다. 운동장 같은 반타원형의 객석 배치도 독특하다. 현재는 테아트로 올림피코, 사비오네타의 테아트로 알 안티카와 함께 현존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극장으로 알려져 있다.

– 연출을 맡은 영국 영화감독 피터 그리너웨이(1942~)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1989)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 사스키아 보데크는 르네상스풍 목조 극장 내벽에 첨단의 이미지를 영사하여 3차원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 무엇보다 이 영상물의 특징이라면 실황을 그대로 담은 게 아니라, 2차 영상편집을 거쳤다는 점이다. 화면을 2~6등분하여 극장의 전경과 부분, 합창단과 성악가들의 미세한 표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극장에서 실제로 보았다면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오직 이 영상물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게 했다.

–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파르네제 극장의 베르디 페스티벌, 작품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7908 [2DVDs]
C Major 748004 [Blu-ray]

2017 프랑크푸르트극장 실황
– 헨델 '세르세'

틸만 쾰러(연출), 콘스탄티노스 카르디스(지휘), 프랑크푸르트 극장 오케스트라, 가엘르 아르퀘즈(세르세), 타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아마스트레), 로렌스 차초(아르사메네), 루이즈 알더(아탈란타) 외

헨델을 깨우는 아르퀘즈의 목소리, 카르디스의 지휘

2017년 1월,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 실황. 틸만 쾰러(연출)는 3막 구성(180분)의 무대에 화려한 변화와 흐름을 일으키기 보다는 연회석상, 몇 개의 의자, 창문 등의 간단한 디자인으로 동생의 여인을 탐한, 하지만 끝내 자신의 여인으로 귀화하는 세르세 왕의 복잡한 심리를 묘사한다. 타이틀롤을 맡아 바지역할을 맡은 아르퀘즈(메조)가 선사하는 '나무 그늘이여(6트랙)', 세르세의 동생 아르사메네 역의 로렌스 차초(카운터테너)가 부르는 '네게 사랑의 고통을 주고'(54트랙)에 주목하길. 역사주의적 고증과 21세기적 음향 감각을 상생시키는 카르디스의 지휘도 헨델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설지(17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 프로덕션 특징 · 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헨델(1685~1759)이 1738년에 작곡한 오페라 '세르세'는 일명 '헨델의 라르고'라 불리는 아리아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가 삽입된 작품으로 유명하다. 메조소프라노가 남성 왕인 세르세를 맡아 바지역할로 출연하며, 카운터테너들도 등장한다.

– 로밀다의 노랫소리에 반한 페르시아왕 세르세는 약혼녀 아마스토레를 외면한다. 그러나 로밀다는 세르세의 동생 아르사메네를 사랑하고 있어 세르세의 구애를 거절한다. 세르세왕은 동생을 국외로 추방하려 한다. 이에 아마스토레는 절망하여 자살을 기도하고, 언니와 마찬가지로 아르사메네를 사랑하고 있던 로밀다의 동생 아타란타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에 아탈란타가 계략을 써서 아르사메네와 로밀다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나 진실이 밝혀져 둘은 결혼하게 되고 결국 세르세 왕은 야심을 꺾고 아마스토레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 이 영상물은 2017년 1월,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 실황이다. 연출가 틸만 쾰러는 현대적 배경으로 무대를 채색한다. 3막 구성의 180분의 러닝타임이지만 무대의 변화와 흐름은 화려하지 않다. 1막과 2막에는 중앙에 설치된 왕의 연회석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3막은 네 개의 의자와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드리워진 창문으로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상징화한다. 무대의 활용을 아끼는 대신 오케스트라피트 앞으로 통로를 냈고, 객석의 여러 지점과 무대 양 옆 등을 제3의 무대로 적극 활용한다. 여백이 많은 무대를 채우는 영상도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 타이틀롤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가엘르 아르퀘즈는 턱시도 차림으로 세르세 왕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훌륭하게 연기해낸다. 공연 이후 '프랑크푸르트 룬튜사우'지로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평을 받은 그녀는 비발디 · 헨델의 스페셜리스트이자, 프랑크푸르트와 브레겐츠에서 카르멘 역으로 관객을 녹인 끼의 소유자.

– 세르세가 부르는 '나무 그늘이여(6트랙)'이 아르퀘즈의 아우라를 보여준다면, 세르세의 동생 아르사메네 역의 카운터테너 로렌스 차초도 이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세기의 카운터테너이다. 특히 '네게 사랑의 고통을 주고'(54트랙)에 주목하길.

– 콘스탄티노스 카르디스의 지휘는 인상적이다. 그리스 태생으로, 일찍이 켄트 나가노와 얀손스의 눈에 띄었던 그는 시대악기를 통한 역사주의적 고증과 21세기적 음향 감각을 상생시키며 헨델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설지(17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배치, 프랑크푸르트 극장 프로덕션의 특징, 줄거리가 담겨 있다.

C Major 748108 [DVD]
C Major 748204 [Blu-ray]

2018 토리노 레지오극장 실황
– 푸치니 '투란도트'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지휘), 레지오 토리노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스테파노 포다(연출), 레베카 로카르(투란도트), 호르헤 데 레온(칼라프), 에리케 그리말디(류), 심인성(티무르) 외

이보다 더 냉혹한 투란도트는 없을 것이다

국립오페라단의 '안드레아 셰니에(2015)'와 '보리스 고두노프(2017)'의 연출을 맡았던 스테파노 포다가 낳은 화제의 프로덕션으로 2018년 1월 토리노 레지오극장 실황이다. 이 영상은 국내에 상영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충격적인 미장센에 있다. 동양의 색을 훌훌 던져버린 단색조의 무대와 반나체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군무. 단단히 균형 잡힌 성악진의 캐스팅은 이 프로덕션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다. 로카르(투란도트)는 냉혹함을 잃지 않으며, 호르헤 데 레온(칼라프)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심인성(티무르)의 활약을 만날 수도 있다. 푸치니의 속을 궤 뚫고 있는 노세다의 지휘는 작품에 흐르는 긴장감과 성난 사운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보조자료]

– 1926년 4월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투란도트'의 초연을 맡았던 토스카니니는 류의 죽음 이후 연주를 중단하고 관객들을 향해 숙연하게 "푸치니 선생은 여기까지 작곡하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공연을 마쳤다. 2018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 레지오 극장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푸치니가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막을 내리는 푸치니 오리지널 버전이다.

– 연출을 맡은 스테파노 포다는 국립오페라단을 통해 2015년 '안드레아 셰니에', 2017년 '보리스 고두노프'를 선보인 바 있다. 두 작품 모두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작이었고, 스테파노 포다의 색을 확실히 보여준 작품이었다.

– 2018년 8월 국내 영화관을 통해 상영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왜 화제작이자 문제작이 되었는지 충격적인 미장센이 바로 답을 해준다. 합창단 대신 반나체의 무용수들이 군무를 선보이고, 모든 공간은 투란도트의 마음처럼 창백하고 그 어떤 색도 품고 있지 않다. 그간 중국을 대표하는 화려하고 동양적인 색채와 달리 오로지 투란도트의 내면의 색을 상징화할 뿐이다. 이 영상물의 묘미는 투란도트가 지닌 권력을 나타내는 포다 연출 특유의 시각화다. 특히 검은 옷을 입은 투란도트의 분신들이 흰 옷을 입은 류를 에워싸고 고문하는 장면에 이르면 투란도트의 횡포는 절정에 달한다.

– 무용수들의 섬뜩한 표정과 반나체의 움직임이 무대를 장악하지만, 무엇보다 균형 잡힌 캐스팅이 이루는 소리의 균형감이 귀를 황홀하게 한다. 칼라프 왕자는 노련미가 흐르는 테너 호르헤 데 레온이 맡았고, 류 역은 빛나는 신예 에리케 그리말디가 맡아 무대에 흐르는 목소리를 다채롭게 한다. 여기에 티무르 역의 베이스 심인성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그는 빈 국립오페라극장의 전속가수로 활동 후 현재 유럽 무대 곳곳을 누비고 있다. 푸치니의 속을 궤 뚫고 있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의 지휘는 작품에 흐르는 긴장감과 성난 사운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C Major 801208 [2DVDs]
C Major 801304 [Blu-ray]

2017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실황 – 존 크랑코 '오네긴'

존 크랑코(안무), 유겐 로제(디자인), 제임스 터글(지휘),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프리드만 보겔(오네긴), 알리시아 아마트리아인(타티아나), 다비드 무어(렌스키) 등

존 크랑코가 세운 발레 전통을 되새기다

1965년 작 '오네긴'은 존 크랑코의 '로미오와 줄리엣'(1962), '말괄량이 길들이기'(1969)와 함께 그의 전성기인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영상물은 2017년 11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의 공연 실황이다. 보겔(오네긴)과 아마트리아인(타티아나)은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이자 부부이기도 하다. 크랑코 특유의 파드되(2인무) 예술이 절정을 이룬 작품이 '오네긴'이라는 점에서 두 무용수의 호흡은 그 어떤 무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사랑의 호흡을 보여준다. 1961년부터 그랑코 작품의 디자인을 담당한 유겐 로제의 고전주의적 감각, 1984년부터 음악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임스 터글의 지휘와 춤의 깔끔한 싱크로율이 빛난다. 해설지(37쪽 분량/영 · 독 · 불어)가 수록되었으며, 보너스 트랙(102분/영 · 독어자막)에는 유겐 로제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공개 인터뷰를 통해 그랑코의 예술세계를 회상한다.

[보조자료]

– 푸시킨의 걸작 '에브게니 오네긴'의 오네긴과 순진한 처녀 타티아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존 크랑코(1927~1973)의 드라마발레 '오네긴'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 발레 '오네긴'이 나온 때는 1965년. 이 작품이 발표되던 1960년대는 존 크랑코의 전성기였다. 그는 이 시기에 훗날 드라마발레 3부작으로 자리를 잡는 '로미오와 줄리엣'(1962), '말괄량이 길들이기'(1969)를 연달아 내놓았다.

– 특히 '오네긴'은 연극과 무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크랑코를 불멸의 안무가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댄스 매거진'의 편집장을 역임한 미국의 무용 평론가 존 그루엔은 이 작품에 대해 "20세기 드라마 발레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크랑코의 권유로 안무가가 된 케네스 맥밀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그의 지도 아래 안무가로서 성장한 존 노이마이어는 크랑코의 영향으로 각각 '마농'과 '까멜리아 레이디' 같은 드라마 발레의 수작을 내놓기도 했다.

– 이 영상물은 2017년 11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의 공연 실황이다. 공연의 재미 중 하나는 오네긴 역의 발레리노 프리드만 보겔(1979~)과 타티아나 역의 발레리나 알리시아 아마트리아인(1980~)이 발레단을 대표하는 수석무용수이자 부부라는 점이다. 크랑코 특유의 파드되(2인무) 예술이 절정을 이룬 작품이 '오네긴'이라는 점에서 두 무용수의 호흡은 그 어떤 무대나 영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랑의 묘미를 선사한다.

– 1961년부터 슈투트가르트 발레에서 그랑코 작품의 디자인을 담당해온 유겐 로제의 디자인에서 그랑코 특유의 묵직하고도 고풍스러운 고전주의적 감각이 돋보인다.

– 음악을 좋아하는 이라면 제임스 터글의 지휘와 음악도 주목할 것. 1984년부터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음악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존 그랑코 작품에 흐르는 음악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궤 뚫고 있는 듯 하며, 차이콥스키 음악에 녹아 있는 발라드적 감각과 애수 띤 선율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발레와 음악의 빛나고도 깔끔한 싱크로율도 이 작품이 선사하는 매력 중 하나다.

– 결론적으로 이 영상물은 그랑코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오며, 그의 예술세계를 깊이 호흡해온 측근들이 빚은 걸작이라는 점이다. 해설지(37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시놉시스, 발레단, 안무가 소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너스 트랙(102분)에는 그간 그랑코와 함께 해온 유겐 로제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심도 깊은 공개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803 [2DVDs]
Dynamic 57803 [Blu-ray]

2017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실황 – 비발디 '오를란도 푸리오조'

디에고 파솔리스(지휘 · 하프시코드), 소니아 프리나(오를란도), 미켈라 안테누치(안젤리카), 루치아 치릴로(알치나), 루이지 쉬파노(루지에로), 파비오 체레사(연출)

기악의 전설 비발디, 그의 오페라는?

이탈리아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은 1975년 첫 시작 이래 매년 7 · 8월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로 유명하다. 비발디의 1727년 작 '오를란도 푸리오조'는 변함없는 헌신을 다하다 미치는 오를란도 기사를 다룬 숨은 명작이다. 베르디로 대변되는 19세기 오페라와는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 무대에서 빛나는 이는 오를란도 역의 소니아 프리나(1975~)이다. 메조소프라노로 일명 '바지역할'을 맡아 오를란도를 연기하는 그녀는 비발디와 헨델 스페셜리스트이다. 음반을 통해 국내에 적지 않은 마니아들이 있는데, 그녀의 연기와 카리스마를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해설지(12쪽 분량, 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1975년에 설립된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은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의 마르티나 프란카에서 매년 7 · 8월에 열리는 오페라 페스티벌이다. 국내에는 낯설지만 그 지방의 명소인 두칼레 궁전의 야외 안뜰에 특별히 무대를 제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혹은 개정본이 아닌 '원본(초판)'을 공연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에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페스티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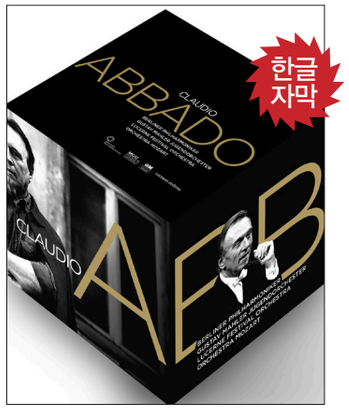
– 이 영상물은 2017년 7월 공연 실황으로, 비발디의 '오를란도 푸리오조'를 담고 있다. 1727년 작품으로, 두 남자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불안한 안젤리카, 단 한 사람에게 변함없는 헌신을 다하다 미치는 오를란도, 자유분방한 쾌락주의자 알치나, 배우자를 두고도 알치나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드는 루지에로 등 인물들의 상황과 성격이 곧 오페라의 줄거리가 된다.

– 바로크 오페라의 특징인 성악적 비르투오소뿐 아니라, 비발디 특유의 드라마틱한 선율과 속도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기악분야에서 두각을 띤 비발디의 성악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각 장의 아리아와 함께 흐르는 하프시코드, 첼로, 플루트의 소리와 오블리가토가 19세기 베르디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후기 오페라와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 오를란도 역의 소니아 프리나(1975~)는 이탈리아 태생의 메조소프라노로 일명 '바지역할'로 남성인 오를란도를 연기한다. 비발디와 헨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녀는 국내에 음반을 통해 적지 않은 마니아들을 만들었는데, 그녀의 연기와 능력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해설지(12쪽 분량, 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57478 [25DVDs]

마에스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에디션 [25DVDs]
– Special box & Special Price –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루체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신은 아바도를 낳았고, 아바도는 악단과 새 역사를 낳았다

25장의 DVD에는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와 함께 새 역사를 일군 4개 악단과의 귀한 순간들이 담겨 있다. 1986년에 창단한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GMJO), 1989~2002년 동안 재직한 베를린 필하모닉, 2003년 스위스 루체른에 창단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04년에 이탈리아 볼로냐를 거점으로 창단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25장의 DVD는 특정한 기준보다 아바도 후기이 활약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코드로 엮여져 있다. 리허설 장면부터, 베를린 필의 일본 공연과 발트뷔네, 여러 송년음악회과 유로파 콘서트, 모차르트 · 브람스 · 베토벤 · 바흐의 중요 작품, 루체른에서 말러의 역사를 새로 쓴 교향곡들 등이다. 5부작 다큐멘터리는 그의 음악인생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한글자막과 함께한다.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음악과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실수다"라는 그의 명언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하다.

[보조자료]

– 25장의 DVD에는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의 후반기 활동과 그 순간들이 담겨 있다. 염가판이라는 매력 외에 아바도의 후기 활동 중 굵직한 흔적이 담겼다는 점에서 그의 타계 후 '아바도 노스탤지어'에 시달린 마니아들을 만족시켜줄 최고의 컬렉션이다.

– "음악과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실수다"라는 그의 명언처럼 아바도의 만년은 여러 악단의 창단과 음악을 통한 대사회적 활동으로 사회와 음악계를 두루 살피는 작업들의 연속이었다.

– 이 컬렉션은 만년에 그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는 악단들과 함께 한 순간들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음악활동에 애정을 쏟았던 아바도가 1986년에 창단한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GMJO), 카라얀의 뒤를 이어 1989~2002년 동안 재직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2000년 위암 선고를 받은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2003년 스위스 루체른을 본거지로 창단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04년에 이탈리아 볼로냐를 거점으로 창단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가 그것이다.

– 25장의 DVD는 특정한 기준보다는 아바도의 후기 활약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코드로 엮여져 있다. 오케스트라 모차르트(DVD1), 리허설 장면(DVD5), 베를린 필의 일본 공연(DVD7)과 1996 발트뷔네(DVD8), 브람스 '독일 레퀴엠'(DVD9), 1997송년음악회(DVD10), 1998 스톡홀름 유로파콘서트(DVD11), 1999 송년음악회(DVD12), 모차르트 '레퀴엠'(DVD13), 2000 베를린 유로파콘서트(DVD14), 2000 송년음악회(DVD15), 베토벤 교향곡 4 · 7번(DVD16)과 1 · 6 · 8번(DVD17), 2002 팔레르모 유로파콘서트(DVD18), 2003 루체른의 말러 교향곡 2번(DVD19)과 드뷔시(DVD20), 산타 세실리아 아카데미의 말러 교향곡 9번(DVD21), 말러와 쇤베르크(DVD22),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DVD23), 2009 루체른의 말러 교향곡 1번 및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DVD24)과 말러 교향곡 4번(DVD25) 등이다.

– 컬렉션에 포함된 5부작 다큐멘터리는 한글자막과 함께 그의 음악인생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글자막)

[수록내용]

[DVD 1] The Orchestra
- Claudio Abbado and the Musicians of the Orchestra Mozart (한글자막)
[DVD 2] Claudio Abbado – Hearing the Silence (한글자막)
[DVD 3] The Silence that follows the Music (한글자막)
[DVD 4] Shalom (한글자막)
[DVD 5] Lux Aeterna: Claudio Abbado in Rehearsal (한글자막)
[DVD 6] Prometheus
[DVD 7] Claudio Abbado and Berliner Philharmoniker in Japan
[DVD 8] Waldbühne 1996: Italian Night
[DVD 9] Johannes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DVD 10] New Year's Eve Concert 1997 – a Tribute to Carmen
[DVD 11] Europakonzert 1998 from Stockholm
[DVD 12] New Year's Eve Concert 1999 - Grand Finales
[DVD 13] Wolfgang Amadeus Mozart: Requiem in D Minor, KV 626
[DVD 14] Europakonzert 2000 from Berlin
[DVD 15] New Year's Eve Concert 2000 – a Verdi Gala
[DVD 16] Ludwig van Beethoven: Symphonies No.4 & 7
[DVD 17] Ludwig van Beethoven: Symphonies No.1 & 6 & 8
[DVD 18] Europakonzert 2002 from Palermo
[DVD 19] Lucerne Festival 2003 - Gustav Mahler Symphony No.2
[DVD 20] Lucerne Festival 2003 - Claudio Abbado concucts Debussy
[DVD 21] Gustav Mahler Symphony No.9
– from 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DVD 22] Claudio Abbado conducts Mahler and Schönberg
[DVD 23] Johann Sebastian Bach: Brandenburg Concertos
[DVD 24] Lucerne Festival 2009
- Gustav Mahler Symphony No.1 & Sergey Prokofiev Piano Concerto No.3
[DVD 25] Lucerne Festival 2009 - Gustav Mahler Symphony No.4 & Rückert Lieder

EuroArts 2059348 [2DVDs]

2007 테아트로 레알 실황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에밀로 사기(연출),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지휘),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 합창단, 루카 피사로니(피가로), 르도빅 테치에(백작), 바르바라 프리톨리(백작부인), 이사벨 레이(수잔나) 외

'핫'한 바리톤 루카 피사로니가 연기하는 멀티 피가로!

2009년 7월 마드리드 레알 실황으로,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의 스마트한 지휘가 피트를 책임지고, 무대 위로는 멀티플한 젊은 베이스 바리톤 피사로니의 활약이 돋보이는 프로덕션이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피사로니는 2001년 클라겐푸르트에서, 200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모두 모차르트 오페라로 화려한 데뷔식 치룬 성악가. 중요한 순간을 모차르트와 함께 넘은 것이다. 따라서 그가 능숙히 표현해내는 모차르트의 핵심을 이 영상물로 만날 수 있다. 간결한 무대는 성악가들이 음악적인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넓고 편한 공간을 제공한다. 극적 진행이나 영상미를 살린 다른 프로덕션과 달리 성악가들이 하나하나 선사하는 아리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11쪽 분량의 해설지(영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연출의 특징이 수록.

[보조자료]

– 모차르트는 다 폰테와 콤비를 이루어 만든 '피가로의 결혼'(1786), '돈 조반니'(1789), '코지 판 투테'(1790), 이른바 모차르트 오페라 삼부작 중 '피가로의 결혼'은 일종의 가정코미디다. 과거에는 이발사였으나 현재는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 백작과 부인 사이가 애정이 식어 서먹해지자 백작은 시녀 수산나에게 밀회를 요구한다. 이에 피가로와 수산나는 백작 부인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갖가지 술책을 써서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준 뒤, 순조롭게 부부가 된다.

– 이 영상물은 2009년 7월 마드리드 레알 실황이다.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의 지휘는 스마트한 센스, 치밀한 소노리티, 정돈된 각 성부 간 밸런스를 잡아간다. 피트에서 코보스의 지휘봉이 빛을 발한다면, 무대 위의 스타는 그 누구보다도 루카 피사로니(피가로)이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피사로니는 1975년 생으로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이며 바로크부터 로시니를 아우르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세계로 행진 중이다. 2001년 클라겐푸르트에 오른 '피가로의 결혼'으로 호평을 받았고, 200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돈 지오반니'의 마세토 역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성악가로서 중요한 순간을 모차르트와 함께 넘은 것이다. 따라서 그가 능숙히 표현해내는 모차르트의 핵심을 이 영상물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에밀로 사기의 무대 연출은 고전적 재연 방식을 따른다. 무대도 화려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영상물은 매력은? 바로 음악에 집중하게 하는 힘에 있다. 간결한 무대는 성악가들이 음악적인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넓고 편한 공간을 제공한다. 극적 진행이나 영상미를 살린 다른 프로덕션과 달리 성악가들이 하나하나 선사하는 아리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 11쪽 분량의 해설지(영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연출의 특징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4528 [2DVDs]
EuroArts 2064524 [Blu-ray]

2018 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 – 래틀 & 코제나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막달레나 코제나(메조소프라노)

베를린의 숲에서 음악과 함께 '아듀 래틀!'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를 뜻하는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시즌 마지막에 개최되는 베를린 필만의 콘서트이다. 오케스트라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하는데 이 공연의 주제는 '굿바이 사이먼!'으로 그의 부인 코제나가 함께 한다. 몬테베르디 '너무나 달콤한 고통이기에'에서 래틀이 하프시코드를 연주하고 관객들은 입석하여 떠나는 이에 대한 아쉬움과 예의를 갖춘다. 링케의 '베를린의 공기'에서 래틀은 맥주잔을 들고 단원들 사이를 거닐며 악수를 청하고 단원들이 래틀의 헤어스타일을 흉내낸 가발을 써보기도 한다. 한마디로 래틀식 농담과 그와 함께 한 추억이 기분 좋게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경쾌한 이별콘서트이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라는 의미를 지닌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여름의 콘서트다. 연례 시즌 마지막에 오르는 이 콘서트는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베를린 필의 대표적인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매년 샤이, 네메 예르비, 세이지 오자와, 마리스 얀손스,켄트 나가노, 제임스 레바인,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세계적이 거장들이 '숲의 무대'의 지휘봉을 잡아 왔다.

– 이 콘서트는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해왔다. 사이먼 래틀이 지휘봉을 잡은 2018년의 제목은 '굿바이 사이먼!'이다. 2018년 6월에 퇴임하는 래틀을 위한 무대이다. 거슈윈의 '쿠바' 서곡을 시작으로, 포레 '파반느', 오제프 캉틀루브 '오베르뉘의 노래'(*), 하차투리안 발레모음곡 '가이느',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몬테베르디 '너무나 달콤한 고통이기에'(*),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존 필립 수자 '자유의 종', 파울 링케 '베를린의 공기'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래틀의 부인인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가 함께 하여 남편의 고별 무대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표시에 출연함. 독 · 영어 자막).

– 몬테베르디의 '너무나 달콤한 고통이기에'에서 래틀은 류트 · 첼로 · 바이올린과 함께 하프시코드를 직접 연주하며 막달레나의 슬픈 노래와 함께 한다. 관객들은 입석하여 떠나는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수자의 '자유의 종'에서는 래틀의 왕관 같은 헤어스타일의 가발을 쓴 금관 단원들과 관객들의 경쾌한 박수가 흥겨운 장을 연출한다. 마지막에 선보이는 '베를린의 공기'는 래틀이 늘 즐겨 연주하는 곡. 이 곡이 연주되는 동안 래틀은 맥주잔을 들고 단원들 사이를 거닐며 악수를 하고 단원들의 가발을 써보기도 한다. 한마디로 래틀식 농담과 그와 함께 한 추억이 기분 좋게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경쾌한 이별콘서트이다.

– 'Conductor Camera(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래틀의 지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 또 다른 감상의 재미를 선사한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과 단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발트뷔네 콘서트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0개 콘서트를 선별한 박스물이 유로아츠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EuroArts 2064888 [DVD]
EuroArts 2064884 [Blu-ray]

2018 코펜하겐 실황 – '더 모리꼬네 듀엘 – 가장 위험한 콘서트'

사라 힉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덴마크국립합창단, 트바 쉐미쉔(메조소프라노), 한스 울리크(색소폰)

그들이 총구를 겨눌 때 울려 퍼진 모리꼬네 선율

2018년 1월 덴마크 코페하겐 DR 콘서트홀 실황으로 〈황야의 무법자(1964)〉부터 〈헤이트풀8(2015)〉까지 '결투'를 테마로 한 11편의 영화에 삽입된 엔리오 모리꼬네(1928~)의 음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다.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 하모니카 등을 차용한 〈황야의 무법자〉의 음악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부터, 갱스터 사회에서 벌어진 배신과 의리를 그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아늑한 선율까지 서로 총을 겨누던 운명의 주인공들의 명장면에 나온 선율들이 70분 동안 우리를 회상과 추억에 젖게 한다. 영화음악을 연주할 때 보통 무대에 영화의 명장면을 상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공연은 순수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하여, 음악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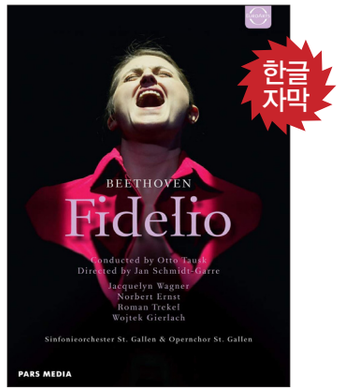
– 2018년 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DR 콘서트홀에 오른 이 공연(영상물)의 제목은 '결투(duel)'이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1964년 작 〈황야의 무법자〉부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15년 작 〈헤이트풀8〉까지 '결투'를 테마로 한 영화들을 통해 엔리오 모리꼬네(1928~)의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다.

– 여성지휘자 사라 힉스의 지휘로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은 〈바스터즈:거친 녀석들(2009)〉 〈황야의 무법자(1964)〉 〈헤이트풀8(2015)〉 〈옛날 옛적 서부에서(1968)〉 〈택시 드라이버(1976)〉 〈언터처블(1989)〉 〈석양에 돌아오다(1966)〉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 〈시실리안(1969)〉 〈석양의 무법자(1967)〉 〈킬빌(2003)〉 〈대부(1972)〉에 담긴 모리꼬네의 메인 테마곡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 로마에서 태어나 트럼펫을 전공한 모리꼬네는 할리우드로 진출하여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 하모니카 등 새로운 악기들의 차용을 통한 서부 영화음악을 만들어 냈다.

– 대표적으로 〈황야의 무법자〉의 휘파람 연주가 바로 그것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양한 영화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인상적인 멜로디를 구사하는 곡이다. 또한 갱스터 사회에서 벌어진 배신과 의리를 그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아늑한 선율은 그의 예술의 정점이라고 평가받았다. 오랜 연륜 만큼이나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는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그의 음악은 이제 고전을 넘어서 전설이 되기에 충분하다.

– 보통 영화음악을 연주할 때 무대 뒤에 영화의 명장면을 상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공연은 순수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듣다보면 그 음악이 울려나오던 명장면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내부에 포함된 해설지는 한 장짜리로 간단히 트랙만 안내한다.



EuroArts 2064858 [2DVDs]

2018 성 갈렌 극장 실황 – 베토벤 '피델리오'

오토 타우스크(지휘), 성 갈렌 극장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자클린느 바그너(레오노레), 노베르트 에른스트(플로레스탄), 보이텍 기르라치(로코), 얀 슈미트–가레(연출)

한편의 오페라, 영화가 되다

실황을 담은 기록물보다는 한편의 영화에 가깝다. 2018년 3월, 스위스 성 갈렌 극장 실황으로 그간 수많은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해온 연출가 얀 슈미트–가레의 프로덕션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색채와 간접 조명으로 일관하는 무대는 감옥은 물론 누명을 쓴 남편 플로레스탄을 찾아 감옥으로 위장 진입한 아내 레오노레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고, 연출가는 붉은색과 열정으로 대변되는 레오노라를 통해 어둠과 붉은색의 대비감으로 미장센을 이끌어간다. 작품의 무대도 그렇고 이 영상물도 감각적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해설지(22쪽 분량/영 · 독어)를 통해 연출론 등을 접할 수 있으며, 보너스 트랙(65분 분량)에는 자클린느 바그너, 에른스트, 기르라치, 타우스크, 슈미트–가레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1805년 안 데어 빈 극장에서 초연된 베토벤(1770~1827)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의 원제는 '레오노레'였지만 다른 작곡가가 쓴 같은 이름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피델리오'라고 바꿨다. 원제목이 타이틀롤이 누구인지를 직접 말해준다.

– 무대는 스페인 세비야의 형무소. 형무소 소장 피차로의 음모에 의해 플로레스탄은 죄 없이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남자로 변장한 레오노레는 피델리오란 이름으로, 몸을 던져 남편을 구출한다. 음모의 주인공 피차로는 남편의 옛 친구인 장관에게 체포되고 세인은 그들의 용감한 부부애를 칭찬한다는 줄거리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3월, 스위스 성 갈렌 극장 실황으로 피델리오 역을 맡은 자클린느 바그너의 열연이 돋보이는 프로덕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색채와 간접 조명으로 감옥의 답답함과 어둠을 상징하는 무대에 유일하게 붉은 색상의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인물은 피델리오 뿐이다. 그만큼 연출가는 타이틀롤에게 강한 존재감과 특별함을 부여했다. 2막의 오페라에서 마지막에 재회한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이 부르는 '오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31트랙)은 이 작품과 프로덕션의 백미이다. 플로레스탄 역의 노베르트 에른스트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 이 영상물은 영상 기록물이면서도 한 편의 영화이기도 하다. 연출가 얀 슈미트–가레는 '트럼펫의 신동: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Arthaus Musik 101681), '오페라의 쇼팽'(Arthaus Musik 101513)은 물론 올해 3월에 릴리즈되어 화제가 되었던 '벨 칸토–테너들의 전성시대'(NAXOS NBD 0063–64V) 등의 다큐멘터리의 연출을 맡았던 인물이다. 어두운 시대와 감옥을 상징하는 어둠의 미장센에서 붉은색과 열정으로 대변되는 레오노레의 대비적인 미장센이 감각적이다.

– 해설지(22쪽 분량/영 · 독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에른스트 블로흐의 작품론, 얀 슈미트–가레의 연출론 등이 담겨 있고, 보너스 트랙(65분 분량)에는 자클린느 바그너(레오노레), 노베르트 에른스트(플로레스탄), 보이텍 기르라치(로코), 오토 타우스크(지휘), 얀 슈미트–가레(연출)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7648 **[DVD]**

2018 젬퍼오퍼 실황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사랑하는,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1873~1943)가 드레스덴에 머물던 1906년 무렵에 작곡한 교향곡 2번이 대성공을 이루면서 라흐마니노프는 드레스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작곡가가 되었다. 2018년, 젬퍼오퍼 실황물로 1시간 동안 파파노는 마법 같은 소리들을 풀어낸다. 카메라는 무대 전체보다는 각 파트와 파파노를 부지런히 번갈아가며 집중적으로 잡아낸다. 파파노의 세심한 표정과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정면에서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43분/한글자막)는 파파노가 피아노 연주를 하며 교향곡 2번에 대해 해설하고,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악단의 연주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거장의 해설, 역사 자료, 공연 실황이 하나를 이루며 입체적인 방식으로 교향곡 2번을 접근하고 이해하게 된다.

[보조자료]

–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3곡의 교향곡 중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 받는 교향곡 2번을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 190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작곡한 이 곡은 교향곡 1번의 참담한 실패 이후 꼭 10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그는 이 곡의 시작부터 완성을 드레스덴에서 했기 때문이다. 초연은 1908년에 페테르부르크,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 라흐마니노프의 드레스덴 체류기는 작곡에 전념하던 때이다. 상징주의 화가 아놀드 뵈클린(1827–1901)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교향시 '죽음의 섬'은 물론 첫번째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3번등을 드레스덴에서 작곡했다.

– 2018년, 전통을 자랑하는 젬퍼 오퍼 실황으로 정확히 1시간 동안 파파노는 마법 같은 소리들을 풀어낸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무대와 악단 전체를 잡아내기보다는, 각 파트나 독주를 맡은 수석 · 부수석의 모습과 파파노의 지휘 장면을 부지런히 번갈아가며 잡아낸다. 파파노의 세심한 표정과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정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 이 영상물의 또 다른 매력은 작품에 관한 광범위한 아카이브 자료와 사진, 흑백영상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이다. 43분 분량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파파노가 직접 연주를 하며 해설을 하고,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악단의 연주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해설, 역사 자료, 공연 실황이 하나를 이루며 입체적인 방식으로 교향곡 2번을 접근하고 이해하게 된다.

EuroArts 2064508 **[2DVDs]**
EuroArts 2064504 **[Blu-ray]**

2018 베를린 필 유로파콘서트
– 베토벤 교향곡 4번, 바그너 '베젠동크' 가곡 외

파보 예르비(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에바–마리아 웨스트브뤽(소프라노)

베를린 필의 생일을 축하하는 베토벤과 바그너

베를린 필은 창립일(1892.5.1)을 기념하기위해 매년 5월 1일마다 명승지에서 공연하는 유로파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은 바이로이트의 후작 오페라 하우스가 선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몇 안 되는 바로크양식의 극장 중 하나다. 바그너가 1872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르비는 베토벤–바그너로 선곡하여 경의를 표한다. 에바–마리아 웨스트브뤽(1970~)는 바이로이트 축제의 '발퀴레'(2008) 이후 후기낭만주의 전문 소프라노로 활약하고 있다. 'Picture in Picture' 기능은 양분된 스크린으로 무대 전체와 지휘자의 정면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보너스트랙에는 바이로이트의 풍경, 예르비와 웨스트브뤽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는 발트뷔네 콘서트와 더불어 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베를린 필은 1991년부터 매년 5월 1일에 유럽의 명승지를 순회하는 유로파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 상임지휘자가 아니라 객원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 공연은 유럽 주요 도시와 명승지를 순회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 2018년은 독일 바이로이트의 유서 깊은 후작 오페라 하우스가 영광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이 극장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몇 안 되는 바로크양식의 극장 중 하나. 바그너가 1872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유로파 콘서트는 이 장소를 빛낸 두 작곡가 베토벤과 바그너의 작품을 선보이며 극장의 역사에 경의를 표했다.

– 유로파 콘서트에서 처음 지휘봉을 잡은 파보 예르비는 베토벤의 레오노라 서곡 3번, 베토벤 교향곡 4번,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Op.43을 선보였다. 바로크 양식의 실내조각을 재현한 무대 뒤편의 풍경이 고풍스러움과 역사적 무게감을 더한다.

– 이 영상물을 통해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소프라노를 만날 수 있다. 에바–마리아 웨스트브뤽(1970~). 레오노라 서곡이 끝나자 등장한 그녀는 바그너의 '베젠동크'의 다섯 가곡을 노래한다.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에서 활동 후(2001~2005) 후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그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2008년 '발퀴레'의 지글린데 역으로 데뷔했고, 같은 해에 '엘렉트라'로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에 데뷔했다. 한마디로 후기 낭만주의에 강한 소프라노이다.

– 메뉴의 '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 지휘자의 정면이 함께 나와 무대 전체 모습과 함께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과 단원 명단이 수록, 보너스 트랙에는 바이로이트의 곳곳을 만날 수 있는 영상(18분), 예르비와 웨스트브뤽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583 [DVD]
Naxos NBD0082V [Blu-ray]

** 주목할 만한 특별한 영상물!!!

브루노 몽생종의 로스트로포비치 다큐멘터리 '불굴의 활'

브루노 몽생종(영상 · 연출), 로스트로포비치(첼로), 오자와 세이지(지휘), 예후디 메뉴인(바이올린), 빌헬름 켐프(피아노)

영상으로 그린 로스트로포비치의 초상화

음악가들의 삶과 역사를 탁월하게 그려내는 다큐멘터리 감독 브루노 몽생종이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본다. 78분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20세기를 빛낸 프로코피예프,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갈리나 비시네프스카야(아내)를 만나게 된다. 두 개의 보너스 필름이 매력적이다. 하나에는 오자와/보스턴 심포니와의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1986), 메뉴인 · 켐프와의 베토벤 피아노 3중주 '대공'(1974), 바흐 무반주 모음곡 2번(1969)이 수록. 다른 하나는 '솔제니친과 로스트로포비치'(40분 분량)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했던 그느 솔제니친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외 연주회를 금지당한 채 감시를 받기도 했다. 로스트로포비치의 딸 올가와 엘레나, 솔제니친 가족의 증언을 통해 로스트로포비치의 신념을 느낄 수 있다.

[보조자료]

– 클래식음악의 역사를 생생한 영상기술로 쓰는 브루노 몽생종이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본다. 이 영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모르고 있던 위대한 첼리스트의 독창적인 초상화와 마주하게 된다. 생전의 그는 강력한 개성의 소유자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썼던 음악가였다.

– 로스트로포비치와 관련된 미공개 문서, 아카이브 필름, 인터뷰 및 콘서트 공연을 포함하는 '불굴의 활'은 슬라바(로스트로포비치의 애칭)의 삶과 작품에 대해 주목하는 증언과도 같다. 특히, 흑백 필름에 담긴 그의 젊은 날은 그 어디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자료들이다.

– 78분(한글 자막)을 이루는 각 트랙의 제목이 순탄치 않던 그의 인생을 대변한다. 14개의 트랙은 ①인트로덕션, ②어린 시절의 음악 훈련, ③프로코피예프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 ④국제적인 돌파구, ⑤경쟁의식, ⑥갈리나 비시네프스카야(아내), ⑦프라하 1968, ⑧굴욕, ⑨강요된 망명, ⑩쇼스타코비치, ⑪지휘자와 페다고지, ⑫귀향, ⑬영감, ⑭에필로그 순으로 되어 있다.

– [보너스 필름](1)에는 오자와/보스턴 심포니와 함께 한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중 제7 · 8변주곡과 코다(1986년 파리), 예후디 메뉴인 · 빌헬름 켐프와 함께 한 베토벤 피아노 3중주 7번 Op.97 '대공'(1974년 살 플레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중 사라방드(1969년 파리)가 수록되어 있다.

–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여 공산정권으로부터 비난받던 스승 쇼스타코비치를 옹호하기도 했던 로스트로포비치는 1968년 친구인 작가 솔제니친(1918~2008)이 '수용소의 하루'를 집필할 적에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등 공개적으로 솔제니친을 옹호했다. 그 결과 당국의 분노를 사고 해외 연주회를 금지를당한 채 감시를 받았다. 1974년 2년간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그는 부인과 함께 스위스를 거쳐 미국 워싱턴에 정착했다. 보너스 필름(2)인 '솔제니친과 로스트로포비치'(40분 분량/한글자막)는 로스트로포비치의 딸인 올가와 엘레나, 솔제니친의 부인인 나탈리아와 아들 이그나트가 증언하는 로스트로포비치의 신념을 느낄 수 있다.

Naxos 2.110577 [DVD]
Naxos NBD0076V [Blu-ray]

2014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실황 – 벤자민 브리튼 '베니스에서의 죽음'

윌리 데커(연출), 알레요 페레츠(지휘),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 · 합창단, 존 자삭(아센바흐), 레그 멜로세(여행자), 토마스 보르치크(타치오), 앤서니 로트 코스탄초(아폴로), 던칸 락(여행가이드) 외

품위 있는 파격으로, 브리튼의 명작을 그려내다

1973년 작, 브리튼(1913~1976)의 오페라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요양 차 베니스의 리도섬을 찾은 작곡가 아센바흐가 미소년 타치오를 사랑하게 되지만, 섬을 강타한 콜레라에 걸려 죽는다는 내용이다. 소설, 영화와 달리 오페라는 동성애의 감각과 갈등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목소리로 대치시켰고, 타치오 역은 노래 없이 등장과 춤만으로 무대를 이어간다. 고전작도 실험작으로 전이시키는 마드리드 데아트로 레알의 2014년 12월 공연 실황으로, '아센바흐의 모노오페라'라고 할 정도로 한 배역에 담긴 에너지와 갈등의 고뇌를 테너 존 자삭이 섬세하고 농익은 연기로 그려낸다. 전위의 기수 윌리 데커(1950~)의 연출도 품위 있는 파격을 보여준다. 2005년 잘츠부르크에서 비야손과 넵트레코 주연의 '라 트라비아타'를 맡았던 연출가다. 해설지(15쪽/영어)에는 작품해설, 시놉시스, 캐스팅이 수록.

[보조자료]

– 독일작가 토마스 만(1875~1955)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마이파니 피퍼(1911~1997)가 각색했고, 1973년에 벤자민 브리튼(1913~1976)이 작곡한 오페라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요양 차 베니스의 리도섬을 찾은 작곡가 아센바흐가 미소년 타치오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지만, 섬을 강타한 콜레라에 걸려 죽는다는 내용이다.

– 이탈리아의 명감독 비스콘티의 동명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영화나 오페라 모두 원작에 충실하다. 다만, 오페라에서는 미소년 타치오에 대한 동성애의 감각과 갈등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목소리로 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디오니소스는 남자가, 아폴로는 여자가 맡는다. 한편 타치오 역을 맡은 소년은 노래를 하지 않고, 등장과 춤만으로 무대를 이어간다. 아센바흐가 등장할 때는 12음 기법과 같은 현악적인 기법의 음악이, 타치오의 등장 씬에서는 타악기의 금속성 울림과 동양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음악은 전체적으로 탐미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 이 영상물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데아트로 레알의 2014년 12월 공연 실황이다. 베르디나 바그너라는 고전도 실험작으로 만드는 극장의 특성상, 20세기 영국 오페라에 전위의 기수 연출가 윌리 데커(1950~)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덕션은 품위 있는 파격을 보여준다.

– 갈등과 욕망 사이를 오가는 아센바흐의 모노 오페라라고 할 정도로 브리튼은 아센바흐 역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브리튼은 당대의 테너 피터 피어스에게 헌정코자 이 작품을 썼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동성연애를 하며 동거했다고 한다. 이 프로덕션에서 아센바흐 역을 맡은 테너 존 자삭의 존재감과 현대음악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으며, 아센바흐의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타치오 역의 폴란드 배우 토마시 보르치크의 무언의 연기는 영화에 등장했던 타치오 역의 비요른 안데르센을 연상시킬 정도로 인상적이다.

– 연출가 윌리 데커는 2005년 잘츠부르크에서 롤란드 비야손과 넵트레코 주연의 '라 트라비아타'를 맡았던 이로, 토마스 만과 벤자민 브리튼이 왜 20세기를 빛낸 예술가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고도의 심리드라마로 무대를 그려낸다. 해설지(15쪽 분량/영어)에는 작품해설과 시놉시스, 캐스팅 소개가 담겨 있다.

Naxos 2.110578 [DVD]
Naxos NBD0077V [Blu-ray]

2017 마시모극장 실황
– 베르디 '맥베스'

엠마 단테(연출), 가브리엘레 페로(지휘), 마시모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로베르토 프로탈리(맥베스), 안나 피로치(레이디 맥베스), 마르코 미미카(밴코), 빈첸초 콘스탄초(맥더프) 외

무대를 물들이는 전위적 광기와 완성도 높은 연주

이탈리아 영화감독 엠마 단테(1967~)가 연출한 2017년 1월, 마시모 극장 실황이다. 무대의 블랙, 레드, 블루의 색조 대비가 강렬하며, 간단한 소품들은 군무와 합창, 맥베스의 광기가 어우러질 때마다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엠마 단테는 국내의 영화팬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굵직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음악을 견인해가는 노장 지휘자 가브리엘레 페로(1937~)의 음악은 그 어떤 '맥베스'보다 비극의 무게를, 눈물의 두께를 지니고 있다. 타이틀롤 프론탈리의 정석적인 연기와 레이디맥베스 역의 피로치의 광기 서린 연기의 대비도 강렬하다. 이 프로덕션은 발레가 삽입된 파리 버전이 아니라 원본을 채택하여 극적 흐름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잘 정제된 고전 소설을 읽는 듯한 영상적 흐름이 돋보인다. 해설지(14쪽/영여)에는 작품, 캐스팅 해설이 수록.

[보조자료]

– 이탈리아 영화감독 엠마 단테(1967~)가 연출한 베르디 '맥베스'에는 강한 영상미가 감돈다. 2017년 1월, 이탈리아 마시모 극장 실황을 담은 이 프로덕션에는 블랙, 레드, 블루의 색조 대비가 강렬하다. 소품들도 소극장에 놓일 법한 작은 구조물들이 전부다. 하지만 군무와 합창, 또한 연출가가 맥베스에게 심어놓은 광기가 어우러질 때마다 그것들은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엠마 단테는 국내에 개봉했던 영화 '프랑코 스칼다티의 연극과 삶'(2015 개봉)에 조연으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팔레르모의 결투'(2013)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오페라 마니아라면 지휘자 가브리엘레 페로(1937~)의 명성에 더 눈길이 갈 것이다. 1971년에 데뷔한 이래 이탈리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는 유럽의 전극장을 섭렵한 노장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굵직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음악을 견인해가는 그의 음악은 그 어떤 '맥베스'보다 비극의 무게를, 눈물의 두께를 지니고 있다.

– 타이틀 롤의 로베르트 프론탈리는 로마 태생으로 1986년 데뷔 이래, 유럽의 여러 극장들에서 활동 중이다. 타이틀롤에 충실한 프론탈리와 달리 레이디 맥베스 역의 안나 피로치는 창백한 조명과 함께 광기를 제 마음대로 발휘한다.

– '맥베스'는 1847년 페렌체 페르골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후 파리 리리코 극장에 올리기 위해 수정하는 가운데, 발레를 선호했던 파리시민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합창을 줄이고 발레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두 버전 중 이 영상물은 발레가 없는 원본을 택해 극적 흐름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잘 정제된 고전 소설을 읽는 듯한 영상적 흐름이 돋보인다. 해설지(14쪽 분량/영여)에는 작품, 캐스팅 해설이 수록.

Naxos 2.110581 [DVD]
Naxos NBD0080V [Blu-ray]

2017 파리 센 뮤지컬 실황
– 하이든 '천지창조'

로렌스 에퀼베이(지휘), 악상투스(합창) · 인슐라 오케스트라, 카를루스 파트리사(연출) · 라 푸라 델 바우스(공중곡예), 마리 에리스모엔(가브리엘 · 에바), 다니엘 쉬문츠하르트(라파엘 · 아담), 마르틴 미테투츠네르(루이레)

100분 동안, 눈이 즐거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무대창조'

하이든의 1798년 작 '천지창조'가 최첨단 미디어테크놀로지로 구현한 비디오아트 같은 무대로 다시 태어났다. 스페인 예술단체 라 푸라 델 바우스의 화려한 공중곡예도 함께 한다. 2017년 5월, 프랑스의 최첨단 문화기지를 표방한 센 뮤지컬에 오른 공연 실황으로 '천지창조'의 놀라운 변신에 100여분의 시간이 지나간다. 지휘를 맡은 로렌스 에퀼베이는 합창지휘에 일가를 이룬 여성 지휘자로 절제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돋보이는 고전적 해석으로 사운드의 품격을 높인다. 다양한 위험이 서려 있는 무대지만 세 솔리스트(에리스모엔 · 쉬문츠하르트 · 미테투츠네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량을 발휘한다. 무대의 제작과정이 담긴 보너스 필름(35분/자막 없음)을 보면 이들의 '무대창조'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같은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보조자료]

– 하이든(1732~1809)이 1798년에 작곡한 '천지창조'는 런던에서 만난 헨델의 오라토리오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하이든은 창세기가 전하는 '7일간의 천지창조'라는 서사에 거장의 솜씨로 곡을 붙였다. 그 결과 60대 중반의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지만, 그의 어느 작품보다도 강한 힘과 서사의 진행이 드러난다.

– 오라토리오를 오페라나 음악극처럼 선보이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금기도 없는 지금이지만, 이 영상물 속의 무대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무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취적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향연을 보여준다. 마치 한편의 비디오아트 같은 무대에 연출가 카를루스 파트리사는 빛과 영상의 테크놀로지를 쏟아 부어 22세기적 '천지창조'를 선보인다. 주빈 메타와 함께 한 바그너 링 사이틀을 통해 그가 무대에 뿌려놓는 연출 · 영상기법은 이미 유럽의 오페라극장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은 바 있지만 '천지창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여기에 스페인 예술단체 라 푸라 델 바우스도 함께 한다. 움직이는 기계장치와 인간의 운동성, 정밀한 공중 곡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단체이다.

– 이 프로덕션은 2017년 5월, 프랑스의 센 뮤지컬에 오른 공연 실황이다. 파리에 위치한 센 뮤지컬은 2017년 4월에 오픈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프랑스가 지향하는 첨단 예술의 전방위 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장소의 이러한 성격을 알게 되면 '천지창조'의 놀라운 변신이 쉽게 간다.

– 변신에 변신을 더한 무대장치 및 연출과 달리 음악은 절제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돋보이는 고전적인 해석이다. 지휘를 맡은 로렌스 에퀼베이는 여성 지휘자로 1991년 합창단 악상투스를 설립하여 네이브(Naïve)와 같은 레이블에서 꾸준히 녹음을 진행했고, 2012년에 인슐라 오케스트라를 설립했다.

– 다양한 위험이 서려 있는 무대지만, 성악가 마리 에리스모엔 · 다니엘 쉬문츠하르트 · 마르틴 미테투츠네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솔리스트로서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한다. 무대의 제작과정이 담긴 보너스 필름(35분/자막 없음)을 보면 이들의 '무대창조'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노력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Naxos 2.110582 [DVD]
Naxos NBD0081V [Blu-ray]

2017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 – 베르크 '보체크'

마르크 알브레히트(지휘),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퍼 멀턴(보체크),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렉(마리), 프랑크 판 아켄(군악대장), 마르첼 벡먼(대장/마담),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연출)

문제적 연출가가 만든 20세기 문제적 오페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의 2017년 실황으로 폴란드의 문제적 연출가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만의 전매특허인 잔혹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프로덕션이다. 1925년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초연된 베르크의 '보체크'는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가난한 병사 보체크가 그의 연인 마리를 죽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다가 제 목숨마저 끊는다는 잔혹과 비극의 오페라다. 바를리코프스키는 이제 전혀 새롭지 않은 고전으로 정착한 '보체크'를 초연 당시의 논란의 지대로 보내는 듯 잔혹함을 불러내고, 알브레히트의 지휘는 정서적 강도를 높이고 줄이며 감각적인 음악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난해하기만 한 20세기 오페라가 감각적인 연출가에 의해서 새로운 재미를 어떻게 입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알반 베르크의 '보체크'는 폭력과 살인에 관한 끔찍한 비극적 서사를 20세기의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오페라로 변신시킨 작품이다. 초연 당시 잔인함과 광기에 대한 베르크의 단호한 묘사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이 작품은 20세기 현대음악의 중심에 곧 자리잡게 되었다.

–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이 선보인 2017년 실황(3.23~4.6)으로 취리히 오페라의 2015년 9월 프로덕션이다. 마르크 알브레히티 지휘에 폴란드의 문제적 연출가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가 연출을 맡은 오페라 '보체크'는 음악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신선하고 파격이 서려 있다.

– '보체크'는 에리히 클라이버의 지휘로 1925년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초연되었다. 작품은 짧은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장은 독립적인 음악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질투로 인해 점점 정신분열에 시달리게 되는 가난한 병사 보체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과의 사이에 아이를 둔 여인 마리가 군악대장에게 유혹 당하자 결국 그녀를 죽이게 된다. 그는 아이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고용주인 부르주아적 대위와 과대망상의 경향을 가진 의사에게 조롱당한다. 마리를 칼로 찌른 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로 돌아오지만, 살인 무기를 다시 손에 넣으려고 광기를 띤 행동을 하다가 호수에 빠져 익사한다.

– 이 영상물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 것만 같던 20세기 오페라가 감각적인 연출가에 의해서 새로운 재미를 어떻게 입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어진다. 바를리코프스키는 오페라 연출에 대해 "오페라는 감옥이다. 연출가의 임무는 악보와 경직된 관례들로 이루어진 틀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그의 '보체크'에는 무대의 미장센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정성과 긴장감이 공존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알브레히트는 정서적 강도를 높이고 줄이며 감각적인 음악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바를리코프스키의 미적 정체성과도 같은 잔혹함과 그 기운은 사그라들지 않으며, 무대 위에 면면히 흐른다. '파이낸셜 타임즈'지로부터 "선명도, 서정성, 연민 그리고 강력한 분쇄력을 지닌 보체크"라는 평을 충분히 들을만하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72D [DVD]
OpusArte OABD7248 [Blu-ray]

OPUS ARTE

2017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 – 푸치니 '라 보엠'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마이클 파비아노(로돌프), 니콜 카르(미미), 시모나 미하이(뮤제타), 마리우스 크비치엔(마르첼로), 리차드 존스(연출)

극사실주의로 그린 런던 뒷골목의 '라 보엠'

공연(2017년 9 · 10월) 전후로 큰 화제가 되었던 프로덕션이다. 1막의 천장이 낮은 회색빛 다락방과 주인공들이 수중의 돈만큼만 갈 수 있는 2막의 평범한 파티장. 존스의 연출은 극사실주의적이다. 카메라 워킹은 무대전체보다는 현재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30~40대의 성악가들이다. 로돌프 역을 위해 태어난 파비아노는 현재 이 역할로 물이 오른 상태. 니콜 카르(미미)의 청순한 이미지, 로열 오페라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시모나 미하이(뮤제타)의 요염함, 크비치엔(마르첼로)의 풍부한 성량. 이들은 모두 강한 캐릭터로 보는 이를 사로 잡는다. 여기에 파파노는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출연진들의 목소리를 든든히 받쳐준다. 지휘자와 성악가들이 말하는 '라 보엠' 인상기(5분), 파파노의 음악해설(5분)이 보너스 트랙.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평론(해설지)도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9월과 10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으로 공연 전후로 큰 화제가 되었던 프로덕션이다.

– 연출을 맡은 리차드 존스는 영국 태생으로 1994년 로열오페라에서 데뷔했다. 이후 바그너의 링 사이클을 비롯해 중요작품과 대작을 맡을 정도로 런던과 극장 측의 신임을 받는 연출가이다. 그의 특징이라면 한마디로 영국식 스타일이다. 작품은 파리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이 무대는 19세기 런던의 뒷골목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1막의 배경인 다락방도 천장이 낮은 회색빛의 작은 골방이며, 다른 연출가들이 2막에서 축제의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과 달리 이 무대는 주인공들의 수중의 돈만큼 그들이 갈 수 있는 평범한 파티장에 들어선다. 지극히 극사실주의적인 무대다.

– 평범한 무대지만, 캐스팅만은 범상치 않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현재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30~40대의 젊은 성악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고 소소한 무대인만큼 카메라 워킹도 전체적인 무대보단 성악들의 연기와 노래에 집중한다.

– 마이클 파비아노는 극중 로돌프 역을 위해 태어난 테너 같다.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극장에서 데뷔한 그는 2008년 리카르도 샤이가 제작한 '자니 스키키'의 리누치오 역을 통해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라 보엠'(2010)의 로돌프 역을 맡은 이후, 도이치 오페라극장과 벨기에 리모주 오페라극장에서도 로돌프 역으로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 미미 역의 니콜 카르는 청순한 이미지를 십분 발휘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다. 루마니아 계열로 영국 태생의 시모나 미하이는 오페라하우스의 젊은 예술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꾸준히 로열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첼로 역의 마리우스 크비치엔도 풍부한 성량과 드라마틱한 연기로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 무대가 간소하기에 음악에 집중 할 수 있는 이 프로덕션에서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를 맡아 음악적 완성도가 높인다. 그는 교향곡을 작곡했어도 성공했을 법한 푸치니의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출연진들의 목소리를 든든히 받쳐준다.

– 보너스 트랙에는 두 개의 영상이 수록. 연습현장을 배경으로 지휘자와 성악가들이 말하는 '라 보엠' 인상기(5분), 파파노의 음악 해설(약 5분) 정도 들어가 있다.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평론과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1277D [3DVD Set]
OpusArte OABD7253 [2BD Set]

로시니 사후 150주년 기념 오페라 BOX
– 신데렐라(2005년 글라인드본 실황)
– 세빌리아의 이발사(2015년 글라인드본 실황)
[SPECIAL PRICE]

로시니 사후 150주년 기념 오페라 BOX

로시니 사후 150주년 기념하여 로시니 오페라 중 가장 사랑받는 두 오페라 : 신데렐라(2005년 글라인드본 실황)와 세빌리아의 이발사(2015년 글라인드본 실황)를 한 박스에 담았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인 '신데렐라' 를 원작과는 조금 다른 코믹한 스토리텔링으로 각색, 로시니 특유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가득하다. 또 한편의 친숙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2015년 글라인드 본 실황으로 Full HD 1080p의 화질과 카메라 워킹은 영화적 재미를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호흡을 여실히 드러내어 로시니의 작품이 지닌 웃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니엘레 드 니세와 엔리크 마촐라가의 코멘터리 필름과 메이킹 필름이 포함되어있다. ***세비야의 이발사에만 한글자막이 포함되어있다.**

1) 세비야의 이발사 [한글자막]

'세비야의 이발사'.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만나다

다니엘레 드 니세(로지나 역), 알레산드로 코르벨리(바르톨로 박사 역), 외른 부르거(피가로 역), 테일러 스태이턴 (알마비바 역), 크리스토포로스 스탬보글리스(바실리오), 제니스 켈리(베르타), 애나벨 아덴(연출), 엔리크 마촐라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오페라페스티벌 2015년 6월 실황. 바로크부터 이탈리아 오페라를 두루 섭렵한 로지나 역의 다니엘레 드 니세가 눈길을 끈다. 투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에 유머 감각까지 더해진 니세의 노래는 너무나도 매혹적이다. 애나벨 아덴의 연출은 시각적 세련미와 웃음의 분위기를 선사하며, '가디언'지로부터 "빈틈없는 앙상블"이라는 찬사를 받은 엔리크 마촐라가 런던 필과 빚어내는 음악에는 윤기가 흐른다. Full HD 1080p의 화질과 카메라 워킹은 영화적 재미를 더하고, 24비트 스테레오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기능은 지휘자 · 성악가 ·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호흡을 여실히 드러내어 로시니의 작품이 지닌 웃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다니엘레 드 니세와 엔리크 마촐라가 공연영상을 보며 설명하는 코멘터리 필름(약 165분)과 메이킹 필름(약 7분)이 포함되었다.

2) 신데렐라

로시니의 흥겨운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추억의 동화

룩산드라 도노세(안젤리나)/ 루시아 치릴로(티스베)/ 라켈라 쉬란(클로린다)/ 나단 버그(알리도로)/ 루치아노 디 파스콸레(돈 마그니피코)/ 막심 미로노프(돈 라미로)/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못된 계모'라는 그릇된 정형화와 '여자는 멋진 왕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한다'는 허황된 꿈을 세계 각국의 소녀들에게 안겨주었던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 그 공과야 어떠하든 간에 백설 공주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화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시니는 이 유명한 스토리에 기초하여 훌륭한 희가극 하나를 완성하였다. 계모가 아닌 계부가 악역을 맡고, 요정할머니가 아니라 철학가 알리도로가 안젤리나(신데렐라)를 꽃단장시키는 것은 원작동화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로시니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유머감각이 작품 전체에 가득하며, 특히 2막 피날레에 등장하는 안젤리나의 아리아는 쇼팽의 변주곡 등을 통해 우리 귀에 익숙한 바로 그 선율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6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의 최신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영국의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피터 홀이 연출을 맡았고, 런던 필하모닉의 수석객원지휘자이자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음악감독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를 맡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룩산드라 도노세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다.

OpusArte OA1269D [DVD]
OpusArte OABD7245 [Blu-ray]

2017 로열 발레단 실황
– 크리스토퍼 휠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크리스토퍼 휠던(안무), 조비 탤벗(음악), 밥 크롤리(디자인), 코엔 케셀(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로렌 쿠스버슨(앨리스), 페데리코 보넬리(잭 · 네이브 오브 하트), 스티븐 맥렝(마술사 · 미치광이 모자장인) 외

상상하는 대로 무대 위에 펼쳐진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발표 이래 공연예술의 단골 소재로 등장해왔다. 이 작품은 크리스토퍼 휠던이 2011년에 안무한 작품으로, 2017년 9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이다. 밥 크롤리가 디자인한 무대는 동화적 상상력과 색채로 가득하다. 거대한 고양이와 앨리스의 춤(16트랙), 오케스트라의 금관과 함께 하는 마술사의 탭댄스(17), 왕자와의 파드되(22) 등을 보다보면 2시간이 금새 지나간다. 조비 탤벗의 독창적인 음악은 공연 뒤에도 유명세를 타서 음반(SIGCD327)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보너스 트랙에는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지(19쪽 분량)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토끼를 따라 굴속으로 뛰어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도착해 겪는 신기한 모험을 그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동화로, 발표된 이후부터 여러 공연예술의 빈번한 소재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안무가 크리스토퍼 휠던이 루이스 캐롤의 원작을 바탕으로 2011년 창작한 것이다. 이 공연은 2017년 9월 실황. 로열 발레단의 간판스타인 수석무용수 로렌 쿠스버슨이 앨리스 역을, 국내에도 잘 알려진 발레리노 페데리코 보넬 리가 잭과 '네이브 오브 하트' 역을 맡았다. 마술사와 미치광이 모자장인 역의 스티븐 맥레이의 화려한 발레동작과 어우러지는 탭댄싱도 인상적이다.

– 동화 속의 각 장면을 그려내는 디자이너 밥 크롤리의 무대는 시각적으로 강렬하다. 동화적 상상과 과장, 마법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포착해내고 있으며, 동물과 매혹적인 캐릭터를 다채롭게 그렸기에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용 발레영상으로도 손색이 없다. 시각적으론 강렬해도 휠던의 안무에는 고전발레의 문법이 잘 담겨 있다. 동화적인 캐릭터를 입은 동물들의 춤과 움직임은 마치 '호두까지 인형'의 몇몇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 거대한 고양이와 앨리스가 춤을 추고(16트랙), 오케스트라의 금관과 어우러지는 마술사의 탭댄스 장면(17트랙)은 화려하다. 왕자와의 파드되(22트랙)는 '백조의 호수'만큼 우아하다. 강렬한 빨간색 색조로 치장한 3막의 하트 여왕의 정원은 강렬하다.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2시간이 금새 지나간다.

– 여기에 조비 탤벗의 독창적인 음악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을 십분 활용하여 음악과 재미난 음향효과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음악은 후에 유명세를 타서 음반(SIGCD327)으로도 따로 제작되기도 했다.

– 보너스 트랙에는 휠던(연출), 쿠스벌슨 · 보넬리 · 맥레이(단원), 크롤리(다자인)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이 작품을 위해 탭댄스를 배우는 맥레이의 연습 현장도 담겨 있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지(19쪽 분량)도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1273D [3DVD Set]
OpusArte OABD7249 [Blu-ray]

차이코프스키: 발레 모음집

로열 발레단

차이코프스키 발레의 정수(精髓)

아름답고 낭만적 비극의 백조의 호수(2015년 작) 1946년 작품을 새롭게 재현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2017년 작) 크리스마스 시즌에 빠질 수 없는 단골손님 호두까기 인형(2016년 작).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로열 발레단의 우아한 모습에 빠져들게 된다. 함께 들어있는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필름을 통하여 작품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1) 백조의 호수 : 나탈리아 오시포바(오데트/ 오딜)/ 매튜 골딩(지크프리트)/ 개리 아비스(로트바르트)/ 보리스 그루친/ 로얄 오페라 오케스트라

영국 로열 발레단의 새로운 주역들이 멋진 호흡으로 빚어낸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1877년 초연에서 실패했지만, 작곡가 사후에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새롭게 안무를 담당함으로써 크게 성공하였다. 이 발레는 서유럽에서 인기를 끈 최초의 러시아 발레이며, 특히 영국 로열 발레단의 핵심 레프트와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 로열 발레의 〈백조의 호수〉 프로덕션은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안무를 기반으로, 이 발레단을 거쳤던 영국 무용계의 거목들인 프레데릭 에쉬튼, 피터 라이트, 데이비드 빈틀리, 앤소니 도웰 등의 손길이 조금씩 덧입혀졌다. 남미 출신의 스타 무용수들인 마리아넬라 누네스와 티아고 소아레스가 주역을 맡았던 2009년의 공연실황에 이어서 로열 발레단이 완성한 또 하나의 〈백조의 호수〉가 동일한 레이블을 통해 출시되었다. 2015년 3월의 무대를 담은 것으로, 각각 볼쇼이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거쳐서 현재 로열 발레단의 수석으로 나란히 활약 중인 나탈리아 오시포바와 매튜 골딩이 두 주인공을 열연하였다. 한국계 발레리나 최유희가 2009년 실황에 이어 본 신보에서도 1막의 파 드 트루아에 출연한다.

2) 호두까기 인형 : 차이콥스키(작곡),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피터 라이트(재안무)/ 보리스 그뤼진(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가리 애비스(드로셀마이어), 로렌 커스버스턴(수석발레리나/ 설탕요정), 페데리코 보넬리(수석발레리나/ 공주), 프란체스카 헤이워드(수석발레리나/ 클라라), 알렉산더 캠벨(수석발레리노/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 날, 축복처럼 내리는 눈송이 같은 간판스타들의 춤

마리우스 프리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공동안무로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은 존 그랑코 · 존 노이마이어 · 롤랑 프티 · 조지 발란신 등 전설적인 이들에 의해 10종이 넘는 버전이 만들어져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 작품을 1934년 유럽 초연한 로열 발레단은 올해 90세를 맞이한 피터 라이트 버전을 고수하고 있다. 이 영상은 라이트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공연 실황물. 거장을 기념하는 시간인만큼 간판스타들이 총출연하여,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축복 같은 눈송이처럼 설렘과 화려함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동안 DVD 시대에 나온 로열발레단의 전작3~4종에 비해 블루레이 유행기인 지금 나온 이 영상물은 화질, 카메라 액션, 음악 구현 환경 모두 21세기적이고 세련되어 있다. 주역들과 주요 스태프진이 소개하는 '차이콥스키'의 매력과 재미(5분 분량/영어진행), 무대에서 진행된 90세의 피터 라이트 인터뷰(5분 분량/영어진행)이 수록되어 있다.

3) 잠자는 숲속의 미녀 :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프레드릭 애쉬톤 · 안토니 도웰 · 크리스토퍼 윌던(보조안무), 코엔 케슬리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에즈(오로라 공주), 크리스텐 맥날리(카라보스), 클레어 칼버트(라일락), 바딤 문타기로프(플로리문트 왕자)

기교와 아름다움, 재미와 판타지를 모두 갖춘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티파(1818~1910)가 안무한 명작이자, 차이콥스키(1840~1893)가 음악을 맡은 대작이다. 2017년 2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로열발레의 수석으로 귀여운 마스크의 소유자 마리아넬라 누에즈의 오로라 공주 역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보여주며, 플로리문트 왕자 역의 바딤 문타기로프와 빼어난 호흡을 자랑하는 프로덕션이다. 3막(37~53트랙)은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지는 장대한 결혼식의 디베르티스망으로 로열발레의 명성과 다양한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오케스트라는 135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 기색과 경쾌한 춤곡조로 스피커를 울린다. 오디오 감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작품 소개(5분), 역사(3분 30초), 연습장면(3분 30초)이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1276D [DVD]
OpusArte OABD7252 [Blu-ray]

2018 로열발레 실황 – '번스타인 셀러브레이션'

웨인 맥그레고르 · 리암 스칼렛 · 크리스토퍼 월든(안무), 로열 발레단

2018 번스타인 기념비 중 최고의 오마주!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을 위해 20세기 발레사에 혜성처럼 등장(1931년 창단)한 로열 발레단은 현대발레로 그의 탄생을 기념한다. 2018년 3월 15일, 로열 코벤트가든에서 선보인 3개의 신작으로 이뤄진 무대로 ①번스타인 종교합창곡 '치체스터 시편'의 일부를 차용한 맥그레고르(안무)의 '유겐', ②번스타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와 동명의 작품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발레버전을 연상시키는 스칼렛(안무)의 '불안의 시대', 그리고 ③월든(안무)의 '코리반트의 게임(Corybantic Games)'은 번스타인의 바이올린 · 현악 · 타악기를 위한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매혹적인 연주와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던 번스타인의 무용적 상상력의 꽃대를 피어올린다.

[보조자료]

– 전세계 유명지휘자와 명문 악단들이 번스타인(1918~1990)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앞다투며 기념비 같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2018년, 번스타인과 같이 현대적 감각으로 무장하며 20세기 발레사에 혜성처럼 등장(1931년 창단)한 로열 발레단은 독특하게도 현대발레로 번스타인의 탄생을 기념한다. '번스타인 셀레브레이션'은 2018년 3월 15일, 로열 코벤트가든에서 선보인 세 개의 현대발레 신작을 선보인 무대로 모두 번스타인의 음악을 사용한다.

– 웨인 맥그레고르의 '유겐(Yugen)'은 번스타인 종교합창곡 '치체스터 시편'의 일부를 차용한 작품이다. 11명의 무용수들이 자유로운 흐름의 동작을 풀어낸다. 유럽의 전통에 맞서서 미국식 자유로움을 구사했던 번스타인의 사상과 그의 머리 속을 풀어낸 듯한 추상발레다.

– 리암 스칼렛이 안무한 '불안의 시대(The Age of Anxiety)'는 번스타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과 동명의 작품. 술잔이 놓인 작은 바를 배경으로 4명의 남녀무용수가 출연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발레기교보다는 음악에 내재된 '불안'과 '시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발레연극으로 번스타인의 역작 '웨스트 사이드'를 연상시킨다.

–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급 안무가인 크리스토퍼 월든의 '코리반트의 게임(Corybantic Games)'은 번스타인의 바이올린 · 현악 · 타악기를 위한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로열발레단의 군무진은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즈를 입고 음악의 몽환적인 기운을 온 몸으로 표출한다. 20세기 작곡가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플라톤)와 나눈 형이상학적 대화와 예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 번스타인을 현대발레로 기린다는 특색을 넘어 세 작품은 모두 영국 현대발레사의 기념비로 남았다. '유겐'은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춤 중 하나"(가디언), '불안의 시대'는 "만화경 같은 구성의 춤의 구성"(가디언), '코리반트의 게임'은 "마음을 사로 잡는 순간들"(아트 데스크) 등 각 작품별로 영국 현지의 찬사를 받았다.

– 로열발레의 음악을 단골인 코엔 케젤스(유겐 · 코리반트의 게임)와 베리 워즈워스(불안의 시대)가 지휘를 맡았다. 매혹적인 연주와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던 번스타인의 무용적 상상력의 꽃대를 피어올린다.

OpusArte OA1268D [DVD]
OpusArte OABD7244 [Blu-ray]

2017 로열오페라 실황
– 푸치니 '나비부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모셰 라이저&파트리스 코리에(연출), 에르모넬 야호(초초 상), 마르셀로 푸엔테(핑커톤), 스코트 헨드릭스(미국 영사), 엘리자베스 뒤숑(스즈키)

그녀의 초초 상에서 마리아 칼라스가 보인다!

2017년 5월, 국내개봉을 통해 인기를 모았던 영상물이다. 1983년 리옹오페라를 시작으로 콤비로 활약해온 모셰 라이저 · 파트리스 코리에 특유의 무대는 여백을 강조한 일본적 미니멀리즘이 돋보이며, 작품의 복잡다단한 드라마와 화려한 볼거리를 무대에 풀어놓기보다는 곧잘 초초 상을 무대 위에 덩그러니 놓아 그녀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표출되는 모노드라마의 현장처럼 활용한다. 무대도 카메라도 초초 상의 존재와 노래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 1974년 알바니아 출생의 에르모넬 야호는 빛과 아우라를 뿜어내며 마리아 칼라스의 환영을 드러낸다. 파파노의 오케스트레이션 역시 푸치니의 정수와 진수를 보여준다. 성악가들이 노래하지 않을 때 무대를 채우는 푸치니 특유의 기악력이 돋보인다.

[보조자료]

– 2017년 3월 로열오페라 실황을 담은 영상물로 국내에서도 그해 5월에 곧바로 상영하여 인기를 모았던 프로덕션이다.

– 연출은 1983년 리옹 오페라에서 오페라 '한 여름밤의 꿈'으로 데뷔 이후 함께 움직여온 모셰 라이저와 파트리스 코리에 콤비의 합작으로, 오페라 무대는 일본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 특유의 여백이 강조된 미장센을 연상케 한다. 마치 일본 전통예술인 가부키를 선보이는 극장과도 같은 소박함이 물씬 풍기고, 이러한 무대는 성악가들의 동선과 움직임을 잘 부각시킨다.

– 작품의 주인공이 초초 상이라면, 이 프로덕션의 주인공은 단연코 소프라노 에르모넬 야호다. 1974년 알바니아 출생의 그녀는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Arthaus Musik 108112), 푸치니 '일 트리티코'(Opus Arte OABD7102D) 등의 프로덕션과 영상물을 통해 유럽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모셰와 파트리스 콤비의 연출은 원작의 복잡다단한 드라마와 화려한 볼거리를 무대에 풀어놓기보다는 최소화한 무대에 초초 상을 덩그러니 놓아 그녀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표출되는 모노드라마의 현장처럼 활용한다. 카메라 역시 수많은 인물을 한데 담기보다는 초초 상의 내면 심리가 배어 나오는 표정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포착한다.

– 로얄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인 안토니오 파파노는 역시 푸치니의 명장이다. 초초 상과 핑커톤이 첫날 밤에 함께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초초 상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어느 맑게 갠 날', 핑커톤의 죄책감을 담은 솔로곡 '안녕, 꽃들의 피난처여', 죽음을 택하는 초초 상의 '명예롭게 죽다' 등의 대표 아리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를 바탕으로 에르모넬 야호와 그의 파트너 테너 마르셀로 푸엔테(핑커톤 역)의 목소리가 더욱 살아난다.

– '나비부인'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의 연출적 실험과 무대미술의 볼거리는 이미 끝까지 온 상황이다. 오히려 음악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프로덕션을 통해, 그리고 에르모넬 야호의 목소리를 통해 마리아 칼라스의 환영과 만나게 된다. 해설지(27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연출 의도와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LP

www.euroarts.com

EuroArts 2064881 [LP & DVD]

2018 코펜하겐 실황
– '더 모리꼬네 듀엘 – 가장 위험한 콘서트'

사라 힉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덴마크국립합창단, 트바 쉐미쉔(메조소프라노), 한스 울리크(색소폰)

SIDE A (18:39 mins) 1. A FISTFULL OF DOLLARS / 2.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 3.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SIDE B (15:04 mins) 4. ONCE UPON A TIME IN AMERICA / 5. THE SICILIAN CLAN / 6. THE STRENGTH OF THE RIGHTEOUS

그들이 총구를 겨눌 때 울려 퍼진 모리꼬네 선율

2018년 1월 덴마크 코페하겐 DR 콘서트홀 실황으로 〈황야의 무법자(1964)〉부터 〈헤이트풀8(2015)〉까지 '결투'를 테마로 한 11편의 영화에 삽입된 엔리오 모리꼬네(1928~)의 음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다.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 하모니카 등을 차용한 〈황야의 무법자〉의 음악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부터, 갱스터 사회에서 벌어진 배신과 의리를 그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아늑한 선율까지 서로 총을 겨누던 운명의 주인공들의 명장면에 나온 선율들이 70분 동안 우리를 회상과 추억에 젖게 한다. 영화음악을 연주할 때 보통 무대에 영화의 명장면을 상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공연은 순수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하여, 음악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보조자료]

– 2018년 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DR 콘서트홀에 오른 이 공연(영상물)의 제목은 '결투(duel)'이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1964년 작 〈황야의 무법자〉부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15년 작 〈헤이트풀8〉까지 '결투'를 테마로 한 영화들을 통해 엔리오 모리꼬네(1928~)의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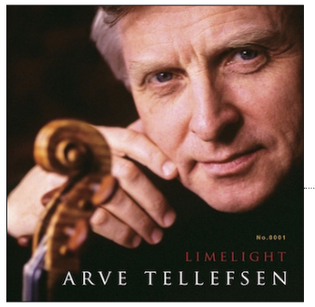
– 여성지휘자 사라 힉스의 지휘로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은 〈바스터즈:거친 녀석들(2009)〉 〈황야의 무법자(1964)〉 〈헤이트풀8(2015)〉 〈옛날 옛적 서부에서(1968)〉 〈택시 드라이버(1976)〉 〈언터처블(1989)〉 〈석양에 돌아오다(1966)〉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 〈시실리안(1969)〉 〈석양의 무법자(1967)〉 〈킬빌(2003)〉 〈대부(1972)〉에 담긴 모리꼬네의 메인 테마곡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로마에서 태어나 트럼펫을 전공한 모리꼬네는 할리우드로 진출하여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 하모니카 등 새로운 악기들의 차용을 통한 서부 영화음악을 만들어 냈다.

– 대표적으로 〈황야의 무법자〉의 휘파람 연주가 바로 그것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양한 영화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인상적인 멜로디를 구사하는 곡이다. 또한 갱스터 사회에서 벌어진 배신과 의리를 그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아늑한 선율은 그의 예술의 정점이라고 평가받았다. 오랜 연륜 만큼이나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는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그의 음악은 이제 고전을 넘어서 전설이 되기에 충분하다.

– 보통 영화음악을 연주할 때 무대 뒤에 영화의 명장면을 상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공연은 순수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듣다보면 그 음악이 울려나오던 명장면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내부에 포함된 해설지는 한 장짜리로 간단히 트랙만 안내한다.

Grappa LP

www.grappa.no



GRAPPA

CD Version: GRCD4332
UHQ CD Version: GRCD4332UHQ
LP: GRCD4332LP [2LP]

오디오파일 음반 마스터링의 명스튜디오
독일 Pauler Acoustics studio에서 re-mastering, Germany 제작 – 3가지 버전 : CD / LP / UHQ CD

노르웨이의 바이얼린 거장
아르베 텔레프센 콜렉션 "Limelight"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의 OST부터 거슈인과 요제프 요하임 라프까지

우리 시대, 노르웨이의 국보급 바이올린 거장 아르베 텔레프센이 80세 생일을 기념하여 그의 연주 일생에서 가장 사랑한 트랙들을 선정하였다. 그의 음악 친구 색소폰 연주자 얀 가바렉, 케틸 비에른스타와 함께한 서정적인 연주는 Pauler Acoustics의 놀라운 레코딩 기술력과 만나 현존하는 최고의 CD 포맷 UHQ CD(Ultra Hight Quality CD)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음반의 타이틀과 동명인 찰리 채플린의 마지막 영화 Limelight를 비롯하여 쉰들러 리스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등의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의 OST부터 거슈인과 요제프 요하임 라프까지,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북유럽 특유의 맑고 투명한 감수성과 자연을 가감없이 담아내었다.

[수록곡]

01. Ennio Morricone: Theme From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 02. John Williams: Theme From Schindler's List
03. John Williams: Remembrance From Schindler's List / 04. Jacob Gade: Tango Jalousie
05. Enrique Granados: Danza Española No. 5 / 06. Fritz Kreisler: Schön Rosmarin
07. Fritz Kreisler: Liebesfreud / 08. Manuel Ponce: Estrellita / 09. William Kroll: Banjo And Fiddle
10. George Gershwin: It Ain't Necessarily So / 11. George Gershwin: Summertime / 12. Heinz Provost: Intermezzo
13. Jules Massenet: Meditation From Thaïs / 14. Zdenek Fibich: Poem
15. Joseph Joachim Raff: Cavatine
16. Jan Garbarek: Pan
17. Charlie Chaplin: Themes From Limelight
18. Ennio Morricone: Themes From The Mission

[LP 수록곡]

Side A 01. Ennio Morricone: Theme From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 02. John Williams: Theme From Schindler's List
03. John Williams: Remembrance From Schindler's List / 04. Jacob Gade: Tango Jalousie
05. Enrique Granados: DanzaEspañola No.5 / 06. Fritz Kreisler: SchönRosmarin / 07. Manuel Ponce: Estrellita

Side B 08. William Kroll: Banjo And Fiddle / 09. George Gershwin: Summertime / 10. Joseph Joachim Raff: Cavatine
11. Jan Garbarek: Pan / 12. Charlie Chaplin: Themes From Limelight / 13. Ennio Morricone: Themes From The Mission

우치다와 래틀의 '베토벤 아우라' [3CD + 2Blu-ray]

2010 베를린 필 실황
미츠코 우치다 · 래틀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5곡)

사이먼 래틀_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츠코 우치다_ 피아노

BPHR180241 [3CD + 2Blu-ray]

- Recorded in February 2010, Berliner Philharmonie
- 3CD + 2Blu-ray discs (audio/video)
- 24-bit-download-code
- Bonus video: Mitsuko Uchida in conversation (12 min)

표지사진

* 베를린 필과 사이먼 래틀 '말러 교향곡 6번' 2CD + 1Blu-ray
* '케겔(Kegel) 최후의 녹음들' 8CDs

〈아울로스뉴스〉 2018년 12월호
통권 제 78호 발행 2018년 12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